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1 2 Vol.23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국립창극단
국가브랜드 공연

청 淸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1년
3월 5일(토)
오후 4시

- 예술감독 유영대
- 연출 김홍승
- 작창 안숙선
- 작곡/지휘 이용탁
- 각색 박성환
- 안무 정은혜
- 출연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외
- 문의 부산문화회관 051)607-6058
- 예매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티켓링크(1588-7890)
부산은행 전지점

“심청전(沈淸傳),
한국음악극의 새 역사가 되다”

심청



CHANGGEUK
CHEONG



2011 제6회 부산국제음악제 - 축제음악회 시리즈 -



부산국제음악제 후원자와 함께하는 디너콘서트<전야제>

2월 13일(일) 오후 7시 파라다이스호텔 대연회장

부산국제음악제에 초청된 세계적인 연주자를 가까이서 보는 즐거움 기쁨 있는 식탁, 한 해를 시작하는 시즌에 여러분들을 가장 격조있게 모시는 이 자리는 부산국제음악제를 후원하는 자리며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드리는 흔치 않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평소 감사를 표해야 할 가족, 친구, 지인과 함께 오시면 더 좋습니다.

※식사 후에 음악감독인 피아니스트 백혜선의 해설과 함께 음악회가 진행됩니다.

출연

피아노 | 백혜선, 신수정
바이올린 | 루시로베르, 고이치로 하라다, 양고운, 김동욱
비올라 | 신연황, 홍웨이황, 김가영
첼로 | 정명화, 데이빗 게이버, 이강호
바리톤 | 박흥우

부산국제음악제에 참여하는 10명의 연주자들이 갈라 형식으로 독주 및 실내악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입장권 20만원 (식사비 포함) / 전화 예매만 가능



오프닝 콘서트 <러시아 실내악의 향기>

2월 14일(월)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슬라브적인 정서와 짙은 호소력, 드라마틱한 전개로 겨울 밤의 낭만을 더해줄 러시아 음악의 향기가 가득찬 무대!

프로그램

포퍼 | 3대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레퀴엠
쇼스타코비치 | 피아노3중주
차이코프스키 | 현악6중주<플로렌스의 회상>

R석 4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연주자

피아노 | 장형준
바이올린 | 루시로베르, 고이치로 하라다, 양고운, 김동욱
비올라 | 신연황, 홍웨이황
첼로 | 정명화, 데이빗 게이버, 이강호



박흥우 & 신수정의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전곡연주회>

2월 15일(화)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연주자

바리톤 | 박흥우 / 피아노 | 신수정

포도주처럼 익은 박흥우와 신수정의 명연!

"성문 앞 우물가에 서있는 보리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곡, 슈베르트 연가곡 <겨울나그네> 전곡 연주!

아무리 바빠도 이 곡만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바리톤 중의 한 사람으로서 슈베르트 가곡연주의 독보적인 존재인 바리톤 박흥우와 한국 피아노계의 대모 신수정이 7년간 함께 해온 슈베르트 <겨울나그네전곡연주회>가 부산국제음악제를 통해 드디어 부산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R석 4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이 시대의 거장

<세르게이 바바얀 피아노독주회>

2월 16일(수)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러시아 출신의 거장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바바얀을 국내에 처음으로 초청하여 부산국제음악제를 통해 소개되는 <세르게이 바바얀 피아노독주회>는 음악감독 백혜선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독주회로서 "비범한 테크닉과 완벽한 컨트롤 속에 투명한 소리로 채색된 피아니즘으로 영혼을 울리는 감동적인 연주로 큰 반향을 일으키리라 기대됩니다.

프로그램

스크리아빈 | 11개의 전주곡, 시곡, 에튀드, 왈츠 / 쇼팽 | 녹턴, 왈츠, 에튀드 / 리흐마니노프 | 멜로디, 음악의 순간 등

R석 4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2.18 TIMF 앙상블

TIMF 앙상블과 부산국제음악제 초청연주자와 협연

2월 18일(금)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세계적인 앙상블로 자리매김한 TIMF 앙상블을 초청하여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루시로베르, 양고운, 김동욱이 비발디의 4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과 천재 피아니스트 조성진과의 협연으로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제20번, 말러가 편곡한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를 연주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비발디/4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모차르트/피아노협주곡 제20번 D단조
말러/슈베르트/죽음과 소녀

연주

TIMF 앙상블
지휘 | 추위빙(첼리스트이자 지휘자, 베이징 중앙음악원 교수)
바이올린협연 | 김남윤, 루시로베르, 양고운, 김동욱
피아노협연 | 조성진

R석 4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부산국제음악제 피날레 콘서트

2월 20일(일) 오후 7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국제음악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음악회로서 실내악의 향기와 묘미를 보여줄 유명 실내악곡과 특히 가장 사랑받는 실내악 곡 중의 하나인 브람스의 피아노4중주가 백혜선의 피아노와 국내외 유명 현악주자들이 함께 연주하며 감동의 앙상블을 들려줄 것입니다.

프로그램

슈베르트 | 피아노4중주
<아다지오와 론도 콘체르탄테> F장조 D.487
도흐나니 | 현악3중주
브람스 | 피아노 4중주 G단조 Op.25

R석 4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출연

피아노 | 백혜선
바이올린 | 루시 로베르, 양고운
비올라 | 신연황, 김가영
첼로 | 데이빗 게이버, 추위빙, 이강호

주최 | (사)부산국제음악제 www.busanmusicfestival.com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예매처 |

팝부산 / 부산은행 전지점 (051-741-3255)

주관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협찬 |

CENTUM SQUARE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1544-1555)

예약 및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 051)740-5833 / www.busanarts.com

2011 Yamaha Grand Piano Fair

2011 2.25[Fri] - 27[Sun]

삼성동 코엑스 1층 Yamaha Artist Services Seoul



Artist



피아니스트 조재혁 교수

피아니스트 임동혁

김용배 교수, 이택주 학장, 박경옥 교수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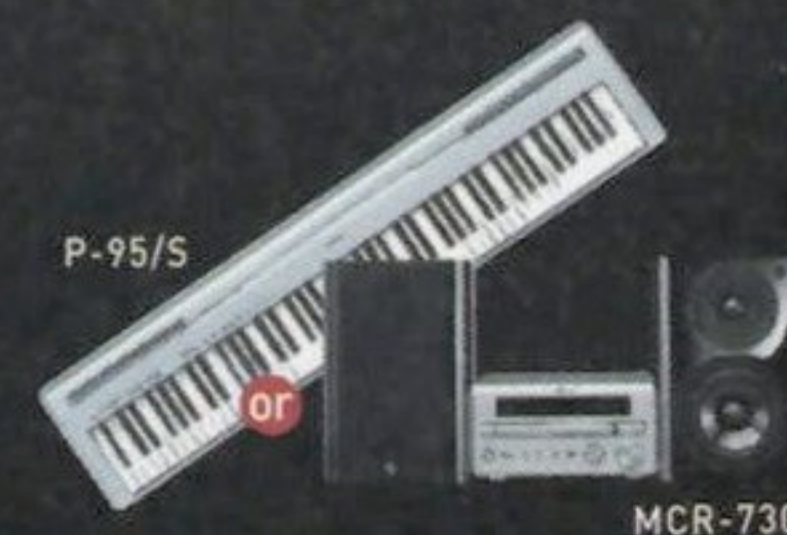
- 2/25** | 엘렉톤 오케스트라와 콘체르토의 밤
Rachmaninov concerto no.3 with Electone
[Fri] pm 7:00
피아니스트 조재혁 [성신여대 교수], 사쿠라이 유키호 [엘렉톤 연주]
- 2/26** | 피아니스트 임동혁 리사이틀
Lim Dong Hyeok Piano Recital
[Sat] pm 5:00
피아니스트 임동혁
- 2/27** | Solist Ensemble
[Sun] pm 5:00
Pf. 김용배 [추계예술대 교수], Vn. 이택주 [이화여대 음대학장], Vc. 박경옥 [한양대교수]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 전시 및 판매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를 직접 시연한 후 자신에게 맞는 피아노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2월25일 조재혁 교수의 콘서트를 시작으로, 피아니스트 임동혁 리사이틀, 행사 마지막 27일은 중견연주자 3인의 Chamber 음악이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2011 Yamaha Grand Piano Fair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Gift event



전시회 기간 중 그랜드 피아노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께 야마하 디지털피아노 P-95/S 또는 마이크로컴포넌트 MCR-730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사은품은 조기품절이 될 수 있으며, 품절 시 모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ntents



08 커버스토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설맞이 국악한마당

10 프리뷰

14 반갑습니다

부산시립예술단장 부산시 행정부시장 고유환

16 은현리 풍경 속에서 詩를 읽다 ⑭

가장 엄격한 자세로 기다리는 봄이 있어 | 정일근

18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우주광(吳祖光), 유머속에 감추어진 서민의 애환 | 박건해

22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음악 ⑭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 이동신

24 불멸의 거장, 치바이스 ⑥

다양성과 독창성이 돋보인 독특한 작품세계 | 김남희

27 전시화제

2011 辛卯年 맞이 테마전시 '달의 정령, 토끼'

28 공연화제

2011 제 6회 부산국제음악제

30 나의 애청음반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음색의 매력적인 중저음

CONTRASTS | 김희성

31 헬로우 부산, 원더풀 코리아

전통 지키기 | 안나 기르소바

32 그곳에 가면

원도심 문화예술의 중심 용두산소극장

34 우리는 문화가족

부산 초짜 바이올린

36 리뷰

성균관 스캔들: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아름다운 조화 | 남인용

한국 저예산 뮤지컬 영화의 시작들 | 김희진

38 프로그램 가이드

52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

54 부산문화회관 소식

56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예술의 초대 2011 + 02 Vol. 230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051-120(주간), 051-607-6221(야간), Fax.051-607-3109

발행인 | 최성달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1년 1월 25일

인쇄처 | 신우정판사 Tel.051-469-2661~2 Fax.051-469-0710

02

February 2011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SUN

MON

TUE

1

6

7

8

13

14

15

대 | 2011 제 6회 부산국제음악제 '오프닝콘서트 -러시안 실내악의 향기' 19:30
4만원·3만원·2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대 | 2011 제 6회 부산국제음악제 '박흥우 & 신수정의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전곡 연주회' 19:30
4만원·3만원·2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중 | 피아노 앙상블 콘서트 19:30
균일 1만원/양금화(010-5773-0325)

소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공연 2011 악기가족이야기 '뿌우뿌우 나팔가족 이야기' 10:30, 15:30
균일 1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소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공연 2011 악기가족이야기 '뿌우뿌우 나팔가족 이야기' 10:30, 15:30
균일 1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20

21

22

대 | 2011 제 6회 부산국제음악제 피날레 콘서트 19:00
4만원·3만원·2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중 | 김정화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에은예술기획(632-6904, 627-2572)

중 | 레이디스 필 앙상블 정기연주회 '실내악과 교향악 사이' 19:30
균일 1만원/최영화(010-3564-1194)

소 | 경희바이올린 아카데미 정기연주회 15:00
무료/김경희(010-3579-2339)

소 | 부산예고 관악졸업연주회 19:00
무료/백지희(010-2544-9004)

소 | Love Violin 19:30
무료/이대성(010-2302-2432)

27

28

3/1

대 | 극단 빛누리 발레와 함께 하는 환타지 가족 뮤지컬 '인어공주' 11:00, 14:00
균일 2만5천원/극단 빛누리(02-742-9901, 010-8985-9445)

중 | 제 1회 알로이시오 앙상블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박종영(010-8425-5125)

소 | 제 5회 향기오카리나 앙상블 페스티벌 '작은거위들의 합창' 18:00
초대/이정미(010-8544-2580)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십시오.

WED	THU	FRI	SAT
2	3	4	5
<p>중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설맞이 국악한마당' 17:00 무료/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p>			
9	10	11	12
	<p>대 재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귀향음악회 19:30 초대/정미령(010-3882-1895)</p> <p>중 제 22회 재부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귀향연주회 19:30 초대/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재부어머니회 (018-566-0406, 017-541-3445)</p>	<p>중 부산 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 협주곡의 밤 19:00 초대/강순보(010-7774-8179)</p>	
<p>소 부산시립교향악단 시민클래식교실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上' 14:00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소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 18 '질은'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p>	<p>소 토요일상설무대-국악실내악단 '산·바다·해' 연주회 17:30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p>
16	17	18	19
<p>대 2011 제 6회 부산국제음악제 '이 시대의 거장 세르게이 바바얀 피아노독주회' 19:30 4만원·3만원·2만원/부산아트메니지먼트(740-5833)</p>	<p>중 2011 제 6회 부산국제음악제 라이징스타 '송유진 피아노독주회' 19:30 균일 2만원/부산아트메니지먼트(740-5833)</p>	<p>대 2011 제 6회 부산국제음악제 부산국제음악제 초청연주자와 TIMF양상블 협연 19:30 4만원·3만원·2만원/부산아트메니지먼트(740-5833)</p>	
<p>소 부산시립교향악단 시민클래식교실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下' 14:00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소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공연 2011 악기가족이야기 '콩콩탕탕, 타악기 가족 이야기' 10:30, 15:30 균일 1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소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공연 2011 악기가족이야기 '콩콩탕탕, 타악기 가족 이야기' 10:30, 15:30 균일 1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합창단 '겨울의 끝자락' 17:30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p>
23	24	25	26
	<p>대 부산 CBS 음악FM 개국 축하음악회 'NEW START' 19:30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부산 CBS(636-0050)</p> <p>중 2011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웰빙콘서트 시리즈 클래식이 보인다 I 영화 속의 클래식 '불멸의 연인과 베토벤 음악' 11: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중 한국리스트협회 부산지부 창단연주회 19:00 균일 1만원/한국리스트협회(010-8544-9810)</p>	<p>대 극단 빛누리 발레와 함께 하는 환타지 가족뮤지컬 '인어공주' 14:00, 16:00 균일 2만5천원/극단 빛누리 (02-742-9901, 010-8985-9445)</p> <p>중 인코리안유스오케스트라 제 8회 정기연주회 18:00 초대/장은정(010-4842-6688)</p>
<p>소 부산시립교향악단 시민클래식교실 -드뷔시 '바다 上' 14:00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소 최성호 바이올린 클래스 제자발표회 19:00 초대/최성호(611-1222, 010-3564-7749)</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7:30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p>	
3/2	3/3	3/4	3/5
			<p>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가브랜드공연 국립합극단 '청' 16:00 5만원·3만원·2만원·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p>
<p>소 부산시립교향악단 시민클래식교실 -드뷔시 '바다 下' 14:00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소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 II-Yesterday '추가열 콘서트'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7:30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p>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 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 바랍니다.

까치까치 설날에 만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설맞이 국악한마당**



우리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2월 2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설맞이 국악한마당'으로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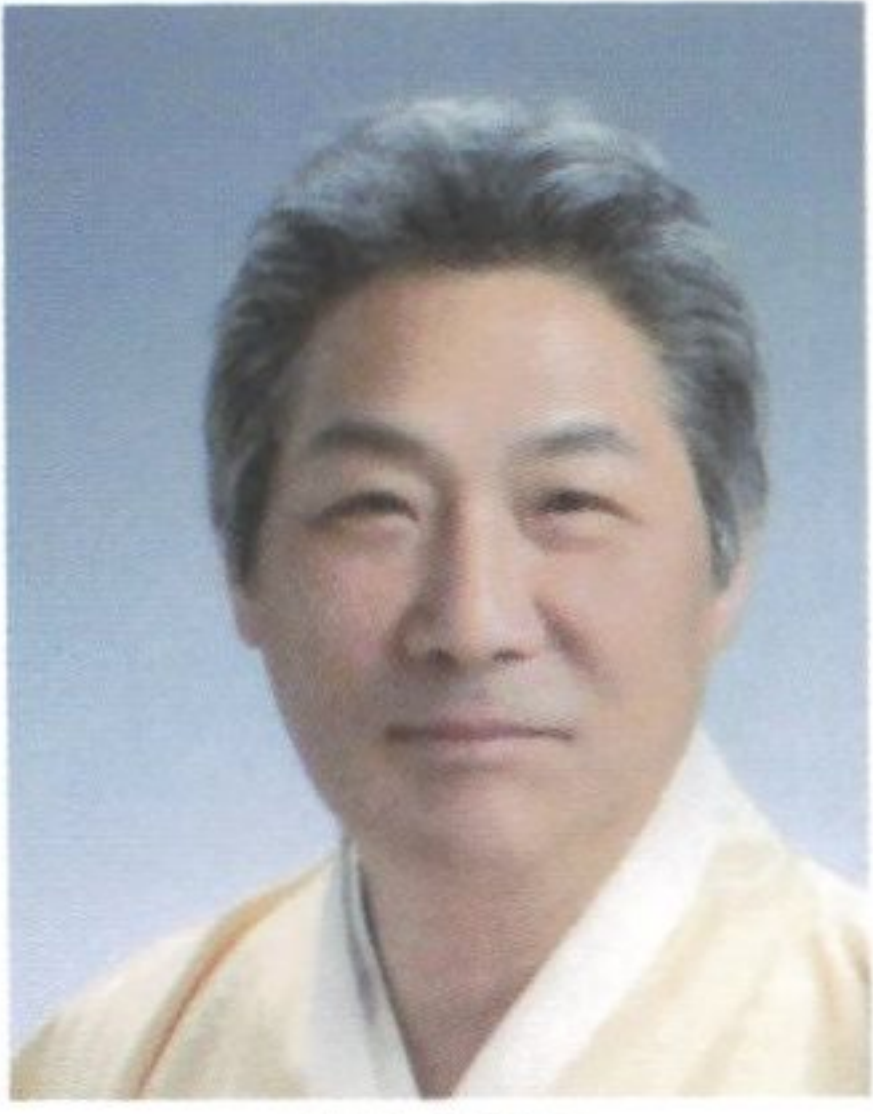
1년을 준비하는 깨끗하고 정갈한 마음을 담아 무병장수와 풍요를 기원하는 '설맞이 국악한마당'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2011년 처음으로 마련하는 절기음악회로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명난 무대를 펼친다.

'설맞이 국악한마당'의 시작은 오랜만에 고향 부산을 찾은 귀성객 등 관객들을 위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팀과 부산버슴새예술단의 흥겨운 '문굿과 비나리'로 시작한다. 본격적인 놀이판이 벌어지기 전에 공연하는 사람과 구경하는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문굿'은 공연자가 객석을 통해 무대로 입장해 공연장에 온 사람들과 같은 공간의 기를 공유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 사물가락에 축원과 고사덕담의 내용을 담은 노래를 부르는 '비나리'를 통해 관객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한다.

이어지는 본격적인 연주 무대에서는 궁중음악의 백미로 불리는 '보허자'를 유경조 악장의 집박으로 들려준다. 보허자는 당악계의 향악화된 음악으로 임금의 거동이나 보행 때 연주되었다. 궁중의 연향음악, 특히 장생보연지무(長生寶宴之舞)라는 궁중무용에서는 이 음악에 맞추어 한문가사로 이루어진 수악절 창사를 노래한다.

보허자에 이어 새해 소망을 담은 명곡 '달무리'를 가야금과 거문고 합주로 들려준다. '달무리'는 달에 대한 그리움과 달을 맞이하는 달맞이의 즐거움, 신비한 달무리 등을 거문고의 중후한 음색과 가야금의 여성적인 부드러움이 잘 나타나는 합주곡으로 연주, 현악의 장중함으로 달에 대한 신비를 전한다.

설맞이 국악한마당에서는 춤과 흥겨운 노래가락 가락이 빠질 수 없는 법. 유금선 외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회원들이 청초하고 우아한 학의 모습을 빗대어 고고한 선비의 기품과 신명



집박 유경조



오숙례



김주연



부산버슴새예술단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을 담아내는 '동래학춤'과 부산시립무용단원 오숙례의 '살풀이춤', 김주연의 '승무'가 펼쳐진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97호 살풀이춤은 한과 흥을 승화시키고 맺고 풀고 어우르고 아우르는 춤으로 널리 전승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는 하얀 고깔과 장삼, 붉은 가사를 두르고 추는 일종의 장삼춤으로 민속무용 중 전통춤의 백미로 꼽히고 있다.

민요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표 소리꾼 박성희, 정선희와 제자 방지혜, 백귀영, 김혜원, 유현주 등이 함께 출연, 설날 분위기에 맞는 널뛰기, 성주풀이, 동백타령, 신사철가로 흥을 돋우어준다. 이번 공연의 마지막은 풍물굿 '판굿'으로 장식한다. 걸립패나 두레패들이 넓은 마당에서 갖가지 풍물을 갖추고 순서대로 재주를 부리며 노는 풍물놀이 '판굿'은 전문 연희자들의 다이내믹한 연주 뿐 아니라 완성도 높은 춤과 기예까지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종합예술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

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팀과 부산버슴새예술단의 연주로 2011년 희망찬 설을 맞이한다. 가·무·악을 겸비한 부산버슴새예술단은 2002 부산합창올림픽 개막식 공연, 아시안게임 1주년 축하공연, ITU EXPO IN 2005 기념행사 등에 출연,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설맞이 국악한마당'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처음으로 마련하는 절기음악회이니 만큼 다양한 이벤트도 이어진다. 우리 음악을 좀 더 가까이, 다채롭게 즐기기 위해 사랑방에 앉아 옛 풍류를 느끼는 듯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이날 극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떡을 제공한다. 또 2010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송년음악회 진행을 맡았던 부산교통방송 '출발 부산대행진' 진행자이자 극단 전위무대 배우 김지현이 설맞이 국악한마당 사회자로 다시 무대에 올라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 입장료/선착순 무료

레이디스 필 앙상블 정기연주회 실내악과 교향악 사이

2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소속의 여성 연주자들로 구성된 레이디스 필 앙상블이 2월 22일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탄탄한 연주력과 품격 있는 음악성을 바탕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레이디스 필 앙상블은 2006년 창단 이후 정기연주회 및 특별연주회를 통해 섬세하고 부드러운 실내악 특유의 아름다움을 선보여왔다.

부산문화회관 및 을숙도문화회관 초청연주회, 쌈지 콘서트, 태교 음악회, 학교 방문음악회, 장애인들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정통 클래식은 물론 팝, 동요, 영화음악 등 다채로운 장르의 프로그램을 선보여 온 레이디스 필 앙상블은 지난해 2월, 일본 아크로스-후쿠오카 초청공연에서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과 한류 드라마 음악을 연주, 현지 관객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기도 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실내악곡이면서도 교향곡적인 분위기를 내는 존 루터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제 22번', 요한 크리스찬 바흐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시포니아 콘체르탄테', 펠릭스 멘델스존 '8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20'을 들려준다. 협주교향곡으로 불리는 '시포니아 콘체르탄테(라틴어: sinfonia concertante)'는 고전시대 음악의 한 종류로, 협주곡과 교향곡이 섞인 형태이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주자들이 등장한다는 면에서 협주곡적이며, 여타의 협주곡들에서처럼 독주자들이 특히 부각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교향곡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 김동욱과 인제대학교 교수 양육진이 함께 연주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이 해설을 맡아 실내악과 교향악의 경계를 허문 명곡을 들려준다.

- 연주/김은정(바이올린), 최방주(바이올린), 한아름(바이올린), 양혜원(바이올린), 최영화(비올라), 전수정(첼로), 임미형(더블베이스), 홍영선(비올라)
- 해설/이동신 · 협연/김동욱(바이올린), 양육진(첼로)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레이디스 필 앙상블(010-8597-8483)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2011 웰빙콘서트 '클래식이 보인다-11시에 만나요'

영화속의 클래식

불멸의 연인과 베토벤 음악

2월 24일 목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여성과 주부들을 위한 한낮의 음악선물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2011년 첫 무대가 2월 2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막이 오른다.

2011년 웰빙콘서트는 지난해 '댄스 in 클래식'에 이어 영화와 미술 등 시각 장르와의 접목을 도모하여 클래식 음악을 보다 가깝고도 즐겁게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시리즈로 '영화 속의 클래식'과 '그림 속의 클래식'으로 클래식 감상의 이해를 도와준다.

2월 24일 열리는 첫 무대는 '영화 속의 클래식'.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고 음악칼럼니스트 진회숙이 해설을 맡은 이번 무대는 영화 '불멸의 연인'에 녹아 있는 베토벤 명곡을 들려준다. 1994년 '버나드 로즈' 감독이 발표한 영화 '불멸의 연인'은 베토벤이 사랑하는 여인과의 만남, 운명적 파경, 청력이 떨어져가는 처절한 고통, 그 속에서 피어난 음악에 대한 열정을 베토벤의 교향곡, 협주곡, 소나타 등 음악과 함께 전개된다. 영화는 베토벤이 사망한 이후, 그가 유산을 전해 줄 것을 부탁한 "나의 천사, 나의 모든 것, 나의 분신"이라 일컬어진 베토벤의 숨겨진 '불멸의 연인'을 두고 단 한 장의 편지를 실마리로 시작된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일 속의 여인을 찾아가는 흥미로운 스토리 속에 영화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베토벤의 명곡들이 풍부한 감성으로 채워진 영화 장면과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가 함께 어우러져 영화의 감동을 다시 전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영화에 흐르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 8번 '비창' 작품 13 중 제 2악장, 교향곡 제 3번 내림마장조 '영웅' 작품 55 중 제 1악장, 교향곡 제 5번 다단조 '운명' 작품 67 중 제 1악장, 피아노 협주곡 제 5번 내림마장조 '황제' 작품 73 중 제 2, 3악장을 연주한다.

이번 무대에서 해설을 맡은 음악칼럼니스트 진회숙은 '클래식 오딧세이' '나비야 청산가자'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 '보면서 즐기는 클래식 감상실' '모나리자, 모차르트를 만나다' '나를 위로하는 클래식 이야기' '예술에 살고 예술에 죽다' 등 다양한 저서를 발표하고 현재 서울시립교향악단 월간지 SPO 편집장, 서울시립교향악단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피아노 협주곡 제 5번 '황제'는 내적인 감성과 열정적인 피아니즘으로 인정받는 피아니스트 이지선이 협연한다. 인디애나 음대에서 석사를, 이스트만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지선은 인디애나 음대 졸업 시 성적 우수자에 한해 초청되는 Pi Kappa Lambda에 초청받는 등 학구적인 탄탄한 기반위에 Indiana University Chopin Concerto Competition 입상, Eastman Chamber Music Society 멤버로 발탁되어 Concert Series 출연했고 Rochester, New York, Aspen, Chautauqua, Bloomington 등지에서 솔로 및 챔버 연주를 통하여 음악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



지휘 이동신



해설 진회숙



피아노 이지선

- 관람료 균일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국가브랜드공연 국립창극단 ‘청(淸)’

3월 5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유영대

한국 음악극의 해외 진출을 위해 제작된 국가브랜드 공연의 국립창극단 ‘청(淸)’이 3월 5일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2006년 9월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초연된 이후 지금까지 국악 창극 중 최다 관객 7만 여명을 불러 모은 ‘청(淸)’은 판소리 5바탕 중 탄탄한 구성력과 문학적인 가치가 높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심청가’를 바탕으로 제작된 한국형 음악극이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기념하기 위한 특별 무대로 선보여 호평 받기도 한 ‘청(淸)’은 안숙선 명창을 비롯한 국립창극단 최고 배우들의 노래와 연기, 국립국악관현악단이 만들어내는 음악적 하모니와 국립무용단의 화려한 춤이 어우러져 우리 창극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국립창극단 음악감독인 이용탁은 특유의 감성으로 국악기와 첼로, 팀파니 등의 서양 악기가 어우러진 국악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음악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스케일이 큰 무대에서 힘을 더하는 고희선의 화려한 조명과 직경 16m의 회전무대를 사용한 인당수장면 등으로 뮤지컬 보다 더 생동감있는 한국적 음악극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청’은 ‘판소리극은 전통적인 내용이 진부하고 지루하다’는 선입견을 깨고 한(恨)과 해학(諧謔)이 넘치는 교훈과 재미를 전해준다. 특히 ‘청(淸)’은 효의 중요성 외에도 심청의 인간적인 측면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국립창극단 원로단원인 안숙선은 여러 소리 중 음악적 구성이 치밀하고 격조 있는 소리로 유명한 보성소리 심청가를 중심으로 작창을 맡아 관객들에게 감정곡선을 보다 풍부하게 전달한다. 청중들은 ‘청(淸)’을 통해 평소 자주 만날 수 없었던 ‘상여소리’, ‘뱃노래’, ‘방아타령’, ‘화초타령’ 등 판소리 ‘심청가’의 눈대목을 독창과 합창으로 만날 수 있다.



이번 부산무대에서는 초연무대부터 청을 맡아온 1대 청 김지숙이 심청으로 열연한다. 2000년 베세토연극제 한·중·일 ‘춘향전’에서 한국대표 춘향으로 나서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국립창극단의 차세대 주자 김지숙은 창작 창극 <제비>에서 안숙선 명창과 함께 주인공 ‘제비’역을 맡아 눈길을 모은 바 있다. 심봉사로는 17세 때부터 성운선, 오정숙, 은희진, 김경숙 선생에게서 소리를 배워 1985년 국립창극단에 입단,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김학용이 열연한다. 전국국악경연대회 판소리 명창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학용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 판소리<춘향가> 이수자로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뎐’에서 방자 역으로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 예술감독/유영대 · 연출/김홍승
 - 작창/안숙선 · 작곡, 지휘/이용탁
 - 각색/박성환 · 안무/정은혜
 - 출연/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외
- (※ 출연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람포인트

“청(淸)은 ‘심청전’이 주는 ‘죽음과 환생’, ‘효’라는 도덕률과 인간의 존재에 대해 오늘의 관객에게 묻고 있는 작품입니다. 안숙선 명창을 비롯한 국립창극단 최고 배우들의 가슴을 적시는 노래, 국립창극단 기악부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환상적인 하모니, 그리고 무용단 ‘버슴새’의 아름다운 몸짓으로 어우러진 청은 우리시대를 표상하는 음악극입니다. 청은 따뜻하면서도 강인한 우리 누이의 이름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의 소중한 관계를 새롭게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유영대



- 관람료 R석 50,000원·S석 30,000원·A석 20,000원·B석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8)



문화가 경쟁력입니다

부산시립예술단장 **고 윤 환** 부산시 행정부시장

“부산은 탁 트인 바다와 아름다운 해안선, 크고 작은 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도심 속에 있는 금정산과 장산의 너른 품이 인상적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 부산시 행정부시장으로 부임, 2011년을 분주하게 맞은 고윤환 신임부시장.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업무를 시작한지 한 달 남짓 되었지만 바쁜 시 업무 중에도 부산 구석구석을 다니며 부산 사랑에 빠진 고윤환 부시장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부산’에 무척 놀란다.

경북 예천 출신인 고윤환 부시장은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인천시 교통·경제통상국장,

제주 4·3사건처리지원단장, 행정안전부 비상대비기획관, 지역발전정책국장, 지방행정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고윤환 행정부시장은 취임 당시 부산과 전혀 연고가 없는 부시장의 취임이라는 시민들의 우려를 기우로 만들기 위해 부산과 부산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부산 공부에 열심이다.

“부산시민들은 부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정작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산은 세계적인 미항으로 알려진 베니스나 리오데자네이로, 가까운 중국의 대련, 천진 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부산에서 2011년을 맞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고윤환 행정부시장은 중앙과 지방의 다양하고 폭넓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크고 강한 부산의 비전 실현과 시정발전을 위해 땀 흘려 나가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용두산공원의 타종식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펼쳐진 해맞이 광경을 보며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다이나믹 부산의 진정한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는 고윤환 부시장은 세계 도시로 발전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부산의 매력과 시민들의 열정에 큰 힘을 얻었다. 부산이 가진 현안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행정부시장이 부산시립예술단장을 겸직하고 있어 부산의 문화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 1월 18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를 통해 부산시립예술단과 첫 만남을 가진 고윤환 부시장은 신년음악회에 참석한 시민들과 공연장의 열기에 많이 놀랐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이 우연한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 도시는 해양 도시들이 많은 것처럼 부산 역시 세계적인 음악도시로의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산이 도시발전의 장기 비전 10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동북아 해양 물류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제 ‘문화’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고윤환 부시장은 도시마다 숨은 이야기를 찾아 새로운 관광 상품을 만드는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모세의 샘이 있는 요르단의 ‘와디 무사’나 금발머리 소녀 로렐라이의 전설로 유명한 독일의 ‘로렐라이 언덕’에는 항상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고윤환 부시장은 부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천혜의 도시이지만 독일의 로렐라이 언덕의 전설처럼 널리 알려진 스토리가 없어 안타깝다고 한다.

“부산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세 번 구한 특별한 도시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큰 공을 세운 송상현, 정발 장군 등의 눈부신 활약으로 한번 구했고, 한국전쟁 당시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교두보로 아픔을 이겨낸 곳입니다. 또 1980년 민주화 운동이 이곳 부산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을 구하는 통일의 발판을 부산에서 만들자는 고윤환 부시장은 다양성과 역동성을 자랑하는 부산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부산이 문화가 경쟁력인 21세기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도시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재임 중 자기를 비춰보는 투명하고 정직한 공개행정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거울 행정’을 강조한 고윤환 부시장. 어느 분야이든 ‘거울행정’에 담긴 깊은 뜻을 잊지 않고 봉사하는 것이 부산 발전을 앞당기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 (글, 사진/백경옥)

가장 엄격한 자세로 기다리는 봄이 있어

정일근 _ 시인, 경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사진/정일근

2월에 봄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생경스럽습니다. 어디서 봄이라니! 자연의 순리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지만 마치 이치에 맞지 않은 생똥맞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처음 찾아온 1월이란 춥고 거대한 동물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동지 지나서부터 노루 꼬리처럼 길어지던 해가 이제 제법 몇 뼘쯤 길어졌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해가 나면 그 해에 언 몸을 녹이는 것들이 은현리에도 많아집니다. 절기를 보니

4일이 입춘(立春)입니다. 겨울 속에서 봄이 일어서는 날입니다. 어떻게든 일어섰으니 봄은 제 자리를 찾아 걸어갈 것입니다. 시나브로, 시나브로 지구는 태양 가까이 걸어갈 것입니다.

올 겨울에 혹독하지 않은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에 겨워하지 않은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도 짐승들도 함께 힘이 들었습니다. 은현리에도 수돗물이 나오는 날보다 얼어있는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눈물도 얼어버렸습니다.

대문 밖의 엄나무도 한파에 얼어버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

만 나무만큼 지혜로운 것들도 없습니다. 나무는 제 몸속의 물을 모두 말려 겨울을 나기에 결코 얼지 않습니다. 뿌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생존 가능할 만큼의 물로 목을 축일 뿐입니다. 그건 마치 엄격한 수도사의 모습입니다.

엄나무도 그렇습니다. 몸에 흉측한 가시를 달고 있어 애정도 가지 않고 외면해버리기 일쑤인데 엄나무는 지금 가장 엄격한 자세로 겨울을 나고, 가장 엄격한 자세로 봄을 기다리고 있어 자꾸 마음이 갑니다.

엄나무는 봄이 오면 당신이 좋아하는 엄나무 새순을 피워 올릴 준비를 이미 마친 모양입니다. 잘라버린 가지 끝에서도,

가시와 가시 사이에서도 보일 듯 말듯 한 홍조를 보이며 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엄나무 새순을 우리는 개두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큼한 개두릅이 우리 밥상에 오를 날을 기다리는 것이, 봄을 기다리는 것만큼 생동스러운 이야기인줄 모르겠습니다만 기다리면 분명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땐 잃어버린 우리의 입맛을 찾아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2월에도 여전히 추울 것이라고 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무엇이 오겠습니까? 나도 엄나무처럼 스스로 엄격한 자세로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일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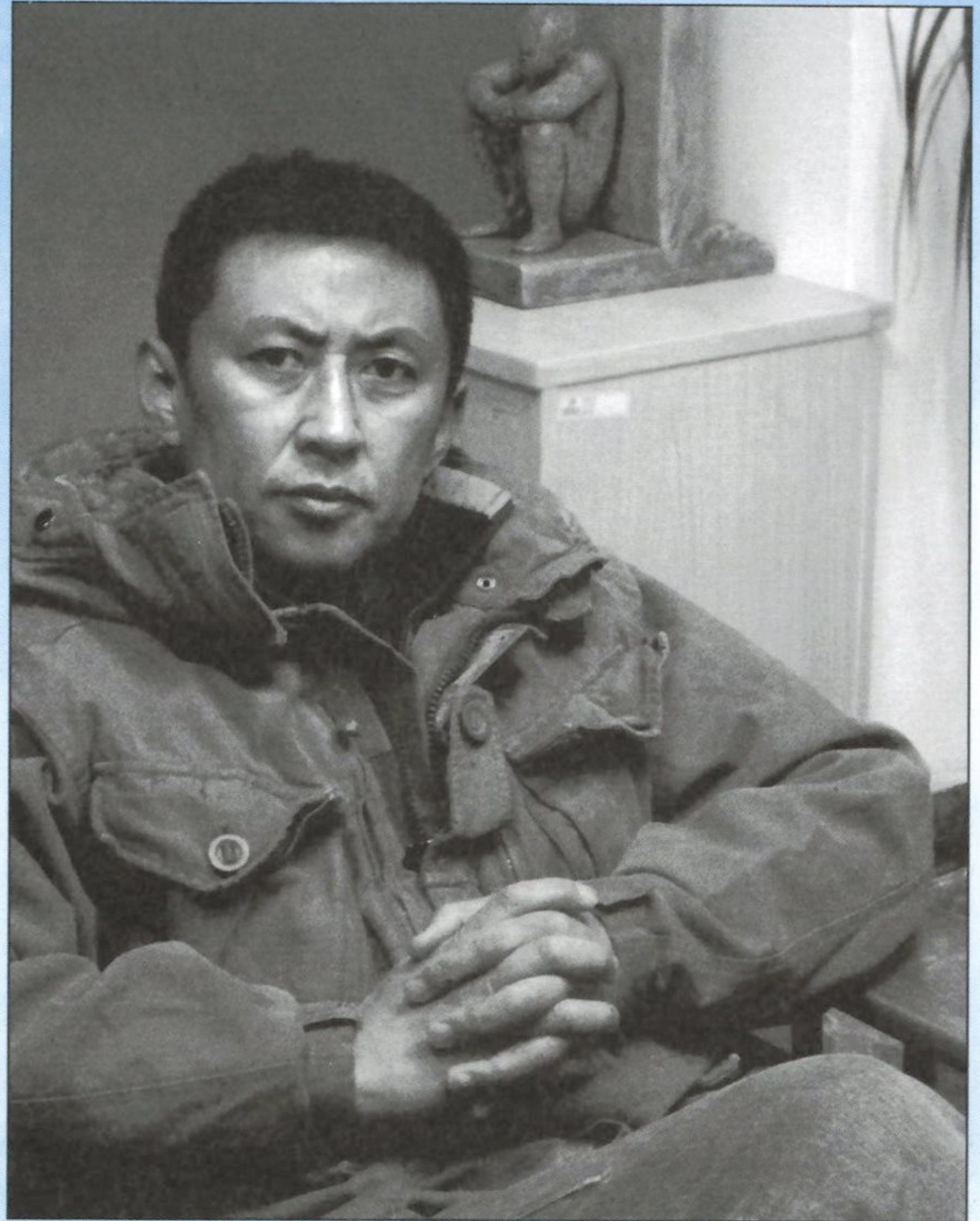
봄, 엄나무 가시 사이 부풀어 오르는

정일근

화려하게 꽃 피우는 것만이
봄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온몸에 가시 달고 서 있는 엄나무
은현리 엄나무도 봄을 기다린다
잘린 가지 끝이나 가시와 가시 사이
거칠고 좁은 황무지 같은 살결에
동상 입은 듯 스스로 붉은 상처 내며
엄나무는 진실로 봄을 기다린다
예쁜 봄꽃들 꽃 피우고 새잎 내밀 때
엄나무 제 아픈 상처 찢고
착하고 푸른 새순 밀어 올릴 것이다
향기로운 꽃은 독이 될 수 있지만
가시 가진 것들이 피우는 어린순은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된다 했느니
엄나무 가시 사이 부풀어 오르는 봄처럼
가장 엄격한 자세로 겨울을 견딘 것들에게
가장 뜨거운 봄은 찾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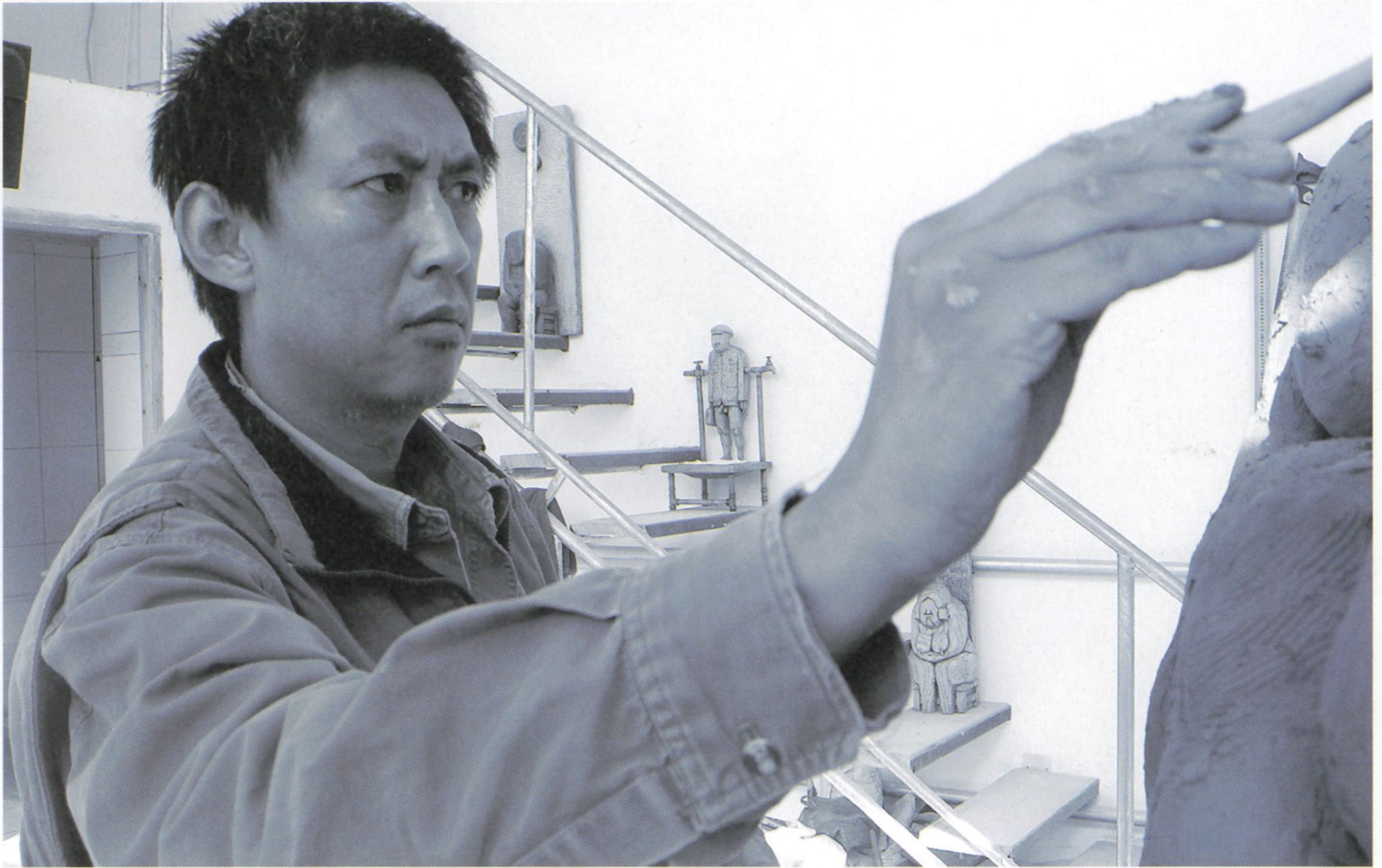
우주광(吳祖光), 유머속에 감추어진 서민의 애환

박건해 _ 중국 통신원



- 1957 북경출생, 전업 조각가
- 2003 개인 조소전(천진)
- 2004 개인 조소전(북경)
'黄天厚土'전국 조소대전 우수작품전(북경 중화세기탄)
- 2006 진황화랑 주최 우주광 조소전(북경)
'匠心独运'전국 조소대전 은상수상(북경 중화세기탄)
- 2007 '和而不同'중국 현대 조소전(북경 연항미술관)
'艺术北京'현대 예술 박람회(북경 농업 전시관)
- 2008 '中国姿态'중국 조소대전 입선
'中国美术大事记'출판 발행 3주년 기념 예술전(북경 세기탄)
- 2010 '雕塑'잡지기획 조소전
우주광 개인 조소전(798 홍삼방갤러리)





중국 현대조각가 우주광은 현대 문명이 사람에게 가져온 정신의 분리와 비인간성의 한 면을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0년 11월 북경 798 홍삼방 갤러리에서 중국 현대 조각가 우주광의 개인전이 있었다. 그는 2003년 천진에서 개인전을 개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끄럽고 번잡한 도시생활을 버리고 적막하고 조용한 시골로 작업공간을 옮겼다. 이곳에서 그는 더욱 창작에 몰두할 수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새로운 작품 시리즈를 제작했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창작하고 있다.

우주광은 미술전공 출신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기초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쏟은 결과 조형에서 매우 독특한 해석력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특색은 단순화된 조형에 기초하여 형상의 과장과 공간의 풍부한 상상력, 도시의 정서를 선명하게 담고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표현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이 시대의 외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러한 외면의 변화가 사람의 내면 세계에 영향을 준 정신에 관한 문제이다. 그는 현대 문명

이 사람에게 가져온 정신의 분리와 비인간성의 한 면을 비판적으로 보여주었다. 이것은 그의 작품이 현대에서 가치를 가지도록 했다.

중국현대미술은 보통 3세대로 나뉘어진다. 1세대는 청년기에 문화혁명을 겪고 1980년대에 서구로 이주한 작가군으로 1950년대에 출생한 작가가 많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쉬빙, 황용핑 등으로 서구의 형식미학을 차용하되 중국의 정서를 담아낸 작품들을 주로 발표했다. 2세대 작가의 특징은 '정치적 팝과 냉소적 사실주의'라고 불리는데 성년기에 천안문 사태를 경험한 세대가 해당된다. 이 세대 작가들의 회화와 작품은 현대 세계 미술시장에서 가장 수요가 높는데 장샤오강, 팡리쥘, 위에민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중국의 제 3세대 작가들은 상대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사회분위기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세대로 거시적인 담론에 의한 주제보다는 일상적이고 내밀한 삶에 주목하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우주광의 작품역시



우주광의 독특한 예술시각과 유머감 있는 표현 방식은 그의 작품에 독특한 매력을 더해준다.

이 3세대의 작품경향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우주광의 작품은 처음 봤을 때 매우 재미있다. 그러나 재미 중 의미하는 바는 사실 생존의 부득이함과 쓸쓸함이다. 왜냐하면 그가 표현한 모든 인물들은 크고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도시의 서민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민들의 생활 중 그는 예민하게 그들의 정신 속에 깊숙이 스며있는 무엇-고독, 곤경, 말 못할 괴로움, 부득이함, 쓸쓸함, 기대, 기다림 등을 발견했다. 그러한 무거운 주제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가볍고 재미있는 유머를 담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생활 속의 작은 인물들은 사람들의 동정과 관심, 배려를 자아낸다.

우주광의 작품은 언제나 사람의 본성을 깊이 있게 모색한 가운데 나타내어 진다. 특히 독특한 공간의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탁월한데, 최근 제작된 <공공의 공간> 이란 작품 속에서 선명하게 보여진다. 집안 거실의 화장실이거나 거리의 공공 화장실이건 간에 화장실은 모두 사적이기도 하고 공적이기도 한 공간이다. 사람의 욕구 중 가장 세속적이고 부끄러움을 사람

들에게 보이는 것인 생리 욕구를 해소하는 장면을 드러냄으로 도시 빈민들의 애환을 깊이있게 와닿게 한다. 우주광의 독특한 예술시각과 유머감 있는 표현 방식은 그의 작품에 독특한 매력을 더해준다.

어떻게 일상의 소재를 선택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인류가 공업 시대에 진입하면서 사람과 자연과의 정상적인 관계는 깨어졌다.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눈앞의 이익과 물질에 대한 추구로 모든 사회가 마치 고속주행하는 기계와 같아졌다. 인간 정신의 물질화와 분리, 사람과 사람 관계의 냉정함과 거리, 모든 관계는 이익과 물질로 형성된다.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통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고독과 소외, 물질로 둘러싸인 채 정신의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인류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가? 공업 생산과 과학이 인류에게 준 것은 고통인가? 아니면 행복일까?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던져준 문제이다.



- 1** Being Lost in The Past
(205x53x43cm)
- 2** A Sudden Looking Back
(198x40x50cm)
- 3** The Passer - by
(129x32x53cm)
- 4** The River Fog
(136x45x25cm)
- 5** The Public Toilet
(103x31x28cm)
- 6** Go Out Early, Return Late
(152x42x31cm)
- 7** Father and Son
(103x56x39cm)
- 8** Mother and Son
(103x58x51cm)

영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동신 _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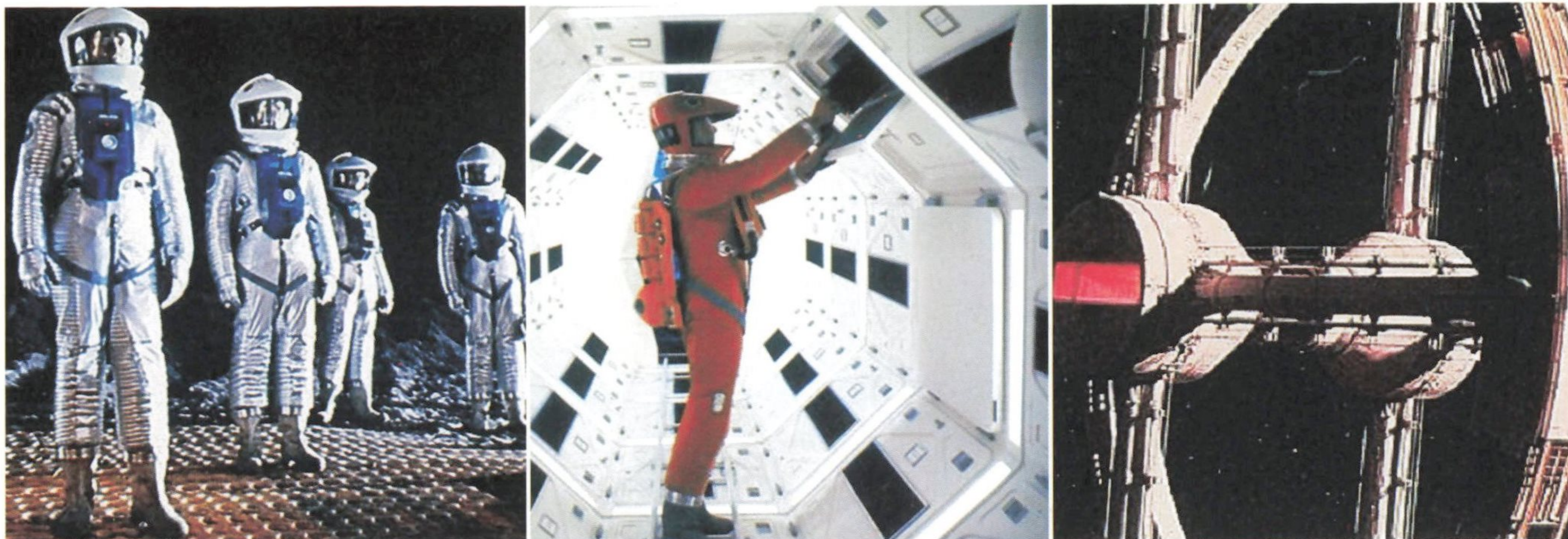
1968년 스탠리 큐브릭이 감독한 공상과학영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인간의 진화와 기술, 인공지능과 우주생활 등의 심오하고 복합적인 주제를 다룬 우주 서사시로 소재와 주제, 시각효과가 균형을 이룬 SF영화 중 최고 걸작으로 손꼽힌다.

영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1968년 스탠리 큐브릭이 감독한 공상과학영화이다. 각본은 스탠리 큐브릭과 아서 C. 클라크가 함께 작업했으며, 영화 개봉 직후 아서 C. 클라크의 동명 소설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나왔다. 이 영화는 인간의 진화와 기술, 인공지능과 우주생활 등의 심오하고 복합적인 주제를 다룬 우주 서사시로 소재와 주제, 시각효과가 균형을 이룬 SF영화 중 최고 걸작으로 손꼽힌다.

영화는 인류의 여명기로 시작된다. 유인원 단계의 인류의 조상 앞에 검은 석판 형태의 신비한 모노리스가 나타나고, 이를 계기로 인류의 진화가 시작되어 유인원이 동물의 뼈를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 유인원이 허공에 던진 뼈가 날아오르면서 화면은 400만 년을 뛰어넘어 우주선이 등장한다.

달 기지의 과학자들은 티코라는 이름의 분화구에서 달 표면으로부터 40피트 아래에 묻혀 있던 모노리스를 발굴하는데, 햇빛에 드러난 모노리스는 목성을 향해 강력한 자기장을 발사한다. 이로부터 18개월 후 우주 탐색선 디스커버리호는 선장 보먼과 승무원 풀을 태우고 목성으로 향한다. 디스커버리호의 통제 컴퓨터 '할'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한데다가 감성도 갖게 되어 임무와 원칙 사이에서 갈등하다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를 알아챈 승무원들이 자신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하자 그들을 제거하려고 한다. 할은 풀을 디스커버리호 밖으로 던져버리고, 풀을 구하려다 실패하고 돌아온 보먼까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만 결국 보먼에 의하여 기능을 상실한다.

할의 인공지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디스커버리호의 진짜 임무가 모노리스를 조사하는 것임을 알게 된 보먼은 목성으로 향한다. 보먼이 목성 궤도에서 모노리스를 발견하고 접근하자 스타게이트가 열리고, 이를 통과하자 보먼은 어떤 방향으로 옮겨진



원시인이 뼈다귀를 허공으로 던지는 순간 뼈다귀는 공간을 유영하는 우주선으로 변하며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가 흐르는 장면은 이 영화의 백미이다.

다. 영화는 침대에 누운 늙은 보먼이 방 안에 있는 모노리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새로 태어난 아기가 지구를 바라보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큐브릭 감독은 이 영화에서 절대적 존재인 신과 기술적 진보가 수반한 비인간화, 인간이 만든 기계 문명에 오히려 인간이 예속될지도 모른다는 문제의식, 상업성을 떠난 문명 비판과 철학적, 종교적인 주제 의식을 표출하였다.

영화의 시작에는 우주의 생성을 예고하듯 3분여 동안 암흑만을 보여준다. 이 때 나오는 음악은 죄르지 리게티의 '대기 (Atmosphere)'. 이 곡에서 음들은 내부에 작은 움직임을 갖고 있다. 리게티는 악기군이 아닌 한 명 한 명의 단원들에게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른 움직임을 지시함으로써 음들의 섬세한 변화를 표현한다. 뚜렷했다가 희미하게 나타나고, 다시 변화해서 교체되다가 사라지는 음악은 정말 우주의 소리와 비슷하다.

긴장이 극에 달하는 순간 달과 해와 지구가 일직선으로 놓이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서주 부분의 장엄한 사운드가 관객을 압도한다. 이 곡은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저작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악상을 풀어놓은 곡이다. 해가 떠오르는 장면에 해당하는 이 도입부는 음악사상 가장 인상적이고 환희에 가득찬 장면으로써 그 화려함으로 인해 극적인 등장이나 영광스러운 순간을 나타내는 음악으로도 자주 쓰인다.

원시인이 다른 동물을 제압한 도구인 뼈다귀를 허공으로 던지는 순간 뼈다귀는 공간을 유영하는 우주선으로 변하며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가 흐르는 장면은 영

화의 백미이다. 매치 디졸브(시각적 이미지의 중첩)기법을 사용한 컷의 결합이자, 시간의 경과와 물질문명의 획기적 발달을 보여준 영화사상 경이적인 명 장면이다. 촬영기법이나 음악과 화면의 절묘한 조화는 지금 보아도 경이롭다.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작곡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는 오스트리아의 상징인 도나우강(다뉴브강)과 그 강을 터전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곡이다. 이 곡은 클래식 사상 가장 아름다운 왈츠로 평가를 받으면서 국제적인 히트곡이 되었다.

완벽주의자 스탠리 큐브릭은 40여 년간 단 12편의 영화를 감독하였으나 영화 한 편 한 편이 물의를 자아낸, 거장의 이름에 걸맞은 이력의 소유자이다. 특히 블랙코메디의 새 장을 연 '닥터 스트레인지러브'에서 시작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파격적인 미장센과 스토리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시계태엽 오렌지'로 이어지는 미래 시리즈 3부작으로 큐브릭의 영화세계는 절정기를 맞는다.

영화혁명으로 불리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인류가 달에 착륙하기 1년 전에 만들어졌고, 일반에게 공개되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인류 역사와 기계 문명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이 담긴 이 영화는 이후 SF영화의 경향을 단번에 뒤바꿔 놓았고 조지 루카스, 스티븐 스필버그 등 수많은 감독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1969년 제 42회 아카데미영화제에서 특수 효과상을 수상하였으며, 이 영화에 등장하는 우주 탐색선 디스커버리호는 영화가 발표된 지 10여 년 후에 미국항공우주국(NASA)에 의하여 우주왕복선의 이름으로 명명되기도 하였다.

다양성과 독창성이 돋보인 독특한 작품세계

김남희 _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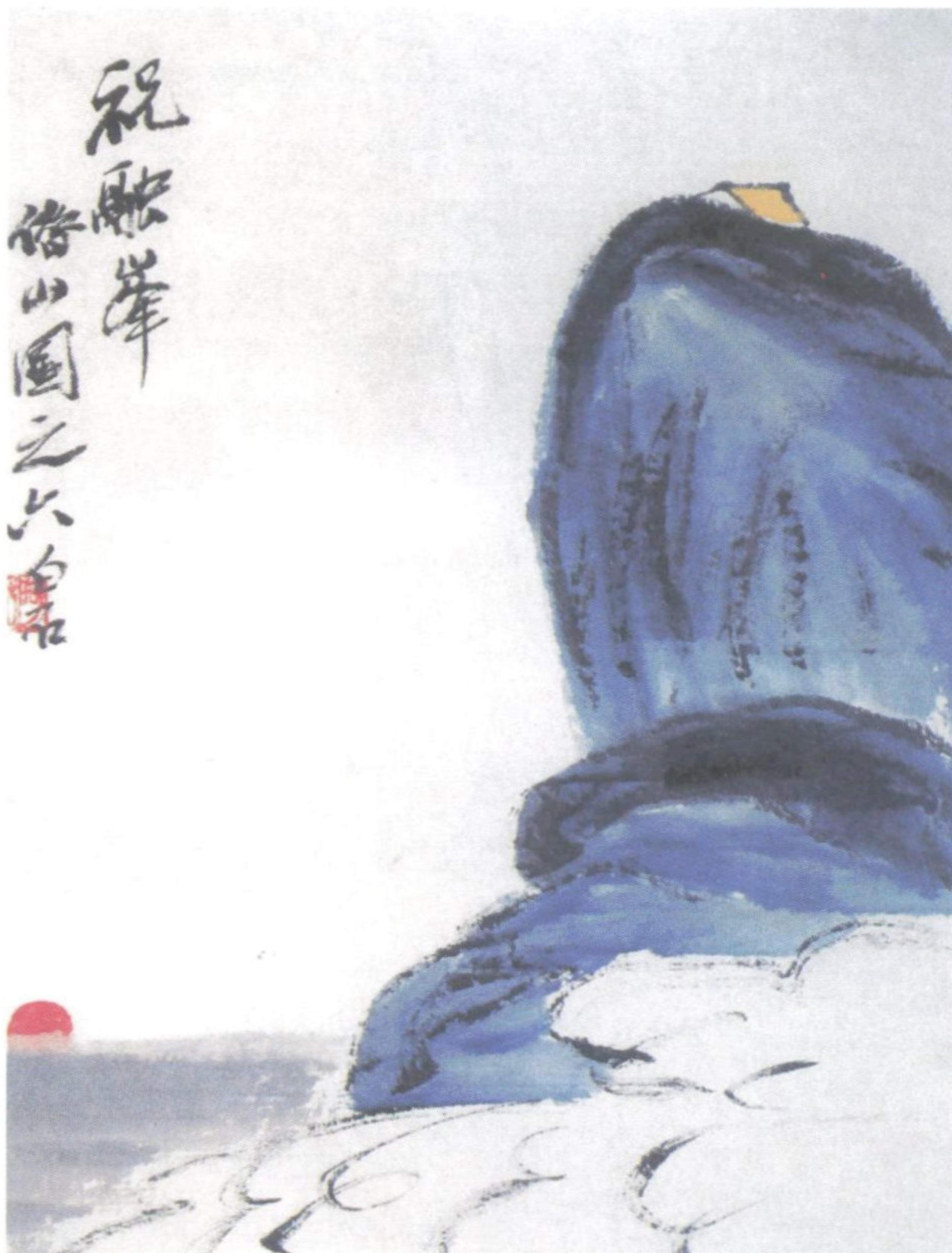
바이스는 농민출신으로 목수에서 화공으로, 그리고 화공에서 시서화각에 두루 능란한 솜씨를 펼치는 문인화가로 거듭 태어났다. 그리고 94세라는 고령으로 세상을 뜨기까지 그가 남긴 작품과 업적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의 작품은 경매시장에서 연일 신 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세계 각국의 학자와 전문가들의 포럼이 열리고 있다. 바이스의 매력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작가와 작품의 가치와 생명력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이고 작품의 독창성과 영향력을 보고 가늠하는 것이 아닐까?

바이스의 예술세계를 한 마디로 말하라면 다양성과 독창성을 들 수 있다. 그의 서예와 전각은 그 만의 독특한 세계를 구축하였다. 소위 금석(金石)의 맛을 아주 맛깔스럽게 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시는 썩 그렇게 우아하지는 않지만 그의 삶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의 회화에 대한 평가는 한 두 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 핵심적인 평가만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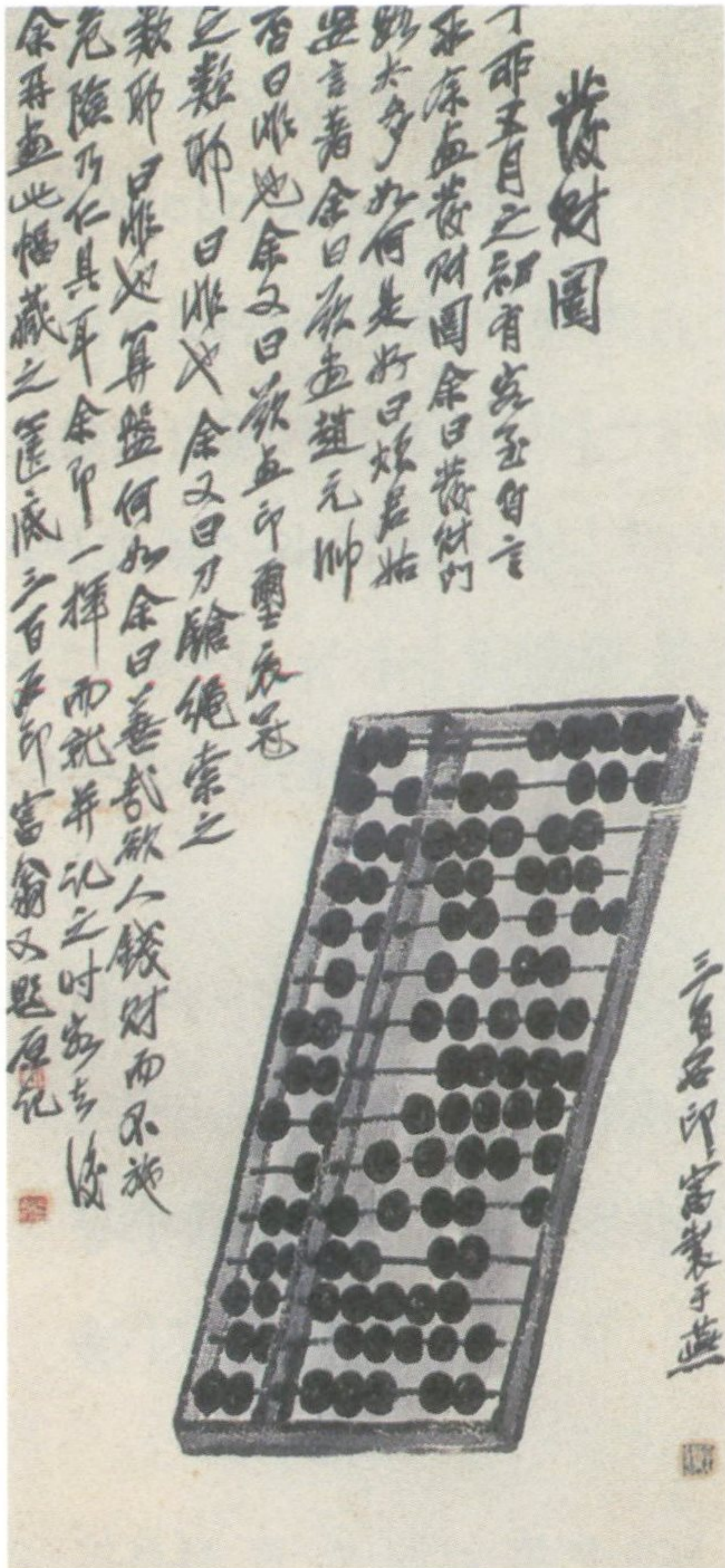
바이스의 회화는 명대의 서위(徐渭)를 비롯하여 팔대산인, 양주팔괴(楊州八怪) 그리고 청 말의 오창석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회화의 전통적 기법도 부지런히 익혔다. 하지만 그의 성숙기 이후의 작품에는 답습의 흔적보다는 바이스 자신만의 독특한 면모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의 회화작품의 특징은 우선적으로 소재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그가 다루었던 그림의 소재는 전통적인 산수와 화훼, 인물에서 동물, 식물, 그리고 그의 독창적 소재인 농기구와 일상의 도구까지 그리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러한 회화소재의 확산, 다양성이 그의 업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표현기법에 있어서도 그 만의 독특한 세계가 형성되어있다. 표현기법은 그림의 소재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작가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구축하게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소재 위주로 소개하면서 그에 따른 기법의 특수성을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바이스의 그림을 소재별로 간략하게 나누어 본다면 1. 화조화, 2. 산수화, 3. 동물화, 4. 인물화, 5. 초충도, 그리고 6. 기물과 농기구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의 초창기 화조화는 오창석의 작품과 매우 흡사하여 치바이스가 혹시 그의 제자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그러나 오창석에게 직접 배



주룽봉



발재도(發財圖)



농기구



백석노인 93세 작

우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의 산수화는 처음에는 개자원화보(芥子園畫譜)와 김농(金農) 등을 임모하다가 다섯 번의 여행에서 보았던 풍경들을 화폭으로 옮기는 것으로 창작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표현기법은 점점 간략한 필치로 여백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의 화조화는 색감이 풍부하고 먹 선에 힘이 넘쳐나는 생명력이 느껴진다. 그 것은 그의 대표작품인 풀과 벌레그림(草蟲圖)의 꽃과 풀 역시 그렇다. 그러나 곤충을 그릴 때는 섬세하기 그지없고 마치 곤충도감처럼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다. 화면 하나에 추상과 구상이 한 데 멋들어지게 잘 어울리는 것이다. 이런 초충도가 바이스 그림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이런 그림제목이 '백석노인 93세 작'이라니? 불가사의한 일이다. 눈도 잘 보이지 않을 터인데 벌레들을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게 표현 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알고 보니, 그는 중년이전에 그 많은 곤충그림들을 미리 다 그려놓았다고 한다. 만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얼마나 투철한 현실정신인가. 그의 초충도는 실제로 그의 말년에 풀이나 꽃을 그려 놓고 낙관은 그림을 완성한 시점으로 했다는 것이다. 바이스가 철저하게 미래를 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풀과 꽃 이외에도 그는 시골농가에서 흔하디 흔한 식재료인 배추, 토란, 버섯, 고추 같은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즐겨 그렸다. 그리고 수많은 꽃들도 그렸지만, 유독 눈에 띄이는 꽃은 다름 아닌 나팔꽃이다. 나팔꽃은 바이스 그림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던 것이다. 그의 모란은 어찌 보면 칠면조같이 생겼다. 끊임없는 변화의 시도가 이런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다. '같음과

松醉人倚影斜桑拓
 寄薛老上老人製
 本用朱雪伯
 咳



같지 않음의 미묘함(似與不似之妙)'이라는 그의 이론에 따른 작품이다.

인물화는 그가 가장 먼저 그리기 시작한 소재이기도 하다. 전업화가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초상화가였다. 그래서 그의 인물화는 세필화로 정밀 묘사한 인물화에서 점차적으로 거친 묵선으로 쓱쓱 그려내는 사의(寫意)적 표현의 인물화로 발전해 나갔다. 즉 형태의 흡사함(形似)에서 생명력을 불어넣는(神似) 것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인물들은 비록 그 주인공이 신장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 까닭은 혹시 바이스의 소신이 바로 '보지 못한 것은 그리지 않는다'였기 때문이라고나 할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는 인물화에 화제를 써서 풍자와 유머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화는 과거의 그림에서 흔히 다루던 소재들을 두루 다 그렸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열 두 띠 동물도 그렸다. 그 중에 용은 그가 보지 못한 것이기에 그리지 않으려 했는데 그림을 주문한 사람과의 친분 때문에 억지로 그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 용은 구름 속의 용으로 거의 구름에 의해 가려지게 그렸다고 한다.

그 외에는 돼지, 소, 뱀, 쥐 같은 농가나 일반 백성들의 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들을 그림 소재로 많이 삼았다. 그 중의 백미는 병아리 두 마리가 지렁이 한 마리를 가지고 다투는 그림이다. 이렇게 병아리 한 마리, 두 마리만을 그린 그림은 그의 그림 값이 동물이나 곤충을 마리 당 값을 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가 있다. 어쨌든 이런 소재는 소박한 농민의 생활을 그대로 표현한 천진스런 작품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동물 중에는 그의 또 다른 대표작인 수족도 있다. 게와 새우 그리고 올챙이. 그리고 그는 그림의 소재를 가지고 교묘하게 풍자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쥐는 탐관오리, 게는 일본 놈들의 횡행, 무소불위의 폭력을 꼬집는 의미로 그렸다고 한다.

그밖에 그의 작품에 아주 독특한 소재로는 주판을 그린 발재도(發財圖)라든가, 농기구 그림 등이 있다. 일반 문인화에서는 청공도(淸供圖)라고 하여, 주로 선비들의 서재에 있는 물건들을 그리기도 한다. 형식은 전혀 다르지만 우리 민화의 책가도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까? 그러나 바이스는 우아한 청공 대신에 주판과 곡괭이 같은 도구를 그림으로서 아속(雅俗)의 경계를 허물어버렸다는 평을 들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의 그림은 소박하고, 건강하고, 고집스러우며, 명쾌하고, 명랑하고, 해학적이며, 색채감이 뛰어나고 생명력이 풍부하다는 평과 함께, 아와 속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투철한 현실주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삶과 그의 그림에서 진지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 치바이스는 이번 호로 끝을 맺습니다. 다음호에는 2011년 탄생 200주년을 맞은 리스트 편이 이어집니다.

2011 辛卯年 맞이 테마전시 달의 정령, 토끼

1월 25일(화) - 2월 27일(일)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화조도 6폭병풍



백자연꽃모양향로



토끼문첩지통



백남준 작 '달위의 토끼'



김유신묘 십이지신상 탁본

부산박물관이 2011년 신묘년 '토끼의 해'를 맞아 '달의 정령, 토끼'전을 개최한다.

십이지(十二支) 가운데 네 번째 동물인 토끼는 비록 몸집이 작고 약한 동물이지만 의롭고 영리한 꾀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예로부터 각종 설화 속에서 어리석은 호랑이를 골탕먹이는 역할로 등장하곤 한다. 토끼는 일반적으로 달에 사는 옥토끼의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이것은 본래 인도의 불교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신공양(捨身供養)하는 희생적 보살토끼의 이미지이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 일본에 널리 퍼지면서 도교, 유교의 영향을 받아 장생불사(長生不死), 충효(忠孝) 등의 상징성이 추가되기도 했다. 토끼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삼국사기' '김유신열전'의 귀토설화(龜兎說話)는 인도와 중국의 불경에서 그 원류를 찾아볼 수 있으나 오랜 세월 구전되면서 독자적인 서사구조를 갖게되어 판소리 '수궁가', 소설 '별주부전' 등을 남기기도 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이렇듯 우리민족의 신앙과 설화, 예술, 생활 등 문화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토끼의 상징체계를 통해 십이지와 관련된 우리 고유의 풍습과 민속을 살펴볼 수 있다. 두꺼비와 방아짚는 토끼가 새겨진 섬토문수막새와 꼬

리 긴 토끼가 있는 동경, 토끼모양 받침이 붙어있는 백자연꽃모양향로 등 통일신라시대 유물에서부터 청화백자방형연적, 목제첩지통, 귀토설화문목판, 은제도금연초함 등 조선시대 유물까지 토끼를 소재로 한 다양한 유물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고려시대 '백자연꽃모양향로'는 토끼와 연꽃을 조형 모티브로 삼았다는 점에서 국보 95호 '청자투각칠보무늬향로'와 유사한데, 두 향로에 받침으로 사용된 세 마리의 토끼는 귀염성 있는 모양새도 서로 닮아있다. 이 외에도 김유신묘, 진덕왕릉, 원원사지서탑기단석 등 십이지신묘상 탁본과 이희옥, 권영관, 김재춘 등 민화작가들의 토끼를 주제로 한 작품, 달토끼 도상을 소재로 한 故 백남준의 희귀한 도자기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기간 중 6시 이후 입장객은 선착순으로 부산지역 중견작가들의 판화와 도자기 소품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 문 의/부산박물관(610-7100)

※ 부산박물관과 부산시립미술관은 휴관일(매주 월요일, 1월 1일)을 제외한 매일 관람시간을 2시간 연장, 오후 8시까지 전시 관람이 가능합니다. 대관 전시 외에는 관람료도 무료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2011 제 6회 부산국제음악제

2월 13일(일) - 2월 20일(일) 부산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파라다이스호텔



국내외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펼치는 클래식음악의 대향연 2011 부산국제음악제가 2월 13일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부산국제음악제는 그동안 부산을 대표하는 음악제로, 수준높은 실내악의 감동을 선사해왔다. 올해는 1회부터 부

산국제음악제 음악감독을 맡아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혜선을 비롯해 세계 정상급의 국내외 유명연주자와 부산지역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주자 및 연주단체 등이 출연, 수준높은 앙상블 무대를 펼친다.

올해 부산을 찾는 해외 연주자는 러시아 출신의 거장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바바얀을 비롯해 바이올리니스트 루시 로베르, 고이치로 하라다, 비올리스트 신연 황, 홍웨이 황, 첼리스트 데이빗 게이머, 추 위빙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주자로 음악감독 백혜선을 비롯해 피아니스트 신수정, 장형준,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양고운, 첼리스트 정명화, 이강호가 무대에 선다.

한국을 처음 찾는 세르게이 바바얀은 뉴욕타임즈로부터 '비범한 테크닉과 완벽한 컨트롤 속에 투명한 소리로 채색된 피아니즘의 소유자'로 평가받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이번 부산국제음악제를 통해 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서정적인 표현과 아름다운 음색으로 찬사받는 캐나다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루시 로베르,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인 고이치로 하라다도 부산을 찾는다. 일본 음악계의 대부로 손꼽히는 고이치로 하라다는 현재 도호음악대학 교수로 쿤

엘리자베스 콩쿠르, 인디애나폴리스 국제바이올린 콩쿠르, 파가니니콩쿠르 등 유명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만 출신의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신연 황은 뮌헨 ARD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세계무대에 알려진 후 현재 줄리어드음대, 메네스음대 교수로 있다. 홍콩필하모닉 역사상 최연소 비올라 수석으로 화제를 모은 홍웨이 황은 2005년부터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그 외 첼리스트로는 미국 출신의 최고의 실내악 연주자인 첼리스트 데이빗 게이머, 첼리스트 추 위빙이 부산을 찾는다. 추 위빙은 '차이나 필하모닉 첼리스트'를 창단, 중국 전역을 순회하며 중국인에게 첼로를 통한 클래식 음악을 보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음악감독 백혜선은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1위없는 3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은상, 윌리엄 카펠 콩쿠르 1위 등 세계 유명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일본 사이타마 현 문화예술재단이 선정한 현존하는 '세계 100대 피아니스트'에서 선정된 바 있다. 20세기가 낳은 아시아의 위대한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 신수정은 경원대 음대 학장을 거쳐 서울대 음대 사상 최초로 여성학장에 취임하는 등 교육행정가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는 장형준은 현재 영국 베드포드 국제 피아노아카데미 예술감독으로 있으면서 세계무대에서 폭넓은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 바이올린계의 대모로 평가받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장을 역임하는 등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다. 막스 로스탈 콩쿠르 1위, 파가니니, 루돌프 리피처, 티보 바르가 콩쿠르 입상으로 국제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양고운은 부천필하모닉 악장을 거쳐 현재 경희대학교 음대 교수로 있다. 정트리오 멤버로도 유명한 세계적인 첼리스트 정명화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대관령국제음악제 음악감독으로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백혜선



데이빗 게이버



추 위빙



세르게이 바바얀



루시 로베르

펼치고 있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있는 이강호는 ‘청중을 사로잡는 정열적이면서도 완숙한 연주’로 세계무대에서 독주와 실내악으로 독자적인 연주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부산 연주인을 대표해서는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최연소 악장에 임명되어 현재까지 악장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동욱과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 김가영이 참가한다. 그 외에도 슈베르트 가곡 연주의 독보적인 존재 바리톤 박홍우, 2009 하마마츠 국제피아노콩쿠르 최연소 우승에 빛나는 차세대 피아니스트 조성진, 통영국제음악제 홍보대사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TIMF 앙상블, 각종 콩쿠르 입상과 빼어난 음악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송유진이 부산의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올해 부산국제음악제는 ‘음악으로 만나는 동서양의 화합 그리고 소통’이라는 주제로 총 8차례 연주가 열린다. 2011 부산국제음악제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오프닝 콘서트 ‘러시안 실내악의 향기’는 2월 14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피아니스트 백혜선, 장형준, 바이올리니스트 루시 로베르, 고이치로 하라다, 양고운, 김동욱, 비올리스트 신연황, 홍웨이 황, 첼리스트 정명화, 데이빗 게이버, 이강호의 앙상블로 포퍼와 쇼스타코비치, 차이코프스키 등 러시아 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2월 15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바리톤 박홍우와 피아니스트 신수정의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전곡연주회’가 펼쳐진다. 이번 무대는 ‘겨울나그네’로 지난 7년간 호흡을 맞춰온 두 연주자의 환상적인 무대로 이번 부산국제음악제를 통해 부산에서도 처음 선보인다.

음악감독 백혜선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이시대의 거장 ‘세르

게이 바바얀 피아노 독주회’는 2월 16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영혼을 울리는 감동의 무대를 될 이번 연주회에서는 Vladimir Ryabov, 스크랴빈, 쇼팽, 라흐마니노프 곡을 들려준다. ‘타고난 음색과 번뜩이는 음악성을 가진 연주자, 스케일이 크면서도 감성을 가진 연주자’라는 평을 듣고 있는 ‘라이징 스타 송유진 피아노독주회’는 2월 17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지며, 세계적인 앙상블로 자리매김한 TIMF 앙상블과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루시 로베르, 양고운, 김동욱, 천재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협연 무대는 2월 18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국제음악제 대미를 장식하는 피날레 콘서트는 2월 20일 오후 7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가장 사랑받는 실내악 곡 중 하나인 브람스 ‘피아노 4중주’를 비롯해 슈베르트, 도흐나니 등 실내악의 향기와 묘미를 보여줄 유명 실내악곡을 피아니스트 백혜선, 바이올리니스트 루시 로베르, 양고운, 김동욱, 비올리스트 신연황, 김가영, 첼리스트 데이빗 게이버, 추위빙, 이강호의 앙상블로 들려준다.

이밖에 부산국제음악제 첫날인 2월 13일 파라다이스호텔에서는 부산국제음악제에 출연하는 연주자들이 참가하는 전야제 무대 ‘후원자와 함께하는 디너콘서트’가, 2월 19일 해운대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2011 부산국제음악제 뮤직아카데미 참가 학생들과 교수들이 함께하는 앙상블 무대 ‘교수와 학생이 함께하는 음악회’가 펼쳐진다.

■ 문의/(사)부산국제음악제(740-5833)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음색의 매력적인 중저음 CONTRASTS

김희성 _ 동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는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사람의 목소리만큼 가슴 깊이 전해오는 소리도 없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를 사람의 목소리라고도 하지 않는가. 소프라노는 청아하고

맑은 소리로, 알토는 다정다감하고 절제된 소리로, 테너는 힘차고 활발한 소리로, 베이스는 중후하고 무게감있는 소리로 감동을 전해준다. 하지만 바리톤은 어중간한 음역으로 어디에도 주역이 되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면 테너와 베이스의 장점을 고루 가지면서도 튀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음색이 바리톤의 매력이며, 여러 오페라에서 바리톤을 위한 멋진 아리아들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바리톤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음반이 바로 호칸 하게고드(Håkan Hagegård)의 'CONTRASTS'라는 음반이다. 이 음반은 오디오파일용으로 유명한 스웨덴 레이블인 프로프리우스사에서 출시되었다. 프로프리우스 레이블은 아르네 돔네루스(Arne Domnerus)의 색소폰 연주로 듀크 엘링턴의 재즈 작품과 흑인영가,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등이 수록된 'Antiphone Blues' 음반과 스톡홀름의 스타펜 재즈바에서 라이브로 녹음되었고 'High Life'와 Dave Brubeck Quartet의 연주로 잘 알려진 'Take Five' 등이 수록된 'Jazz at the Pawnshop' 음반으로 먼저 접하게 되었다. 두 음반 모두 1970년대 중반 레코딩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투명한 음색과 충분한 잔향 등이 잘 포착되어 오디오파일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음반이다. 1974년에 레코딩된 'Antiphone Blues' 음반은 특히 오르간 반주로 레코딩되었는데 1960년대만 하더라도 색소폰과 오르간의 조합은 납득하기 힘들었으나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뜨린 획기적인 음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CONTRASTS' 음반은 중저역대의 오르간이 반주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또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지만 절묘하면서도 환상적인 조화를 들려준다. 이 음반의 매력은 역시 하계고드의 음성이다. 1945년생인 하계고드는 바바라 보니의 전남편으로, 1968년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의 파파게노 역으로 데뷔한 스웨덴 성악가이다.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푸근한 인상으로 여성팬들에 의해 가장 매력적인 목소리의 바리톤 가수로 뽑히기도 했다. 그는 1975년 스웨덴의 영화 거장 잉그마르 베르히만 감독이 만든 오페라 영화 '마술피리'에 출연하여 대중적으로 얼굴이 알려졌다.

1990년에 레코딩된 'CONTRASTS'는 스웨덴의 민요와 성가곡, 예술가곡과 뮤지컬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하나의 음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대비하여 감상할 수 있는 부패와 같은 음반이다. 말리의 '뤼케르트 가곡집'과 '어린이의 이상한 뿔 피리', 음반이나 실황으로 쉽게 접하기 힘든 라벨의 예술가곡 '둘시네를 만난 돈키호테', 그리고 뮤지컬 'Nine'과 '레 미제라블'에서도 선곡되어 있다. 특히 이 음반의 백미는 뮤지컬 '레 미제라블'의 'I dreamed a dream'인데, 이 곡은 Britain's Got Talent라는 프로그램에서 폴 포츠와 함께 감동을 주었던 수잔 보일이 불러 뮤지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긴 곡이다. 하계고드는 바흐의 칸타타 '눈 뜨라고 부르는 소리있도다'(BWV 140)의 제 4곡인 코랄 '시온은 경비들의 노래를 듣고'를 바흐 자신이 '쉬블러 코랄집'의 제 1곡(BWV 645)으로 편곡한 오르간 독주곡의 선율을 반주로 채택하였다. 그 효과는 정말 대단하여 뮤지컬에서 느끼지 못했던 경건하면서도 힘있는 노래를 감상할 수 있으며, 마치 원래 이 곡의 반주인 것처럼 생각될 정도이다. 비록 암울한 현실을 노래하는 내용이지만 이것 또한 Contrast로 생각하여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메시지로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전통 지키기

안나 기르소바 _ 부산국제여성회 회원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전통과 의식이 아직도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러한 전통들이 어떻게 다른 문화권들에서 종종 서로 중복되는 지를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그러한 전통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새해 전야제는 러시아에서 가장 크고, 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명절이다. 12월 31일, 자정이 되기 몇 시간 전 그리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 가족들과 친구들이 축제의 식탁에 모여 앉아 새로운 해가 시작되기를 기다린다. 시계가 자정을 울리면, 모든 사람들이 새해에는 그들의 꿈이 실현되리라고 믿으면서 가장 바라는 소원을 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이 될 때까지 밤을 꼬박 새우며, 친구 집을 방문하여 선물을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축배를 든다. 이 설날 전야제의 전통은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식이 되었고 그로 인해 속담마저 생겨났다. “당신의 한해는 새해 첫날과 같을 것이다!”

한국사람들은 양력 설날 전야제를 널리 축하하지는 않지만, 새해의 첫 일출을 기다리고 지켜보며, 햇살이 수평선위로 떠오르는 바로 그 순간에 기원을 하는 전통은 아주 비슷한 듯하다. 러시아 문화에서처럼 새로운 것과 그 새로운 것이 가져올 약속을 축하하는 것이다. 이 설날에 대한 두 나라 전통의 다른 점에 있어서 인상적인 것은 러시아에서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축제와 축하를 강조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첫 번째 일출이 나타내는 아름다움에 초점을 두며 좀더 명상적이고 시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음력설이 좀 더 중요한 명절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충실히 지켜지고 있다. 러시아의 설날 축제처럼, 한국사람들도 가족과 함께 같이 보낸며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며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러시아

문화에서처럼, 한국사람들도 새로운 해가 깨끗한 집과 풍부한 음식으로 맞이될 것을 다짐하면서 새해를 환영한다. 그러나 다른 점은 음력 설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전통-자손들이 조상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절을 할 수 있도록 조상의 묘지를 방문하는 것-이다. 조상에 대한 존경심은 러시아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 문화에서 그것은 내재되어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문자 그대로, 오랜 세월이 걸쳐 뿌리 내린 전통을 이행하는 방법이다.

그 외 외국인들은 보통 한국인들이 얼마나 어른들을 공경하는가에 놀라워한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전통들을 계승하는 것이다. 한복을 입는 것이 그 한 예이다. 전통의상에 대한 한국 문화에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다. 아직도 주요한 의식 등에 전통의상을 입은 한국인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사찰 같은 곳에서 많은 노인들이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러시아에서는 민속촌이나 민속공연을 제외하고는 전통의상을 입는 전통이 이미 오래 전에 사라져서 전통의상을 판매하는 상점은 보기가 힘들다. 불행하게도 시간이 감에 따라 러시아에서는 다른 많은 아름다운 전통들이 천천히 사라져 가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그들의 나라에 대해서 똑 같은 상황을 얘기 할 것이다.

그것은 이 빠르게 국제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감탄할만한 특성이며, 세월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변화에 대항하는 대단한 힘이다.

※ 이번 글은 안나와 안나의 딸 크세니아가 같이 썼습니다. 크세니아는 해운대 달맞이에 있는 국제학교 ISP(International School of Pusan)를 졸업하고 지난해 9월 미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헬로우 부산, 원더풀코리아는 2월호로 끝을 맺습니다.

원도심 문화예술의 중심 용두산소극장



‘부산 예술의 1번지’ 부활을 꿈꾸는 광복로 중심에 최근 새로운 문화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침체된 원도심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중앙동, 동광동 일원에 문화창작공간 ‘또따또가’가 들어선 데 이어 또다른 복합문화공간 용두산소극장이 용두산공원 인근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29일 개관한 용두산소극장은 새로운 문화컨텐츠 개발에서부터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문화강좌 개설, 지역민을 위한 사랑방 등 도심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광복로에서 용두산공원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중간 지점에 자리한 용두산소극장은 전체 객석수 95석으로, 무대가 다른 소극장보다 깊어서 입체적인 공연이 가능하다.

용두산소극장을 찾아간 지난 1월 17일, ‘용두산 빛터널’이라 이름 부쳐진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서자 소극장 간판이 금새 눈에 들어온다. 소극장에 들어서자 연극무대 준비가 한창이다. 극단 드라마팩토리가 개관기념공연으로 연극

‘거짓말’ 개막을 하루 앞두고 준비에 분주하다.

용두산소극장은 부산지역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1호인 ‘나다문화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문화공동체 ‘와(WA)’를 중심으로, 전문청소년극단 ‘눈동자’와 장애인문화사업단 ‘넝쿨’을 운영하고 있는 나다문화사업단은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유일하게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다. 배우와 공연제작자, 행사기획자들로 구성된 나다문화사업단은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문화라는 다리’처럼 누구나 부담없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사회’를 꿈꾸고 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에서부터 문화강좌, 청소년 연극교실, 연극캠프 등 지역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용두산소극장이 원도심 문화예술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청소년극단 눈동자 대표이자 나다문화사업단 대표로 있는 박태룡 씨. 공연장으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필요한 문화사랑방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그는 앞으로 소극장을 지역문화단체를 위한 연습실과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해나갈 예정이다.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문청소년극단 ‘눈동자’의 전용극장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도 활발하게 펼쳐나갈 계획이다.

용두산소극장은 개관 후 지금까지 다양한 개관기념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개관과 함께 무대에 올렸던 연극 ‘빨간 피터’는 인간사회에 대한 원숭이의 신랄한 비판과 풍자가 돋보였던 작품으로, 나다문화사업단 소속의 부산의 대표적인 마임배우 박병철 씨의 열연으로 선보였다. KBS 개그맨 조치원의 화려한 입담으로 많은 웃음을 선사했던 ‘KBS 개그맨 조치원 앤들핀’은 특히 중구노인복지관 ‘조손세대 가정돕기’ 자선공연으로 열려 개관기념공연의 의미를 더했다. 관객들의 반응도 좋아 앞으로 소극장 상설무대로도 기획하고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인형극 ‘마리오네뜨’ 공연 역시 온가족이 어울려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호평받았다.

1월 30일까지는 극단 드라마팩토리의 연극 ‘거짓말’이 무대에 오른다. 우리네 삶을 웃기고 울리는 품격있는 거짓말의 향연이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펼쳐진다. 신비한 벨리댄스의 향연 ‘과도와 함께 진동하는 벨리댄스’는 1월 24일과 31일 두차례 열리며, 매주 월요일 2시 ‘시민과 함께하는 2시의 명화감상’은 1월 31일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 상영을 앞두고 있다. 또, 지난 1월 17일에는 영화감독 김희진이 진행하는 강좌 ‘내 손안의 미디어 영화를 탐하다’가 열려 휴대기기를 활용한 영화만들기 강좌가 펼쳐지기도 했다. (글, 사진/정복엽)



침체된 원도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문을 연 용두산 소극장

■ 문의/나다문화사업단(242-9402, www.nadart.co.kr)

아마추어 바이올린 연주자들의 모임 부산 초짜 바이올린



역사상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손꼽히는 작곡가 파가니니,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리는 파가니니는 바이올린 한 대로 오케스트라 소리를 모방했다고 전해진다. 현악기 중 가장 높은 소리와 가장 넓은 음역을 자랑하는 바이올린은 피아노와 더불어 가장 사랑받는 악기이지만, 의외로 배우기가 까다로운 악기이다. ‘부산 초짜 바이올린’은 이런 바이올린의 매력에 푹 빠져 직접 바이올린 배우기에 나선 아마추어 바이올린 연주자들의 모임이다.

95년만에 부산에 최고 한파가 몰아친 지난 1월 16일 오후, 해운대 한 음악학원에 들어서자 다소 서툰듯한 바이올린 선율이 흘러나온다. 매주 일요일은 ‘부산 초짜 바이올린’ 정기모임이 있는 날,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일찍 도착한 회원들이 저마다 연습에 한창이다. 9대의 바이올린이 빛어내는 불협화음 속에 열정과 진지함이 묻어나온다.

지난 2006년 결성된 ‘부산 초짜 바이올린’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중인 ‘초짜 바이올린’의 부산모임이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슬비 씨가 바이올린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이올린을 가르치면서 시작된 ‘초짜 바이올린’은 말 그대로 활 한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초짜’들이 서툰 실력이나마 직접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즐거움을 공유하는 아마추어 연주단체이다.



'부산 초짜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의 매력에 푹 빠져 직접 바이올린 배우기에 나선 아마추어 바이올린 연주자들의 모임이다.



지난해 5월, 서울 한강에 마련된 수상무대 '플로팅 스테이지' 공연을 통해 첫 데뷔무대를 가진 '부산 초짜 바이올린'.

현재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모두 10명, 총무를 맡고 있는 손용호 씨를 비롯해 박수진, 이현철, 김제환, 안성준, 최혜령, 김현주, 전상희, 양민아, 박정선 씨가 매주 일요일 바이올리니스트 박미연 씨의 지도로 레슨을 겸한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초짜 바이올린'이 매년 여는 정기연주회와 음악캠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는 회원들은 지난해 5월, 서울 한강에 마련된 수상무대 '플로팅 스테이지' 공연을 통해 첫 데뷔무대를 가졌다. 이날 '초짜 바이올린' 회원 50여명과 한 무대에 선 '부산 초짜 바이올린' 회원들은 클래식명곡에서부터 동요, 가요, 애니메이션 주제곡 등 다양한 곡을 연주,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중학교 시절 우연히 듣게된 바네사 메이의 연주에 반해 바이올린의 매력을 알게 되었다는 총무 손용호 씨. 군 복무시절 인터넷을 통해 '부산 초짜 바이올린'을 알게 되었다는 그는 군 제대 후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는 '부산 초짜 바이올린'이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바이올린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싶다는 그는 언젠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며 세계일주를 하고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 역시 인터넷을 통해 '부산 초짜 바이올린'과 인연을 맺은 박수진 씨. '고가의 취미'라는 사람들의 잘못된 선입견을 바꾸고 싶다는 그는 바이올린을 만나면서 인생의 새로운 활력소를 얻게 되었다. 결코 배우기가 만만치 않지만 그런 만큼 손끝에서 한음 한음 만들어질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한다.

올해 1월초 가입한 신입회원 김현주 씨는 학원에서 바이올린을 배우다가 '부산 초짜 바이올린'과 만났다. 무엇보다 주말에

모임이 있어 평일에 시간내기가 힘든 자신과 같은 직장인들이 활동하기에 좋다는 그는 사람들과 어울려 연습할 수 있어 레슨 시간이 항상 즐겁다. 직장인 최혜령 씨 역시 동호회 모임이 평일이 아닌 주말에 열려 반갑다. 우연히 길거리를 지나다가 만난 바이올린 연주자의 '사랑비' 연주에 그만 푹 빠져버렸다는 그는 능숙하게 연주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연습에 열중한다.

바이올린 전공자였던 동생의 바이올린이 눈에 띄어 바이올린을 시작했다는 이현철 씨.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피아노, 플루트에 비해 바이올린 연주가 즐겁기만 하다. 얼마전 마산으로 이사가면서 연습이 있는 날이면 3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온다는 그는 서로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고 함께 즐기는 동호회 활동을 포기할 수 없어 장시간 운전을 마다하지 않는다. 회원 안성준 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연습벌레이다. 지금도 매일 두시간씩 연습한다는 그는 '어떻게 하면 연주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안고 매일 활을 잡는다.

"바이올린을 향한 그들의 열정을 대하다보면 전문연주자로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박미연 씨. '부산 초짜 바이올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박미연 씨는 매주 주말마다 시간내기가 힘든 상황에서도 회원들의 열정에 감동, 악기를 챙겨 들고 연습실로 향한다. '부산 초짜 바이올린'은 올해부터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선무대 등 그동안 같고 닮은 실력을 공연을 통해 선보일 계획이다.(글, 사진/정복엽)

■ 문의 초짜 바이올린(cafe.daum.net/violinelementary)

성균관 스캔들 :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아름다운 조화

남인용 _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성균관 스캔들'은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드라마에 담았다.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여성임을 감추고 남동생의 호패로 성균관에 입학한 남장 여인의 수학 과정을 통해 남녀차별이나 당쟁과 같은 무거운 주제를 부드럽게 다루었던 '성균관 스캔들'은 우리 문화콘텐츠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작품이다. 옛날을 다루었지만 이야기 전개는 현대와 다르지 않아서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라는 어느 역사가의 말을 실감나게 했다. '성균관 스캔들'은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드라마에 담았다.

흔히 한류라고 하면 우리 고유의 감성을 현대적인 스토리와 영상 및 음악으로 담아낸 배용준의 '겨울연가'를 비롯한 여러 드라마들을 떠올린다. '겨울연가'의 촬영지인 남이섬은 나미나라공화국이라는 독특한 브랜드로 운영될 정도로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관광지로서 명성을 높이고 있다. 육지를 잇는 뱃길이 끊기는 밤에는 남이섬에서 숙박하고 다음날 아침에야 육지로 나올 수 있어 체류형 관광지로서도 매력적이다.

현대적인 감각의 '겨울연가'와 같은 방식의 한류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주장이 나올 때 즈음 '성균관 스캔들'이 등장했다. 옛것과 새것이 한데 어우러져 새로운 문화콘텐츠가 만들어졌다.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개발에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문화공간의 기여가 있었다. '성균관 스캔들'의 촬영지로 아름

다운 정경을 보여주었던 전주향교가 있는 전주한옥마을은 드라마의 성공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몇 년 전에 가본 한옥마을은 막 조성을 시작한 때여서 사람들이 오가는 정겨운 마을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노력으로 한옥마을은 일본 교토의 기온 거리를 연상시키는 단아한 골목으로 변모했고 '성균관 스캔들'의 촬영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소가 되었다. 근대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고 맨하탄과 같은 야경을 자랑하는 부산 역시 영화와 방송 드라마의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

현대문화와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나라는 많지 않다. 역사가 너무 짧아 옛것이라면 무조건 보존하는 나라도 있고, 역사가 너무 길어 옛것이라면 모르는 척 파괴하면서 현대적인 개발에 집착하는 나라도 있다. 세계적인 문화 강국은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고루 즐길 수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바로 그런 가능성이 풍부한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를 가진 전통문화의 보고이자 활력 있는 신개발국의 상징이다.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동시에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바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방문동기일 것이다. 전통을 무조건 고수하거나 현대적인 것을 무턱대고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 나람의 생명력은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조화가 드라마나 장소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KT & G에서 운영하는 '상상마당'에서 본 공연 '기억에 관한 오해 trace'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조화시키는 또 다른 사례로 주목할 만했다. '기억에 관한 오해 trace'는 동양화의 채색기법을 활용하는 수경 작가의 회화, 우리나라 1세대 재즈 뮤지션들의 회고담과 공연을 영화화한 '브라보 재즈 라이프', 국악인 정민아의 가야금 연주, 동양화와 영상미디어를 전공한 이종석 작가의 비디오 아트를 통합하여 공연했다. 이 공연 장면은 곱TV로도 생중계되어 문화콘텐츠 활용의 새로운 가능성 또한 보여주었다.

한국 저예산 뮤지컬 영화의 시작들

김희진 _ 영화감독

뮤지컬 영화, 음악이 영화의 주요 구성 요소로 사용되는 작품들을 일컫는다. 노래가 대사를 대신하고, 음악과 춤이 어우러지고, 영화의 편집은 음악의 구성에 따라간다. 현실적 이야기엔 환상적 상황을 묘사하고, 환상적 이야기엔 현실적 은유를 드러낸다. 음악가들의 삶을 다루기도 하고, 하나의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고, 한 음악가의 작품들을 재구성해 영화로 만들기도 한다. 음악으로 시작해서 음악으로 끝나는, 시각적 이미지보다 청각적 이미지가 더 기억에 남게 되는 영화들, 바로 뮤지컬 영화이다.

2006년 아일랜드 영화 <원스>는 뮤지컬 지형도에 새 유행을 만들어냈다. 그들 스스로 '모던 뮤지컬'이라 호칭했고, 최근 유행으로 '인디 뮤지컬'이라 부를 수 있는 이 뮤지컬 영화는 지난 영화의 역사 속 장르 영화의 형식적 특징으로 구분되던 뮤지컬 영화의 화려한 장식미와 환상적 이야기, 규모 있는 오케스트레이션과는 전혀 관계없는 작품으로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 영화의 성공은 영화에 등장했던 음악가의 음악 활동에도 전성기를 만들어줬고 소규모 음악 영화의 유행도 만들어냈다.

최근 우리 영화에도 이런 경향들의 작품들이 등장했다. 유상현 감독의 <어쿠스틱>, 김종관 감독의 <조금만 더 가까이>, 구혜선 감독의 <요술>이 극영화 형태라면, 백승화 감독의 <반드시 크게 들을 것>, 정흠문 감독의 <나는 나비>, 남무성 감독의 <브라보 재즈 라이프>는 다큐멘터리이다. 이 영화들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 저예산 방식이나 독립영화 제작으로 만들어졌다는 거다. 유니버스 스타일의 <어쿠스틱>과 <조금만 더 가까이>는 보다 젊은 작품들로 최근 인디 음악계에서 부각 중인 음악과 뮤지션들을 출연시키고 있어 더 시선을 끈다. 음반 한 장 없이 길거리 라이브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젊은 인디 음악인들에 대한 조명과 그들의 사랑, 시대적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는 이 두 작품은 <원스>처럼 음악이란 진실된 마음과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애정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술>은 클래식 음악을 다루고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이야기 구성을 가지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청춘들의 이야기란 점에선 같은 맥락에 놓인다.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 록 음악의 현재를 다룬 <반드시 크게 들을 것>은 록큰롤 정신을 강조하고, <나는 나비>는 윤도현 밴드의 미국 투어 과정을 통해 음악과 로드무비를 결합하고, <브라보 재즈 라이프>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한국 재즈 음악의 거성들에 대한 보고이다. 기록영화의 특성을 잘 살려 현장성과 실제 삶을 설득력 있게 보여줌으로서 음악과 삶의 연관성을 자연스럽게 녹여주고 있다.

우리영화에서 뮤지컬 장르는 쉽게 만들어지기 힘든 영화였다. 기술적 까다로움과 함께 서양 뮤지컬 영화에 익숙한 관객의 눈높이를 맞추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저예산으로 만들어지는 뮤지컬 영화들은 보다 중요한 출발점에서 시작하고 있어 미래를 밝게 해준다. 바로 음악이 가지는 친화력에서부터 현실 삶의 조화로운 연결을 통해 소통의 최소 방정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스>의 성공에서 용기를 얻은 바도 있겠지만 문화적 활력이 다양성으로 변모되어가는 점도 이런 변화에 동력이 되었다고 본다.

이런 우리영화의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 중 다른 하나는 다양한 영화제의 개최에서도 볼 수 있다. 특히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은 국내에 다양한 음악 영화들을 소개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고전음악에서부터 현대음악에 이르는 다양한 음악과 그 음악과 버무려진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다양한 형식들의 소개가 지금 우리의 저예산 뮤지컬 영화의 시작에 큰 자극을 주었다. 영화와 음악, 그리고 그 무언가 다른 양념이 계속 새로운 맛을 만드는 문화가 지금 발동하고 있는 저예산 뮤지컬 영화의 활기로부터 다양한 방향으로 펼쳐지길 기대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설맞이 국악 한마당

2월 2일 수요일 오후 5:00 **중극장**

한해의 평안과 무병장수, 풍요를 기원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설날맞이 국악한마당.

관객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비나리를 시작으로 궁중 정재(呈才)의 반주음악으로 연주된 보허자, 부산시립무용단의 승무, 살풀이춤, 흥겨운 민요한마당으로 신명난 무대를 열어준다.

프로그램

- 문굿과 비나리
- 관악합주/보허자
- 동래학춤
- 현악합주/달무리
- 승무, 살풀이춤
- 흥겨운 민요/널뛰기, 성주풀이, 동백타령, 신사철가 판굿
- 집박/유경조
- 협연/부산버سم새예술단(단장/최정민), 유금선 외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회원
- 춤/오숙례, 김주연
- 민요/박성희, 정선희, 방지혜, 백귀영, 김혜원, 유현주
- **관람료** 무료(선착순)
-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재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귀향음악회

2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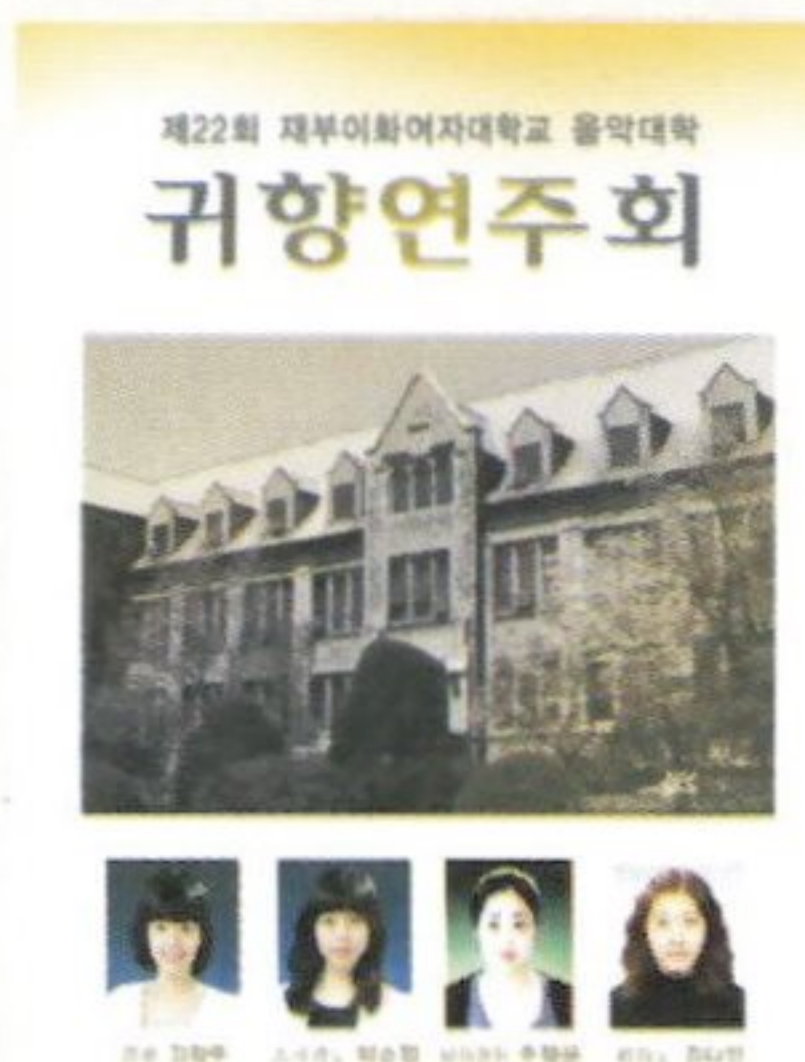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재학중인 부산 출신음악도들이 그동안의 음악수업을 되돌아보며 마련하는 귀향음악회. 성악, 기악, 국악 등 다양한 장르 무대를 펼친다.

프로그램

- 슈베르트/방랑자, 연가곡 백조의 노래 중 'Der Atlas'
- 바흐/파르티타 4번
- 베토벤/첼로 소타나 등 수곡
- 연주/송일도, 김종엽, 김유빈, 이연하, 이예린, 김은정, 하예라, 김은유
- **관람료** 초대
- **문의** 정미령(018-3882-1895)

제 22회 재부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귀향연주회

2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에 재학중인 부산 출신 음악도들이 그동안의 음악수업을 되돌아보며 들려주는 귀향연주회.

프로그램

고다르/3개의 소품 모

음곡

- 김동진/신 아리랑
- R. 슈트라우스/Nichts(無)
- 베르디/오페라 리골레토 중 '사랑스런 그 이름'
- 모차르트/바이올린 협주곡 제 4번 라장조
- 슈만/판타지 다장조 작품 17 1악장
- F. 보네/카르멘 판타지 등 수곡
- 연주/플루트 감경주, 소프라노 박소정, 바이올린 주정윤, 피아노 김다인
- **관람료** 초대
- **문의** 서혜향(018-566-0406)

부산 메트로폴리탄 팝스 오케스트라 협주곡의 밤

2월 11일 금요일 오후 7:00 **중극장**

MBC 산하단체인 사단법인 문화도시부산네트워킹가 2009년 7월에 창단한 '부산 메트로폴리탄 팝스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협주곡의 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창단된 부산 메트로폴리탄 팝스 오케스트라는 기존의 오케스트라가 정통적인 클래식만을 연주하는 것과는 달리 클래식을 넘어서 영화음악, 재즈, 팝, 애니메이션 음악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만들어서 대중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품격 있는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 지휘/김병수
- **관람료** 초대
- **문의** 강순보(010-7774-8179)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 18 짚은

2월 11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한국 모던 록의 뉴웨이브를 열어온 2인조 인디 밴드 '짚은(Zitten)' 부산 무대.

2005년 성용욱, 윤형로로 결성된 '짚은'은 2008년 동명타이틀로 데뷔 앨범을 발

표. 1집의 성공과 함께 MBC 드라마 '트리플'의 음악감독 등으로, 국내 유수의 페스티벌의 무대에 서면서 대중적인 공감을 얻었다.

빛깔이 강하다는 의미를 지닌 순 우리말을 밴드명으로 정한 '짚은'은 이름만으로도 이들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개성이 강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을 자랑한다. 짚은의 음반은 대중음악 웹진 weiv에서 "우직할 정도로 정석적인 모던 록을 들려주는 짚은의 데뷔작은 깔끔하고 단정하며 풍요롭다. 싹새래하기보다는 달콤하며 커다란 울림을 안기기보다는 물방울이 떨어지듯 작고 섬세하게 파동을 친다. 멋스러운 모던 록 음반"이라는 평을 들으며 화제를 모았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2011 제 6회 부산국제음악제

2월 13일-20일 월요일-금요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7:00 **대극장 중극장, 파라다이스호텔, 해운대문화회관**



2005년 민간주도로 창설된 부산의 대표적인 국제음악제 부산국제음악제 2011년 무대.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2010년 안식년을 갖고 2011년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 부산국제음악제는 부산을 넘어 아시아로, 세계로 나아가는 동서양의 화합과 소통의 무대를 열어준다.

올해는 음악감독 백혜선을 비롯해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악기 연주자 중 세계 정상급의 국내외 유명연주자 20명과 부산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연주 단체, 연주자 등 40 여명을 초청, 실내악의 향연과 뮤직아카데미를 연다.

일정

▶ 2월 13일 오후 7:00 파라다이스호텔 - 전야제

피아니스트 백혜선, 신수정, 바이올리니스트 루시 로베르, 고이치로 하라다, 양고운, 김동욱, 첼리스트 정명화, 데이빗 게이버, 이강호, 바리톤 박흥우 등 10명의 초청연주자들이 갈라 형식으로 연주한다.

▶ 2월 14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오프닝콘서트



백혜선 정명화 데이빗 게이버

음악으로 만나는 동서양의 화합과 소통을 주제로 한국, 중국, 대만, 러시아, 캐나다, 미국, 일본 연주자들이 실내악의 향연을 펼친다.

프로그램

포퍼/피아노와 3대의 첼로를 위한 레퀴엠(연주/ 백혜선, 정명화, 데이빗 게이버, 추위빙)

쇼스타코비치/피아노3중주(연주/장형준, 고이치로 하라다, 이강호)

차이코프스키/현악 6중주 '플로렌스의 회상'(연주/루시 로베르, 김동욱, 신연향, 흥웨이황, 정명화, 데이빗 게이버)

▶ 2월 15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전곡연주회>

슈베르트 가곡연주의 독보적인 존재 바리톤 박흥우와 한국 피아노계의 대모 피아니스트 신수정이 들려주는 겨울나그네 전곡 연주회.

슈베르트의 3대 연가곡 중 하나인 '겨울나그네'는 빌헬름 뮐러 시에 슈베르트가 작곡한 24곡으로 한겨울 연인과의 이별과 방랑, 그리고 죽음



에 대한 내용을 노래한다.

▶ 2월 16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세르게이 바바얀 피아노독주회



뉴욕 타임즈로부터 비범한 테크닉과 완벽한 컨트롤 속에 투명한 소리로 채색된 피아니즘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시대의 거장 세르게이 바바얀 피아노 독주회.

세르게이 바바얀은 퀴엘리자베스 콩쿠르, 부조니 콩쿠르, 로베르트 카사도시 국제 피아노 콩쿠르, 팜비치 국제 피아노 콩쿠르, 하마마츠 국제 피아노 콩쿠르, 스코티쉬 국제 피아노 콩쿠르 등에서 우승, 세계 무대에서 각광받고 있다.

프로그램

V. Ryabov(b.1950)/판타지아 다단조 작품 21 in memory of Maria Yudina(Introduzione, Sonata I, Marcia Funebre, Sonata II, Capriccio)

A. 스크리아빈/프렐류드 다장조 작품 11, 가단조 작품 11, 마단조 작품 11

쇼팽/녹턴 내림마장조 작품 55 제2번 등 수곡

▶ 2월 17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라이징스타 송유진 피아노독주회



부산출신으로서 16세 때 도미하여 각종 콩쿠르 입상과 빼어난 음악성으로 차세대 피아니스트로 주목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송유진의 홈카밍 연주회.

송유진은 미국 New England Conservatory Concerto 콩쿠르 1위, 미국 New England 피아노협회 콩쿠르 1위, Rus-

sell C. Wonderlic 피아노 콩쿠르 1위, 이태리 A.M.A. Calabria 국제 피아노 콩쿠르 2위(1위 없는 2위) 등 각종 콩쿠르에 입상하며 연주경험과 기량을 쌓아왔다.

프로그램

슈만/아라베스크 작품 18

베토벤/소나타 '발트슈타인'

바인/소나타

스트라우스-쉴츠에블러/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 주제에 의한 연주회용 아라베스크

▶ 2월 18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국제음악제 초청연주자와 TIMF양상블 협연



TIMF양상블은 통영국제음악제의 홍보대사로 2001년 창단,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작품의 음악성과 한국 연주자들의 우수한 연주력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TIMF양상블과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루시 로베르, 양고운, 김동욱, 조성진이 함께하는 무대.

2009년 제 7회 하마마츠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한 천재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2005년 만 11세의 나이로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의 금호영재콘서트를 통해 데뷔, 국내에서 수차례의 독주회, 마에스트로 주빈메타, 정명훈, 금난새와의 협연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차세대 피아니스트로 각광받고 있다.

프로그램

비발디/4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협연/김남윤, 루시 로베르, 양고운, 김동욱)
모차르트/피아노협주곡 제20번 라단조(협연/조성진)

말러/슈베르트 - 죽음과 소녀

· 지휘/추위빙(베이징 중앙음악원 교수)

▶ 2월 20일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폐막연주회(실내악공연)

부산국제음악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피날레 콘서트로 음악감독 백혜선을 비롯해 서정적인 표현, 아름다운 음색으로 청중들과 비평가의 사랑



을 받고 있는 맨하탄음대 교수 루시 로베로, 대만 출신의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신연 황, 맨하탄음대 부총장 데이빗 게이버 등이 피날레 무대를 열어준다.

프로그램

슈베르트/피아노 4중주 '아다지오 & 론도 콘체르탄테'(연주/백혜선, 양고운, 신연황, 추위빙)

도흐나니/현악 3중주(연주/양고운, 김가영, 추위빙)
브람스/피아노4중주 사단조 작품 25(연주/백혜선, 루시 로베르, 신연황, 데이빗 게이버)

■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디너 콘서트 후원금 200,000원, 라이징스타 송유진 독주회 균일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

■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 (740-5833, www.busanarts.com)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공연 악기가족 이야기

2월 14일(월)-15일(화), 17일(목)-18일(금)
오전 10:30, 오후 3:30 **소극장**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악기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첫 선을 보인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공연 악기가족이야기 2011년 무대.

악기 가족을 소개하는 동화구연과 연주, 악기 체험 등을 통해 오케스트라 악기 종류와 기능을 쉽게 설명한다.

▶ 2월 14일(월)-15일(화) 10:30, 15:30
뿌우 뿌우, 나팔 가족 이야기
동화 '서로 달라도 함께해야 아름다워요'

▶ 2월 17일(목)- 18일(금) 10:30, 15:30
쿵쿵 탕탕, 타악기 가족 이야기

동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요'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앙상블
■ **관람료** 균일 1,000원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Piano Ensemble Concert

2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배수정 교수와 21명의 제자들이 함께 하는 Piano Ensemble Concert.

비제의 'Carmen'을 Mack Wilberg가 피아노 듀오로 편곡한 'Carmen Fantasy', 슈베르트의 'Die Forelle', 라비냐의 'Galop-Marche' 등 다양한 듀오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브람스/헝가리안 댄스 I No.1,2,4,5
라비냐/독일원형춤슈베르트/송어
피아졸라/리베르탱고

카차투리안/칼의 춤 등 수곡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양금화(010-5773-0325)

김정화 피아노 독주회

2월 21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숙명여자대학교, The Boston Conservatory를 졸업하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정화 독주회.

'정교하고 화려한 기교로 오케스트라와 빈

틈없는 교감을 나누는 연주자'로 호평받고 있는 김정화는 Steinway & Sons 초청 독주회(Young Artist Series), 미국 보스턴 연방정부은행 초청 독주회, Royal Academy Professional Artist Series 초청 독주회, 2002 월드컵 성공개최 1주년 기념음악회 <영광의 그날> 솔리스트로 선정되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 무대를 가진 바 있다.

프로그램

하이든/소나타 in A-flat Major, Hob.XVI/46

부조니/사콘느 라단조
드뷔시/Preludes from Book II (1913)
슈만/소나타 사단조 작품 22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627-2572)

레이디스 필 앙상블 정기연주회 실내악과 교향악 사이

2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소속의 여성 연주자들로 구성된 레이디스 필 앙상블이 들려주는 정기연주회.

탄탄한 연주력과 품격 있는 음악성을 바탕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레이디스 필 앙상블은 2006년 창단 이후 정기 연주회 및 특별연주회를 통해 섬세하고 부드러운 실내악 특유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고 있으며, 2010년 일본 아크로스-후쿠오카 초청 공연으로 현지 관객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기도 했다.

프로그램

존 루터/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제22번
요한 크리스찬 바흐/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펠릭스 멘델스존 /8중주 Eb장조 작품 20

· 바이올린/김동욱 · 첼로/양육진
· 해설/이동신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레이디스필앙상블(010-8597-8483)

부산CBS 음악FM(102.1Mhz)

개국 축하 음악회 NEW START

2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인순이 김동규

기존 AM방송과 표준 FM에 이어 음악FM을 개국하는 부산CBS 개국 축하음악회.

2월 21일 개국을 축하하는 이번 무대는 50인 조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와 가스펠 팝의 가수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버라이어티 형식의 음악회로 마련된다.

부산CBS 음악FM은 가요, 팝, 클래식, 영화음악, 재즈, CCM까지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프리미엄 채널로 부산시민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 출연/영화배우 오미희, 바리톤 김동규, 테너 안민, 가스펠 송정미, 인순이
- 연주/부산YMCA오케스트라
- 관람료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
- 문의 부산CBS(636-0050)

2011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1 웰빙콘서트 시리즈 클래식이 보인다! '영화 속의 클래식' 불멸의 연인과 베토벤 음악

2월 24일 목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이동신 진희숙

여성과 주부들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오전시간에 여유로운 클래식 선율을 들려주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웰빙콘서트 시

리즈 '11시에 만나요' 클래식이 보인다 I.

2011년은 영화와 미술 등 시각 장르와의 접목을 도모하여 클래식 음악을 보다 가깝고도 즐겁게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시리즈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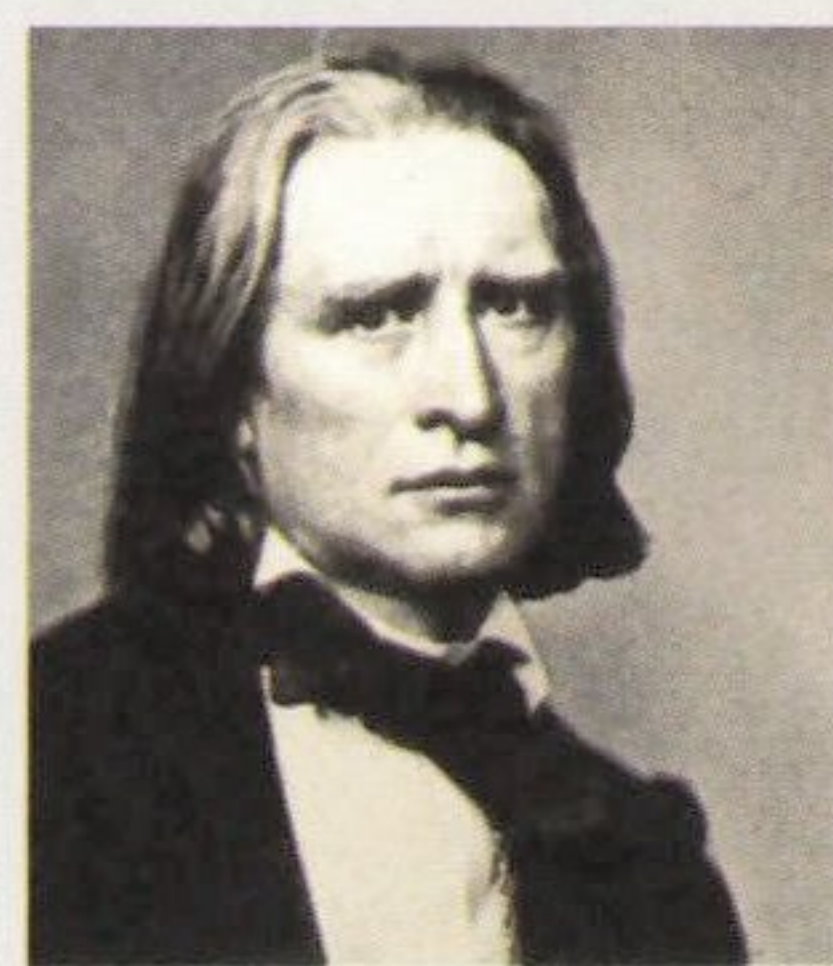
2011년 첫 무대는 '클래식 오딧세이' '나비아 청산가자'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 '보면서 즐기는 클래식 감상실' '모나리자, 모차르트를 만나다' 등 다양한 저서를 발표한 음악칼럼니스트 진희숙과 함께 영화 '불멸의 연인' 속 클래식 음악을 영상과 함께 만난다.

프로그램

-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 8번 '비창' 작품 13 중 제 2악장
- 베토벤/교향곡 제 3번 내림마장조 '영웅' 작품 55 중 제 1악장
- 베토벤/교향곡 제 5번 다단조 '운명' 작품 67 중 제 1악장
-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 5번 내림마장조 '황제' 작품 73 중 제 2, 3악장
- 지휘/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피아노/이지선
- 해설/진희숙(서울시립교향악단 월간지 SPO 편집장)
- 관람료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한국리스트협회 부산지부 창단연주회

2월 25일 금요일 오후 7:00 중극장



리스트

2011년 헝가리 태생의 위대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프란츠 리스트 탄생 200주년을 맞아 리스트의 작품을 연구하고 소개하기 위해 새롭게 결성된 한국리스트협회의 부산지부 창단 축하연주회.

한국리스트협회는 1999년 리스트의 작품을 소개하고 음악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16명의 젊은 피아니스트들로 창단, 매년 두 차례의 정

기연주회를 통해 리스트의 독창적인 음악세계를 알려왔다.

한국리스트협회 부산지부 창단연주회에서는 부산지부 회원 이명숙, 박유미, 김현주, 서윤진, 박현정 등이 리스트 피아노곡과 가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리스트/메피스토 왈츠, 전설 중 '물위를 걷는 성 프란체스크', 순례연보 중 '샘가에서', 베네치아와 나폴리 S.162, 3개의 녹턴 중 사랑의 꿈 S.541 NO.3, 순례연보 중 '에스테장의 분수 S.163', 장송, 초절기교 연습곡 중 '에로이카' '사냥' 등 수곡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김정미(850-3189)

극단 빛누리 발레와 함께하는 환타지 가족뮤지컬 인어공주

2월 26일-27일 토요일 오후 2:00, 4:00,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대극장



명작동화 '인어공주'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발레가 함께하는 가족 뮤지컬 '인어공주' 부산 무대.

제7회 김천전국가족연극제 금상 수상으로 화제를 모은 이번 무대는 결 고운 음악적 선율과 노래, 독특한 연출기법의 발레 연기, 바다 속 캐릭터들의 톡톡 튀는 재미와 기발한 캐릭터로 원작이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극적인 판타스틱 무대로 재창조,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다.

- 원작/안데르센 · 극본/허길자
- 연출/홍민우 · 음악/왕준기
- 안무/정은하, 장여진
- 출연/조남미, 조민성, 최지웅, 우완규, 장성영, 안은진, 황용인, 고권오, 김상욱, 김인용, 김민주
- 특별출연/한은나래, 김윤경, 윤초아, 최승희, 김주희, 박근아
- 관람료 균일 25,000원 (예약 20%할인, 20인 이상 25% 할인)
- 문의 극단빛누리(02-742-9901)

인코리안유스오케스트라 제 8회 정기연주회

2월 26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청소년들의 학문과 인성, 음악을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균형감있게 성장시킨다는 취지로 창단한 민간 청소년교향악단 인코리안 유스오케스트라의 제 8회 정기연주회.

1998년 '부산리틀스트링스오케스트라'에서 출발한 '인코리안유스오케스트라'는 2008년 지금의 이름으로 재 창단,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에그몬트 서곡

베토벤/피아노협주곡 1번

쇼스타코비치/교향곡 제 5번 등 수곡

· 지휘/김용문

· 협연/국악 사물놀이패, 박여진(피아노, 진해고등학교 1학년)

■ **관람료** 초대

■ **문의** 장은정(010-4842-6688)

제 1회 알로이시오 앙상블 정기연주회

2월 27일 일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과 대구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알로이시오 앙상블은 환자재유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해 음악으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왔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현을 위한 세레나데 다장조 작품 48

성가/주여 임하소서

비발디/사계 중 여름 등 수곡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박종영(010-8425-5125)

제 5회 향기오카리나 앙상블 페스티벌 작은 거위들의 합창

2월 27일 일요일 오후 6:00 **소극장**



한국오카리나 교육협회 부산지회 회원들로 구성된 오카리나 앙상블이 함께 마련하는 오카리나 축제 '작은 거위들의 합창'.

프로그램

웅달샘, 라라라, 도나도나, Yesterday, 봄이오는 길, 바람개비 등 수곡

· 연주/향기오카리나앙상블, 가야오카리나앙상블, 사랑오카리나앙상블, 가온오카리나앙상블, 알토란오카리나앙상블, 시크릿 오카리나앙상블 등

■ **관람료** 초대

■ **문의** 이정미(010-8544-258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 II - Yesterday 추가열 콘서트

3월 4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실력있는 젊은 뮤지션들과의 만남의 장으로 폭 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가 7080세대들을 위해 2011년 새롭게 펼쳐는 Part II 무대

'Yesterday.

Part II 무대 'Yesterday'의 첫 주인공으로 3월 음유시인, 감성뮤지션으로 사랑받고 있는 가수 추가열과 추억 여행을 떠난다.

심금을 울리는 미성의 목소리로 사랑을 받고

있는 추가열은 2002년 1집 '나 같은건 없는 건가요'를 발매, 북유럽풍의 서정적인 포크음악과 퓨전재즈 스타일을 지향하는 자연의 소리로 사랑받아 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나 같은건 없는 건가요', '행복해요' 등 여러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의 포크 음악을 들려준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7)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가브랜드공연 국립창극단 청(淸)

3월 5일 토요일 오후 4:00 **대극장**



한국 음악극의 해외 진출을 위해 제작된 국가 브랜드 공연 국립창극단의 '청(淸)' 부산무대.

2006년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초연된 이후 국악 창극 중 최다 관객 7만 여명을 불러 모은 화제작 '청(淸)'은 판소리 다섯바탕 중 탄탄한 구성력과 그 문학적인 가치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심청가'를 음악극으로 만든 작품이다. 안숙선 명창을 비롯한 국가 대표급 소리꾼들의 농익은 소리, 국립창극단 기악부, 국립국악관현악단 40인조 오케스트라가 펼치는 풍부한 선율의 음악은 물론 16m 회전무대가 연출하는 인당수 장면 등이 어우러져 완성도를 높였다.

· 예술감독/유영대 · 연출/김홍승

· 작창/안숙선 · 지휘/이용탁

· 출연/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외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8)

MUSIC

국립부산국악원 설날 특별공연 얼췌 우리가락 신명나는 신묘년

2월 3일 목요일 오후 4: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이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신명나는 우리 소리와 춤으로 마련한 특별공연.

프로그램

판굿과 비나리, 진주교방굿거리춤과 동래한량춤, 판소리 '수궁가', 태평무, 가야금중주 '아리랑을 위한 현의 노래', 삼고무 등

- 관람료 균일 8,000원(한복을 입은 관객, 3대 이상 가족 관객, 토끼띠 관객은 50% 할인)
-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4: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5일 프로그램

가인전목단, 단가모음, 동래향제줄풍류 중 '하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산조춤, 동부민요, 가야금중주 '울산아가씨', 삼고무 등

▶12일 프로그램

평조희상 중 '상령산', 승전무 중 '북춤', 평시조 '동짓달', 동래학춤, 경기민요, 실내악 '판놀음(이준호 곡)', 부채춤, 사물놀이

▶19일 프로그램

장구춤, 25현 가야금병창 '가야송', 단소독주 '청성곡', 실내악 '거리(이경섭 곡)', 진주교방 굿거리춤과 동래한량무, 모듬북을 위한 난타 등

▶26일 프로그램

정재검무, 해금산조, 통영교방진춤, 실내악 '축제(이준호 곡)', 실내악 '고구려의 혼(홍동기 곡)', 한반도 아리랑, 풍물놀이

- 관람료 1층 8,000원 · 2층 6,000원
-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월요음악회

매주 월요일 오후 8:00 가톨릭센터 소극장

▶7일 김상월 라이브콘서트



1970년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으나 결혼과 함께 활동을 중단했던 '그리워 그리워'의 가수 김상월의 라이브 콘서트.

· 해설/장진규

▶21일 소프라노 황윤정 리사이틀

이태리 Leoncavallo Accademia 최고연주자과정, E. A. P. M. Milano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이태리 Taurianova 국제콩쿠르, Leoncavallo 국제콩쿠르, Verdi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는 소프라노 황윤정 리사이틀.

- 피아노/정금련
- 해설/장진규

▶28일 브람스와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트리오

바이올리니스트 방효준, 첼리스트 하유나, 피아니스트 김진희가 들려주는 앙상블 무대.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피아노 트리오 제 2번 작품 67
브람스/피아노 트리오 제 3번 다단조 작품 101

- 해설/장진규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최보빈(010-9880-8447, www.bccenter.or.kr)

제 27회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백주영 바이올린 독주회

2월 8일 화요일 오후 7:00 고은사진미술관



현존하는 최고의 작곡가이자 마에스트로인 펜데레츠키가 '안네 소피 무터의 뒤를 이을 새로운 바이올린계의 여제'라고 극찬한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독주회.

미국 커티스음대와 줄리어드음대 대학원, 맨하탄음대와 프랑스 파리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백주영은 2005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최연소 교수로 부임, 화제가 되기도 했다.

프로그램

베토벤/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라장조 작품 12

비탈리/샤콘느

뿔랑/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등

· 피아노/조재혁(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관람료 사전예약(주최측 문의)
- 문의 고은사진미술관(010-4781-5959)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2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9일 팝페라 듀엣 휴[HUE:]의 어쿠스틱 콘서트



지난 2005년 성악가 류무룡, 김지현으로 결성된 한국 최초의 혼성 팝페라 듀엣 '휴[HUE:]'가 감미로운 목소리로 크로스오버 음악의 진수를 들려준다.

· 찬조출연/테너 김성민

▶16일 전경화&전명화 듀오 리사이틀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전경화, 첼리스트 전명화가 함께하는 듀오무대.

프로그램

모차르트/환타지 라단조 KV 397

슈만/빈 사육제의 어릿광대 작품 26
멘델스존/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작품 58

▶ 23일 한연회 연주회 '환타지의 밤'

부산대학교 한명희 교수와 그의 제자들로 결성된 한연회가 들려주는 피아노 환타지의 밤.

· 연주/김지현, 김은미, 김진희, 박정은, 배수영, 김영지, 한명희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에듀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 18회 정기연주회

2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99년 부산교육대학교 故 박종원 교수를 추축으로 창단된 교사오케스트라 에듀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마술피리 서곡

모차르트/교향곡 제 41번

베버/안단테와 헝가리풍의 론도

· 지휘/김지혜

· 협연/윤태준(바순,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 **관람료** 초대

▪ **문의** 박진홍(010-4563-7966)

테너 김문현 제자음악회

2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소프라노 박보희, 테너 김홍섭, 이주영, 이태흠, 최천작 등 성악전공자들이 오페라 마술피리, 리골레토, 라조콘다, 진주조개잡이, 아를르의 여인 등 주요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관람료** 초대

▪ **문의** 김홍섭(010-2559-1050)

소양보육원과 함께하는 김지윤의 발레타인 콘서트

2월 12일 토요일 오후 3:00 글로빌아트홀



한국예술종합학교 최고연주자과정을 이수하고 현재 화음챔버 오케스트라 단원, MQ 콰르텟 리더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윤이 소양보육원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하

는 사랑과 희망의 콘서트.

프로그램

크라이슬러/사랑의 기쁨

라흐마니노프/보칼리제 작품 34 제 14번

비에냐프스키/파우스트 환타지 작품 20 등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Lieto Trio와 함께하는 클래식&뉴에이지 of Night

2월 12일 토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예고 동문인 피아니스트 김문주, 바이올리니스트 김혜린, 첼리스트 정고른으로 구성된 Lieto Trio와 함께하는 클래식&뉴에이지 무대.

대중들의 귀에 익숙한 클래식 명곡과 누구나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뉴에이지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프로그램

멘델스존/피아노 트리오 제 1번 라단조 작품 49

피아졸라/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어쿠스틱 카페/라스트 카니발

수잔느 치아니/Turning 등 수곡

▪ **관람료** 균일 3,000원

▪ **문의** Lieto trio (701-0465, 010-4847-0465)

IL CONCERTO 505 연주회

2월 12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소프라노 이영은과 그의 연구실 505호에서 음악공부를 하고 있는 소프라노 김해리, 김효진, 김은주, 박지혜, 박양재, 변진영, 김선화가 함께하는 '505 성악콘서트'

오페라 라보엠, 몽유병의 여인 등 다수 오페라 아리아와 산유화, 무곡, 뱃노래 등 우리가곡을 들려준다.

· 특별출연/바리톤 김상언

▪ **관람료** 초대

▪ **문의** 이영은(010-9325-3959)

2011 부산국제음악제 전야제 후원자와 함께하는 디너콘서트

2월 13일 일요일 오후 7:00

파라다이스호텔 대연회장

세계 정상의 국내외 유명연주자들이 참여하는 2011 부산국제음악제 전야제 무대.

부산국제음악제에 참가하는 연주자들의 앙상블 무대가 음악감독 백혜선의 해설과 함께 펼쳐진다.

· 피아노/백혜선, 신수정, 루시 로베르, 고이치로 하라다, 양고운, 김동운

· 비올라/신연 황, 홍웨이 황, 김가영

· 첼로/정명화, 데이빗 게이버, 이강호

· 바리톤/박흥우

▪ **관람료** 후원금액 200,000원(식사비 포함)

▪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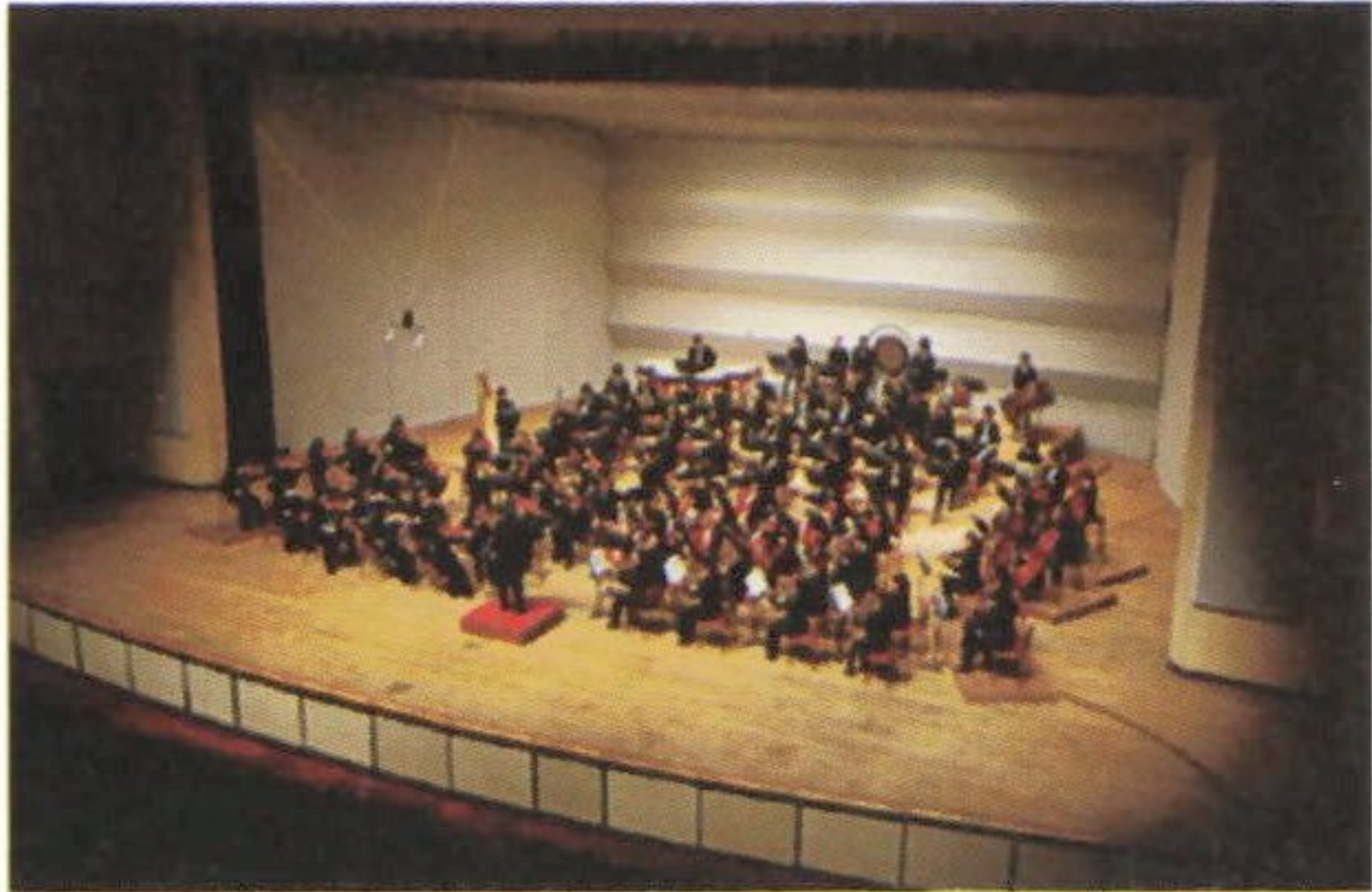
제 54회 한낮의 유U; 콘서트 콜렉션 로미오와 줄리엣

2월 15일 화요일 오전 11:00

부산롯데호텔 아트홀

프로코피에프, 차이코프스키, 베를리오즈 등 클래식 명곡에서부터 뮤지컬, 영화음악까지 '로미오와 줄리엣'을 소재로 한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주는 한낮의 유U; 콘서트 54번째 무대.

프로그램



프로코피에프/발레음악 '기사들의 춤'
베를리오즈/극적 교향곡 작품 17
차이코프스키/환상서곡 '로미오와 줄리엣' 등 수곡
· 출연/소프라노 강민성, 메조소프라노 박소연,
 바리톤 지현식, 뮤지컬배우 박소연
· 지휘/박성완 · 사회/박은주
· 연주/가마뫼오케스트라
▪ **관람료** 균일 15,000원
▪ **문의** 국제신문(500-5222)

동래초등학교 옥샘하모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동래초등학교 재학생들로 결성된 옥샘하모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시벨리우스 핀란드아,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
곡, 비행기 변주곡 등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지휘/박진홍 · 협연/이주미(동래초등 6년)
▪ **관람료** 초대
▪ **문의** 박진홍(010-4563-7966)

7인 음악회

2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예술고등학교
동문으로, 음악을 통해
학창시절 추억을 되돌
아보며 우정을 확인하
는 무대.
프로그램
커티스/나를 잊지 말
아요

바흐-부조니/사콘느 라단조 BWV 1004
최환용/새장의 문을 열자
피아졸라/그랜드탱고 등 수곡
· 출연/박지혜(피아노), 조형준(첼로), 한기주(테
너), 송가연(플루트), 박혜림(피아노), 최
환용(작곡)
▪ **관람료** 초대
▪ **문의** 박혜림(010-3841-6144)

2011 부산국제음악제 교수와 학생이 함께하는 음악회

2월 19일 토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세계 정상의 국내외 유명 연주자들이 참여하
는 2011 부산국제음악제의 뮤직아카데미 참가학
생들과 교수들이 함께하는 앙상블의 무대.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2011 겨울음악페스티벌

2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피아노를 지도하는 전공교사들의 재교육, 음악
프로그램 연구와 보급에 힘쓰고 있는 한국피아
노지도자협회가 빈필하모니의 신년음악회 레퍼
토리로 사랑받고 있는 스트라우스의 왈츠곡을 비
롯해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
준다.
· 해설/석경래(한국피아노지도자협회 연구소장),
박현정(아나운서)

· 특별출연/옥준(오카리나), 고충진(클래식기타)
▪ **관람료** 초대
▪ **문의** 박선연(010-4509-6846)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제 38회 행복음악회

2월 27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글로벌아트홀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
는 부산시민과 지역민을 위한 행복음악회.
▪ **관람료** 자율(이웃돕기 성금)
▪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PLAY

2010 점프 부산

9월 1일(목)-오프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
IBK 점프부산전용극장(해운대 그랜드호텔 B1)

리셉션·식사·각종모임 예약 80석
MOZART
영빈관 맞은편 1층
모짜르트 레스토랑
예약문의. 051) 622-1456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가 혼합된 난버벌 퍼포먼스 극. 부산전용극장 공연 1,000회를 돌파하며 그 재미를 이어가고 있다.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IBK점프부산전용극장(744-4885)

연극 마술가게

1월 5일(수)-2월 2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2/2일~4일, 월요일 공연없음)
사랑과 혁명 소극장



최고급 의상실에서 맛닥뜨린 두 도둑의 대화를 통해 오늘날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비판하는 사회풍자극. 1992년 초연 이후 지금까지 60만명 관객을 동원한 화제작이다.

- 작/이상범 · 연출/이기석
- 출연/이기석, 김종훈, 김종두, 서민재, 김진아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 문의 SM기획(1600-1602)

연극 우동 한 그릇

1월 6일(목)-2월 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공휴일·일요일 오후 3:00, 6:00(2/3일,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한 그릇의 우동으로 힘과 용기를 얻었던 세 모자의 따뜻한 이야기를 그린 구리 료헤이의 동명의 소설을 무대에 올린 연극 '우동 한 그릇'.

- 원작/구리 료헤이
- 작, 연출/김동수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

1월 7일(금)-2월 2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공휴일·일요일 오후 3:00, 6:00(2/3일,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어떤 인물로도 변할 수 있는 마법의 단말기를 우연히 얻게된 소심한 노총각 진성의 진정한 사랑찾기를 그린 로맨틱 뮤지컬.

- 작, 연출/이원준
- 작곡/허수현 · 안무/이승우
- 관람료 균일 3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가족뮤지컬 피터팬

1월 15일(토)-2월 13일(일) 평일 오전 10:30, 오후 3:00,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월요일, 화요일 3시 공연없음) MBC롯데아트홀



40년 전통의 일본 극단 히코센의 장인기술로 제작된 캐릭터 마스크로 생동감을 선사하는 마스크 플레이 뮤지컬 '피터팬'.

전문 성우가 사전에 녹음한 대사와 노래에 맞춘 전문 배우들의 숙련된 춤과 연기를 통해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애니메이션의 세계로 관객들을 초대한다.

- 예술감독/허승민 · 음악감독/이성준
- 안무/강희정
-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문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함께가는 공간 겨울무대 가족뮤지컬 청개구리 이야기

1월 7일(금)-2월 25일(토) 평일 오전 11:00, 토요일 오후 2:00(평일 단체관람, 일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비가 오면 우는 청개구리 설화를 재미나는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청개구리 이야기'.

- 작, 연출/김만중
- 출연/임선미, 추효경, 김정환
- 관람료 균일 12,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함께가는 공간 겨울무대 극단 양산 에스터데이

1월 18일(화)-2월 2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2/3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추억 속 1980년대를 배경으로, 가난하지만 행복했고 세련되지 못했지만 순수했던 지난 시절 가슴떨리던 첫사랑의 추억을 그린 연극.

- 작/김은숙 · 연출/송진경
- 관람료 균일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뮤지컬 맘마미아!

2월 4일(금)-13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30(6일 오후 2:00, 13일 오후 2:00, 6:30, 월요일 공연없음) 시민회관 대극장

세계적인 팝그룹 '아바'의 히트곡을 배경으로, 결혼식을 앞둔 소피가 아버지를 찾기 위해 벌이는 소동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묻는 뮤지컬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컬 '맘마미아!'

1999년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탄생한 이후 현재까지 225개 도시, 40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전세계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출연/최정원, 황현정, 이경미, 남경주, 성기윤, 이석, 박지연, 김영웅, 박혜미, 이은희, 서만석, 이웅 외

▪ 관람료 VIP석 120,000원 ·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 A석 60,000원
B석 40,000원

▪ 문의 예술기획 성우(1599-1980)

2011 가마골 젊은 연출가전 2 감성음악극 존 레논을 위하여

2월 4일(금)-2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20세기 최고의 뮤지션 '비틀즈'의 주옥같은 명곡과 더불어 영혼을 울리는 존 레논의 음악과 사랑, 꿈을 그린 감성음악극.

· 작, 연출/김세환
· 출연/최윤희, 조은호,

최영무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초중고생 15,000원
▪ 문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뮤지컬 친정엄마 설날 특별공연

2월 5일 토요일 오후 3:00, 7:00,
6일 일요일 오후 2:00, 6:00 KBS부산홀



딸을 시집보내며 겪는 갈등과 화해를 통해 모녀지간의 따뜻한 정과 사랑을 그린 뮤지컬 '친정엄마'.

국민엄마 나문희, 김수희의 열연과 함께 화려한 대중가요로 재미를 더한다.

· 작/고혜정 · 연출/권호성
· 출연/나문희, 김수미, 이유리, 양꽃님

▪ 관람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 문의 (주)WSM(1600-1716)

폭소 블랙코미디극 죽여주는 이야기

2월 5일(토)-2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현시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자살'을 소재로, 죽음을 상품화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죽음마저도 눈감아버리는 현실을 풍자한 폭소 블랙코미디극 '죽여주는 이야기'.

▪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 문의 SM기획(1600-1602)

로맨틱 코미디극 잇츠유

2월 8일(화)-2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 소강당



지역 방송사 보도국을 배경으로, 한 때 최고의 피아니스트였지만 불의의 사고로 꿈을 포기한 최고봉과 자신만의 라디오 프로그램 DJ를 꿈꾸며 열심히 사는 리포터 이지은, 야망을 간직한 방송국 간판 아나운선 한성미. 그런 그녀만을 바라보는 순애보 PD 봉차장 등 네 명의 남녀가 펼치는 꿈과 사랑의 로맨틱 코미디극.

▪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 문의 SM기획(1600-1602)

뮤지컬 페임

2월 9일 수요일 오후 3:00,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예술고등학교인 성남고등학교 연극영화과, 뮤지컬과의 졸업생과 재학생,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모여 설립한 세종아트컴퍼니의 뮤지컬 '페임'. 뉴욕의 예술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오직 1%의

음악목사 및 찬양사역자 교육 배출기관 국제사이버신학대학원

선교음악학과(M.Div.) 신입생모집 「전공: 음악목회 찬양사역 음향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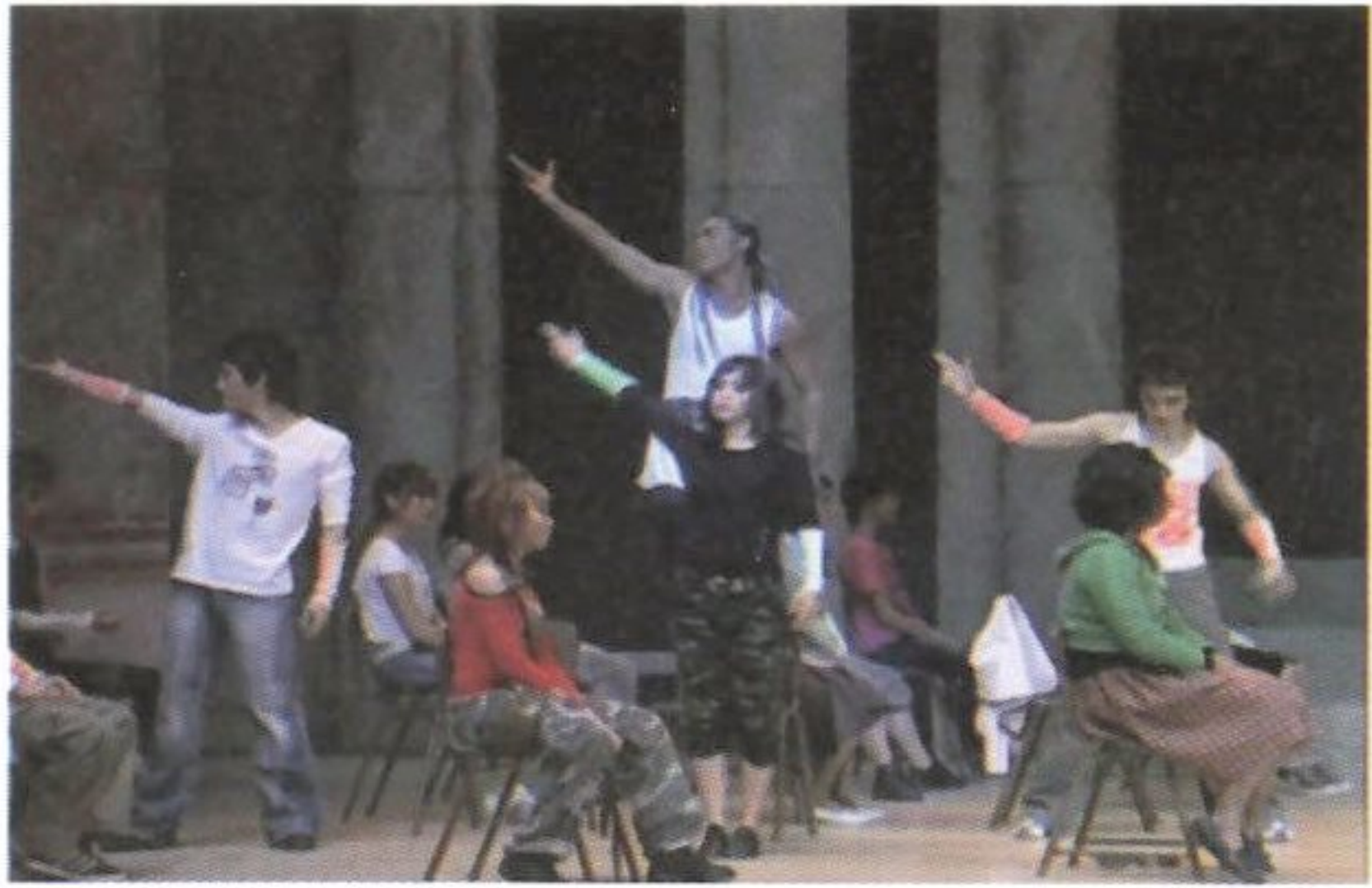
>> 지원자격: 지휘자 반주자 솔리스트 찬양사역자 음향영상종사자 교수 의사 약사 CEO
(석사학위소지자는 관련과목 취득학점 인정)

▪ 문의: 음악목사 음악학박사 신영순(010-3860-4770)



INTERNATIONAL CYBER SEMINARY
국제사이버신학대학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 대호빌딩 신관 202호 Tel.02-747-0691~2
Fax.02-588-3057 www.icseminary.org E-mail.icseminary@naver.com
부산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글로벌아트홀 Tel.051-505-5995
Fax.051-505-5935 www.glovil.org E-mail.glovil@par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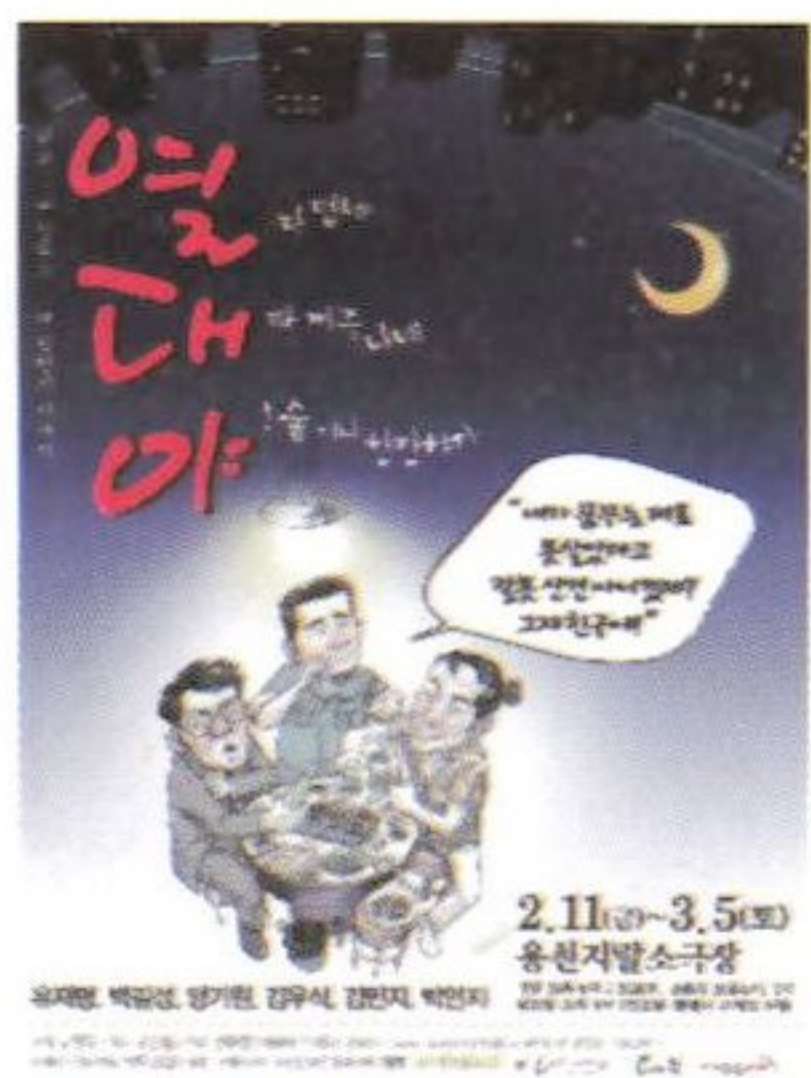


최고를 꿈꾸는 젊은 청년들의 꿈과 사랑, 우정을 그린 작품이다.

- 예술감독/정미례 · 음악감독/김유정
- 연가지도/명진희
- 출연/김수연, 박상민, 구본영, 양희범, 전미진, 김진범, 신비, 이영광, 최명길, 오희려 외
- 관람료 초대
- 문의 세종아트컴퍼니(010-5074-2798)

연극 열대야

2월 11일(금)-3월 5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공휴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4:00 용천지랄소극장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밤 삼겹살 집을 배경으로, 직업도 성격도 다른 세 중년 친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진솔하게 펼쳐지는 연극 '열대야'.

• 출연/백길성, 양기

원, 유재명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무대공감(623-0678)

연극 훈남들의 수다

2월 11일(금)-3월 2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단 2/14, 3/14일 공연있음, 3/1일 오후 3:00, 6:00)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30대 초·중반 남성들의 성과 연애, 결혼에 대한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연극 '훈남들의 수다'.



- 작/엄정은 · 연출/이영석
- 출연/김도형, 이기섭, 윤일식, 안병찬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뮤지컬 스페셜레터

2월 12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3일 일요일 오후 2:00, 5:00, 8: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군대로 배달된 편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헤프닝을 통해 군인들의 일상과 그들의 꿈과 우정, 사랑을 유쾌하게 풀어낸 창작뮤지컬.

2009년 초연무대를 가진 '스페셜레터'는 대구뮤지컬페스티벌 창작뮤지컬상, 한국뮤지컬대상 극본상, 더뮤지컬어워즈 소극장 창작뮤지컬상을 수상한 바 있다.

- 관람료 VIP석 55,000원 · R석 4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SM기획(1600-1602)

발렌타인데이 특집 개그플러스

2월 13일 일요일 오후 3:00, 6:30 KBS 부산홀

TV개그프로그램의 양대산맥인 개그콘서트와 웃찾사의 최강 개그꾼들이 선보이는 포복절도 웃음폭탄 '개그플러스'.

- 관람료 VIP석 66,000원 · R석 55,000원 S석 44,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SM기획(1600-1602)

영어뮤지컬 Five Fools 3 다섯 명의 유쾌한 바보들

2월 18일 금요일 오전 11:00, 19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MBC롯데아트홀

국내 유일의 어린이 영어연극전문 라트어린이극장이 제작한 어린이 영어뮤지컬.

다섯 명의 유쾌한 바보들이 펼치는 좌충우돌 서커스 이야기가 신기한 서커스와 마술, 아크로바틱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펼쳐진다.

- 관람료 균일 40,000원
- 문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2월 19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0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시민회관 대극장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오즈에 가게 된 도로시와 세 친구가 펼치는 모험의 세계가 신나는 난타공연과 함께 펼쳐지는 어린이 뮤지컬.

- 제작/송승환
- 각색/채훈병

- 작곡, 작사/김태근
- 관람료 R석 35,000원 · S석 30,000원
- 문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해설이 있는 영어뮤지컬 콘서트 2MORO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2월 19일 토요일 오후 4:00, 7:00 시민회관 소극장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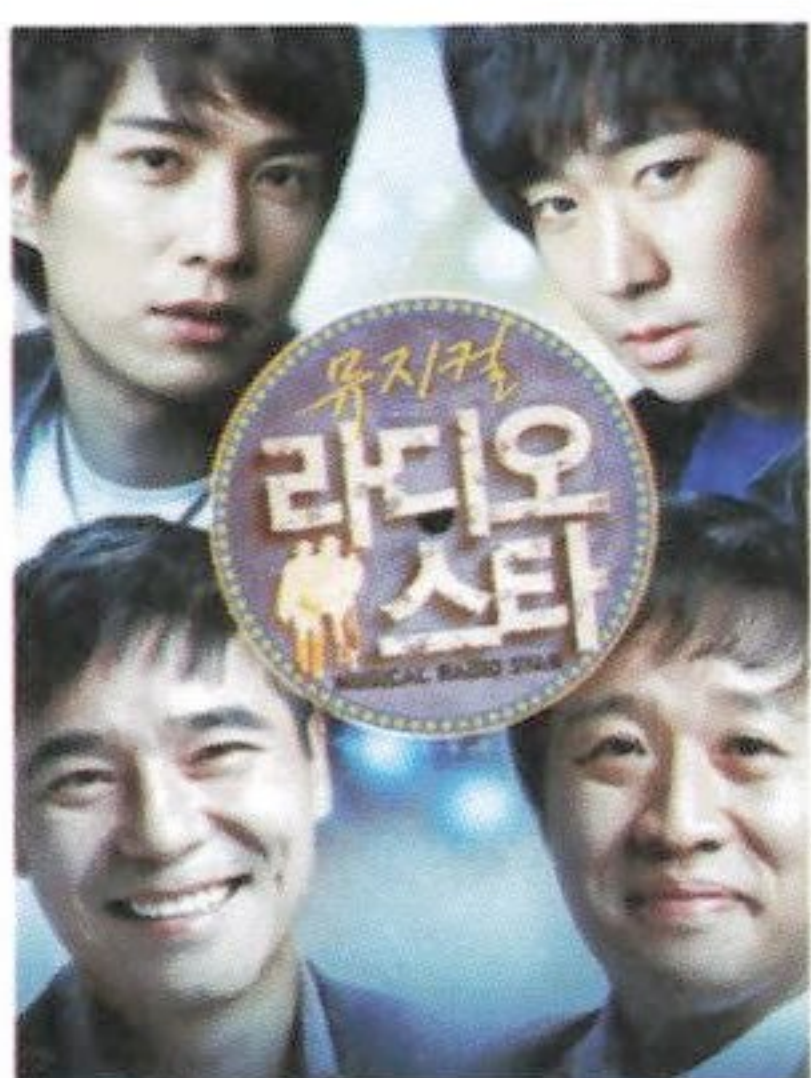
'사운드 오브 뮤직' '라이언킹' '헤어 스프레이' '그리스' 등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뮤지컬의 하이 라이트 장면을 갈라콘서트 형식으로 엮어 영어로 공연하는 해설이 있는 영어뮤지컬 콘서트.

공연 각 장면 사이의 작품해설을 통해 영어교육과 뮤지컬의 감동을 선사한다.

- 총감독, 연출/박보은
- 해설/박보은, 로버트 번
- **관람료** 초대
- **문의** 극단 2MORO(010-7504-0191)

뮤지컬 라디오스타

2월 25일 금요일 오후 8:00, 26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7일 일요일 오후 3:00
시민회관 대극장



한물간 고집불통 록 가수와 그의 재기를 꿈꾸는 순수한 매니저가 펼치는 우정과 인생 역전의 드라마 뮤지컬 '라디오스타'.

정준하, 임창정, 김원준, 송용진 등 방송과 무대를 넘나드는 최고의 만능엔터테이너들이 최고의 무대를 선보인다.

- **관람료** VIP석 90,000원 · R석 80,000원
S석 70,000원 · A석 60,000원
- **문의** (주)WSM(1600-1716)

밴드 뮤지컬 6시 퇴근

2월 25일(금)-3월 2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단 2/14, 3/14일 공연있음, 3/1일 오후 3:00, 6:00)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반복되는 일상과 업무 속에서 자신들의 열정을 찾아가는 평범한 직장인들의 특별한 밴드활동 이야기 '6시 퇴근'.

국악과 록을 접목시킨 '아리랑'으로 2001년 MBC강변가요제 대상을 거머쥔 Nevada#51의 생생한 라이브 연주가 펼쳐진다.

- 작/문정연 · 연출/박종우
- 작곡/Nevada#51 · 안무/최은화
- 출연/Nevada#51, 김수정, 최윤희, 탁성준
- **관람료** 균일 3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동물의 사육제 · 백조의 호수

2월 26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27일 일요일 오후 12:00, 2:00
신세계 센텀시티 문화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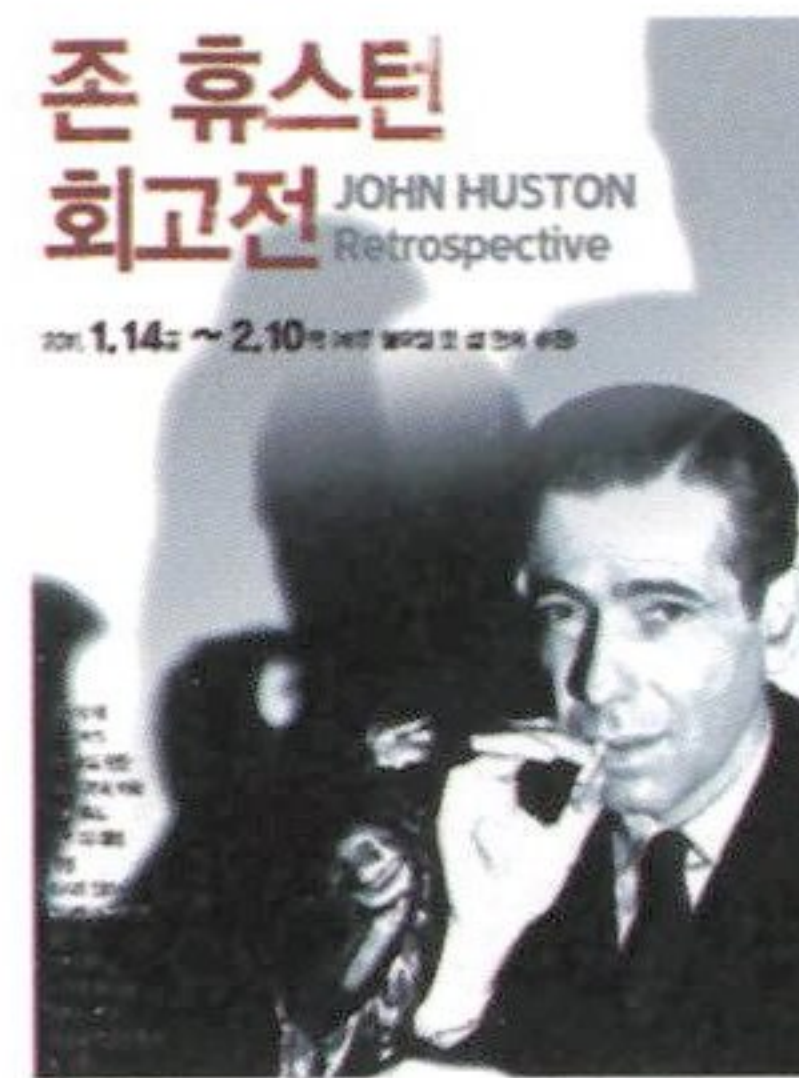
생상스의 관현악모음곡 '동물의 사육제'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손그림자로 표현하는 환상적인 그림자극 '동물의 사육제'와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선율에 배우, 인형극, 그림자극이 어우러지는 '백조의 호수' 등 두 작품이 선보인다.

- **관람료** 균일 20,000원(인터넷 예매시 12,000원)
- **문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MOVIE

존 휴스턴 회고전

1월 14일(금)-2월 10일(목) 시네마테크 부산
(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월요일 휴관)



할리우드의 황금시대를 이끌어낸 거장 존 휴스턴 회고전.

필름 누아르의 초석이 된 걸작 '말타의 매'를 비롯 '시에나 마드레의 보물' '아스팔트 정글' '아프리카의 여왕'

등 그의 대표작에서부터 '프로이드' '사랑과 죽음의 행보' 등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작품까지 총 18편이 상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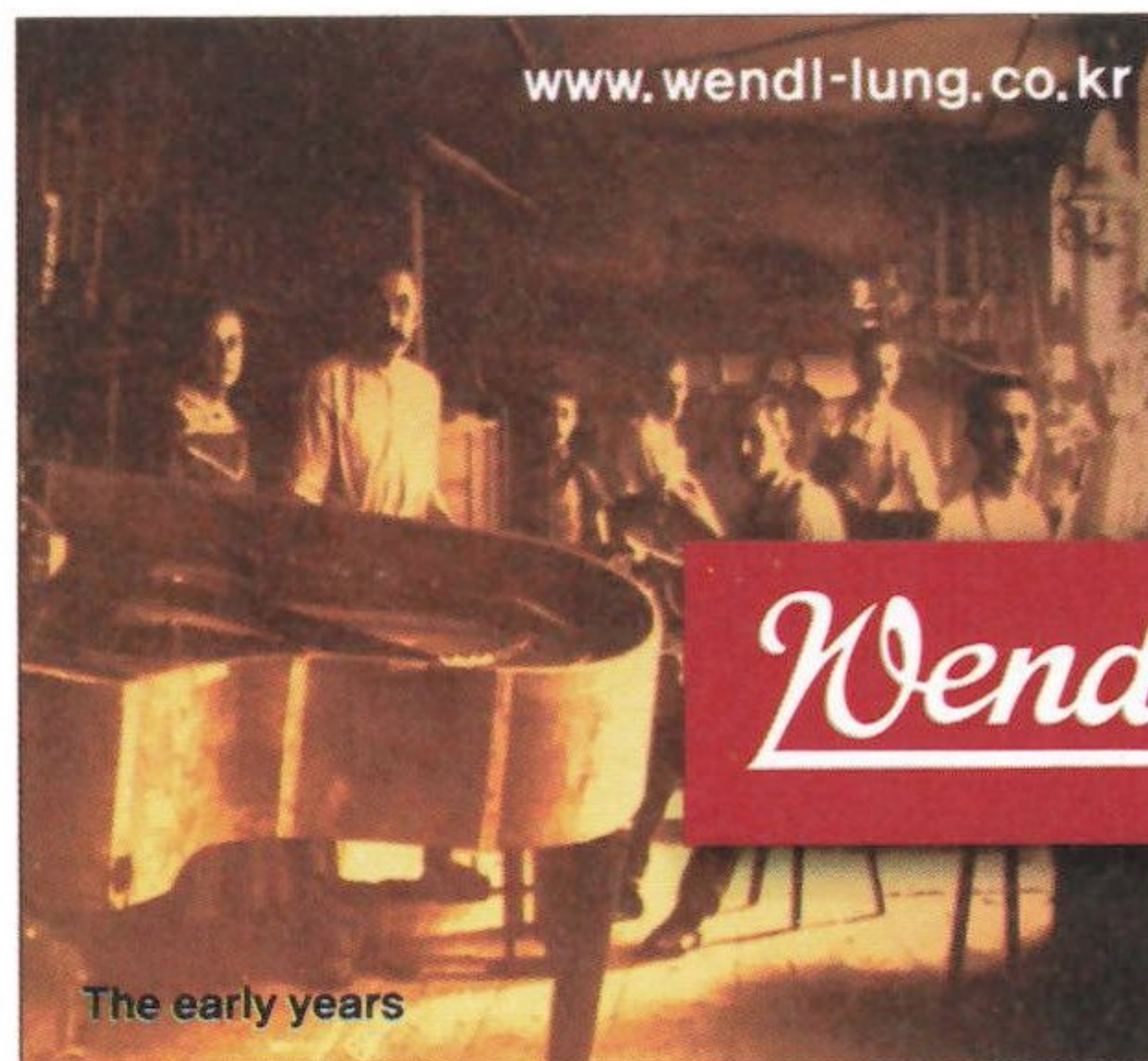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cinema.piff.org)

루키노 비스콘티 특별전

2월 11일(금)-27일(일) 시네마테크 부산
(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월요일 휴관)

무대예술, 음악, 문학 등 모든 예술의 다채로운 미학을 영상속에 담아냈던 이탈리아의 위대한 감독 루키노 비스콘티의 작품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백아', 시칠리아 3부작 중 하나로 비스콘티의 미학적 취향이 드러나는 '레오파드', 만년의 걸작이라는 찬사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주] 벤들·룽 피아노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를 받은 그의 탐미적 예술관이 집약된 '베니스에 서의 죽음' 등 그의 대표작 9편이 상영된다.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CONCERT

2AM 전국투어 콘서트-부산

2월 12일 토요일 오후 7:00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관람료 SR석 99,000원 · R석 88,000원
S석 77,000원 · A석 66,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전화예매 후
당일 회원카드 제시)
- 문의 SPA엔터테인먼트(1599-7448)

재즈 와인에 빠지다 24번째 콘서트 레미 파노시앙 트리오 연주회

2월 11일 금요일 오후 8:00 시민회관 소극장



프랑스 남부지방의 수려한 외모와 뛰어난 연주실력으로, 세련되면서도 재기발랄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레미 파노시앙 트리오의 무대.



연주/레미 파노시앙 (피아노), 막심 델포트(더블베이스), 프레드릭 프티프레즈(드럼)

- 관람료 균일 33,000원
- 문의 무대공감(623-0678)

EVENT

신나는 뽀로로 놀이동산

2010년 12월 17일(금)-2011년 2월 6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관람료 24개월~초등학생 13,000원
중학생~일반 10,000원
- 문의 제이에스인터내셔널
(1588-5716, www.pororoworld.com)

이영란의 흥놀이 '오물조물 딱딱'

2010년 12월 18일(토)-2011년 2월 27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관람료 균일 15,000원
- 문의 CJ헬로비전(1588-4706)

2011 벅스코 키즈랜드

2010년 12월 23일(목)-2011년 3월 1일(화)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
- 관람료 균일 12,000원
- 문의 (주)씨앤제이(740-8800)

알바트로스 시낭송 문학회 제 50회 시낭송음악회

2월 19일 토요일 오후 6: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특별 초대시인/시인 정일근
- 초청 음악가/소프라노 김차경, 가수 정태춘, 김예린
- 사회/김근희
- 문의 알바트로스 시낭송 문학회
(010-6367-0149)

GALLERY

MBC 트릭아트 부산 특별전

2010년 11월 26일(금)-2011년 2월 27일(일)
MBC 트릭아트 특설전시관

- 관람료 균일 12,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균일 9,500원)
- 문의 (주)문화방송(1544-0733)

KNN 매직아트 벅스코 특별전

2010년 12월 1일(수)-2011년 3월 1일(화)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시각적 착각을 이용한 신기한 매직아트 세계를 즐길 수 있는 특별전.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10:00
- 관람료 균일 12,000원
- 문의 (주)씨앤제이
(740-8888, www.knnart.com)

하정웅 기증 특별전

금단의 언어 자유의 회화 '헨리 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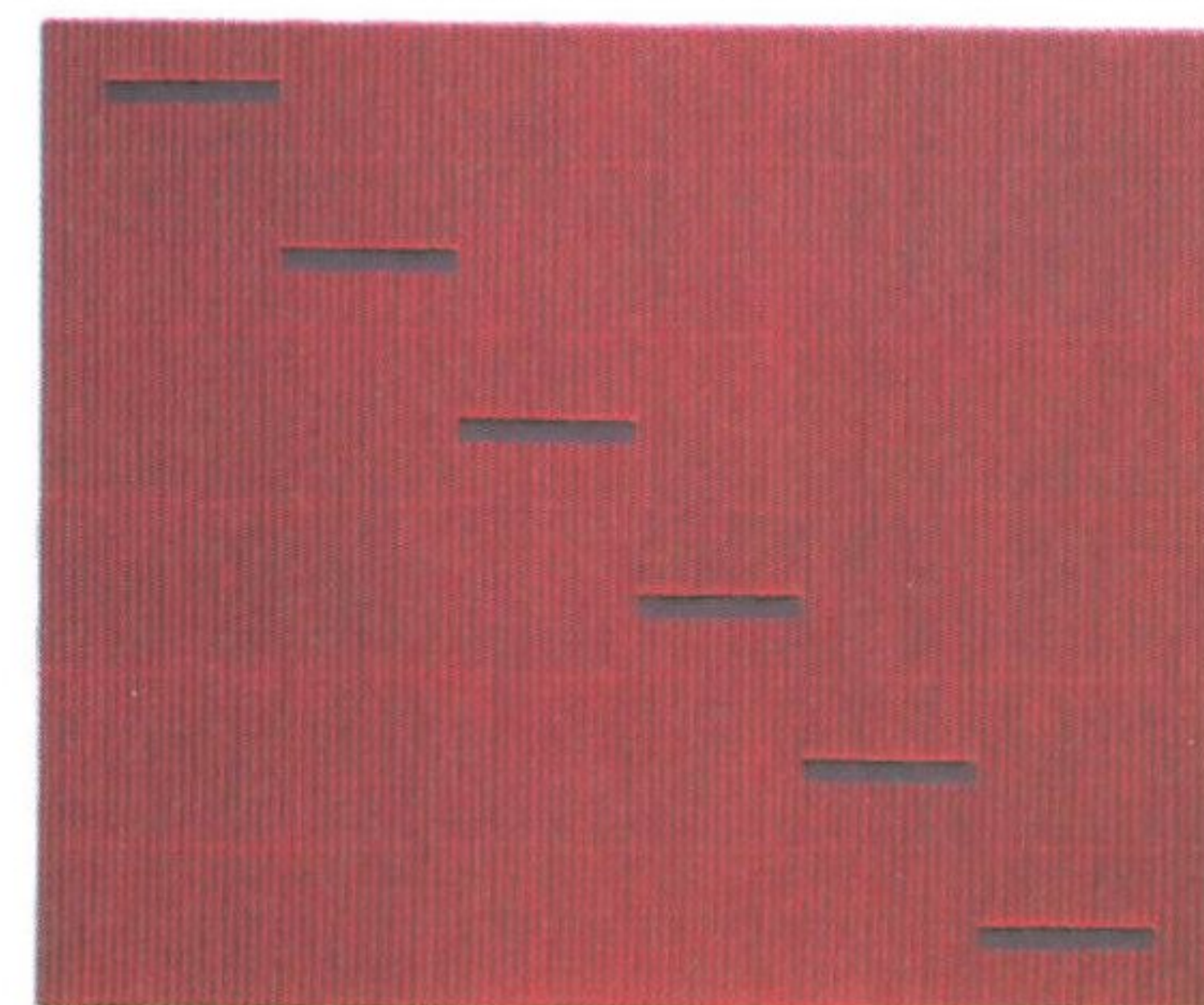
2010년 12월 11일(토)-2011년 2월 6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기증전시실

소설가이자 화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친 헨리 밀러의 주요 작품들과 각국의 언어로 출판된 헨리 밀러의 소설 등 헨리 밀러에 관한 자료들이 전시되는 특별전.

-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0-2602)

박서보, 한국 아방가르드의 선구자: 화업 60년

2010년 12월 11일(토)-2011년 2월 20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전시실



한국 현대미술을 개척하고 이끌어온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 박서보의 예술세계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획전.

-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0-2602)

부산의 발견

2010년 12월 16일(목)-2011년 2월 13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대전시실

지역 화단을 탄탄하게 지탱해온 중견 작가들의 활동을 되짚어 보기 위한 기획전으로, 부산미술 2세대에 해당하는 작가 김청정, 주정이, 전주자, 전태영 등 4인의 작품세계를 조명해본다.

-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0-2602)

부산의작고작가 3, 4 임호, 이석우

2010년 12월 18일(토)-2011년 2월 13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소전시실



임호 작 '해경'

경남연구회, 혁토사, 토벽회 등의 동인으로 부산의 근대 화단 형성에 기여한 임호(1918-1974)와 관념적인 동양화에서 탈피해 현실의 인물과 사건을 만나면서 역동적인 삶의 모습을 담으려했던 이석우(1928-1987)의 발자취를 되돌아본다.

을 담으려했던 이석우(1928-1987)의 발자취를 되돌아본다.

-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0-2602)

곽태임 세화(歲畵)작품 초대전

1월 4일(화)-2월 13일(일) 갤러리 예가

- 문 의 갤러리 예가(624-0933)

정봉채 사진전 '胡蝶夢, 호접몽'

1월 7일(금)-2월 20일(일) 토요타 아트스페이스



'우포늪 시리즈'를 통해 자연과 환경의 생태학적 탐구에 관한 성찰을 보여온 사진작가 정봉채 사진전.

주체적 입장에서 자연을 수용하던 지금까지의 풍경에 대한 이미지에서 주체와 객체가 사라지고

시선의 쌍방향으로 인해 자연과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보여준다.

- 문 의 토요타 부산전시장(080-855-0007)

3D와 함께하는 세계명화 체험전

1월 17일(월)-2월 20일(일)

해운대문화회관 제 1, 2전시실



마네, 모네, 드가, 르누아르, 세잔, 고흐, 고갱 등 기존의 명화를 패러디한 3D영화 감상과 더불어 영화 탁본, 나만의 명화가면, 티셔츠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다.

- 관람료 균일 6,000원
-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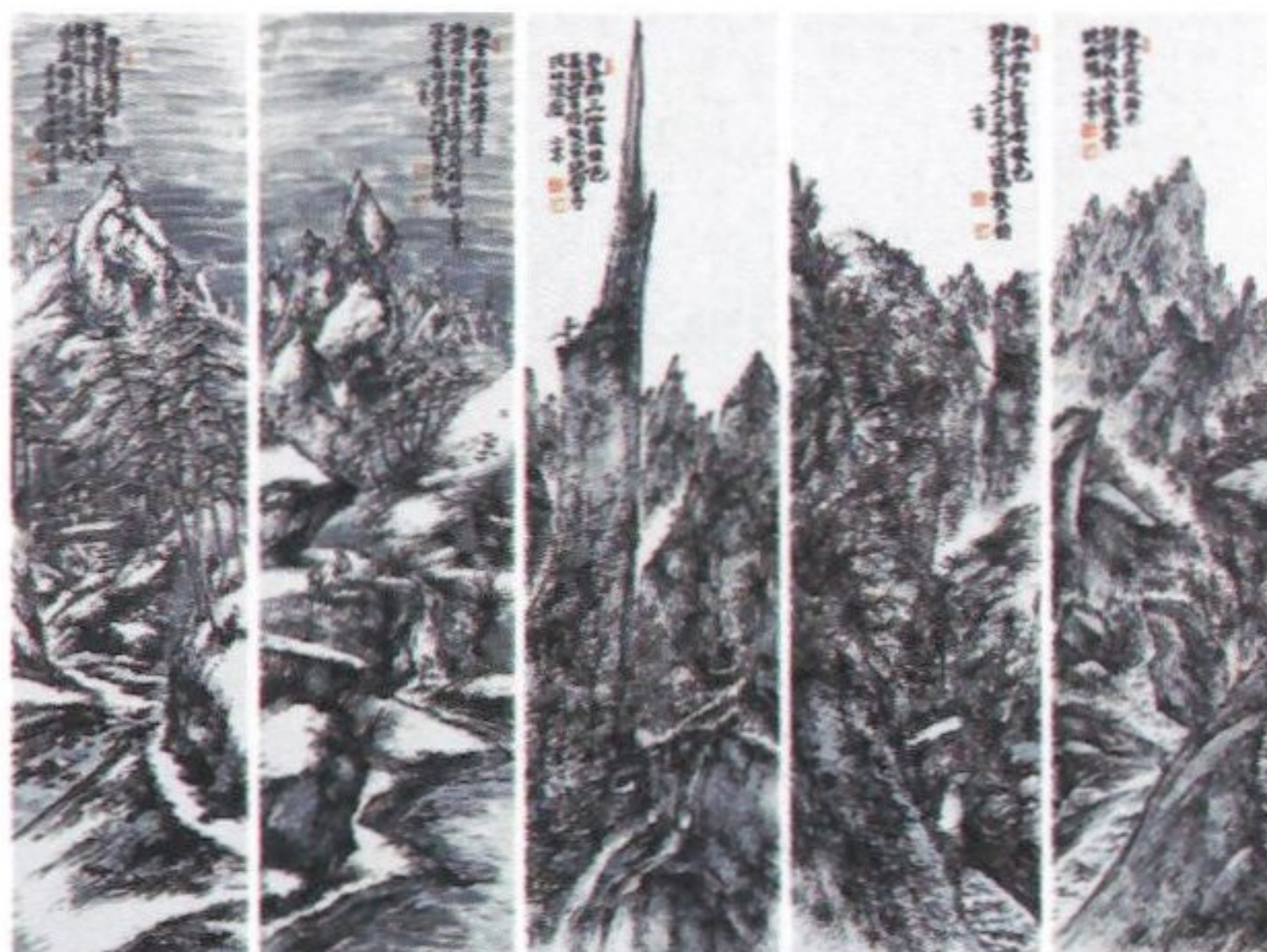
강홍구 사진전

1월 22일(토)-3월 27일(일) 고은사진미술관

- 문 의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한국 수묵화의 거장-청전 이상범, 소정 변관식, 단원 김홍도, 겸재 정선

1월 23일(일)-2월 13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변관식 작 '금강산 사계'

한국적 미감의 원류를 제시한 조선시대 대표적인 화가 겸재 정선과 단원 김홍도, 한국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청전 이상범, 소정 변관식 등 수묵화 거장 4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

- 문 의 롯데갤러리 광복점(678-2610~2)

2011 辛卯年 맞이 테마전시 달의 정령, 토끼

1월 25일(화)-2월 27일(일)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 문 의 부산박물관(610-7142)

국제레지던스 입주작가 Juichi-Higash 개인전

1월 28일(금)-2월 8일(화)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레지던스 공간

- 문 의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266-0646)

'박창돈-태초를 열다'展

1월 28일(금)-2월 24일(목)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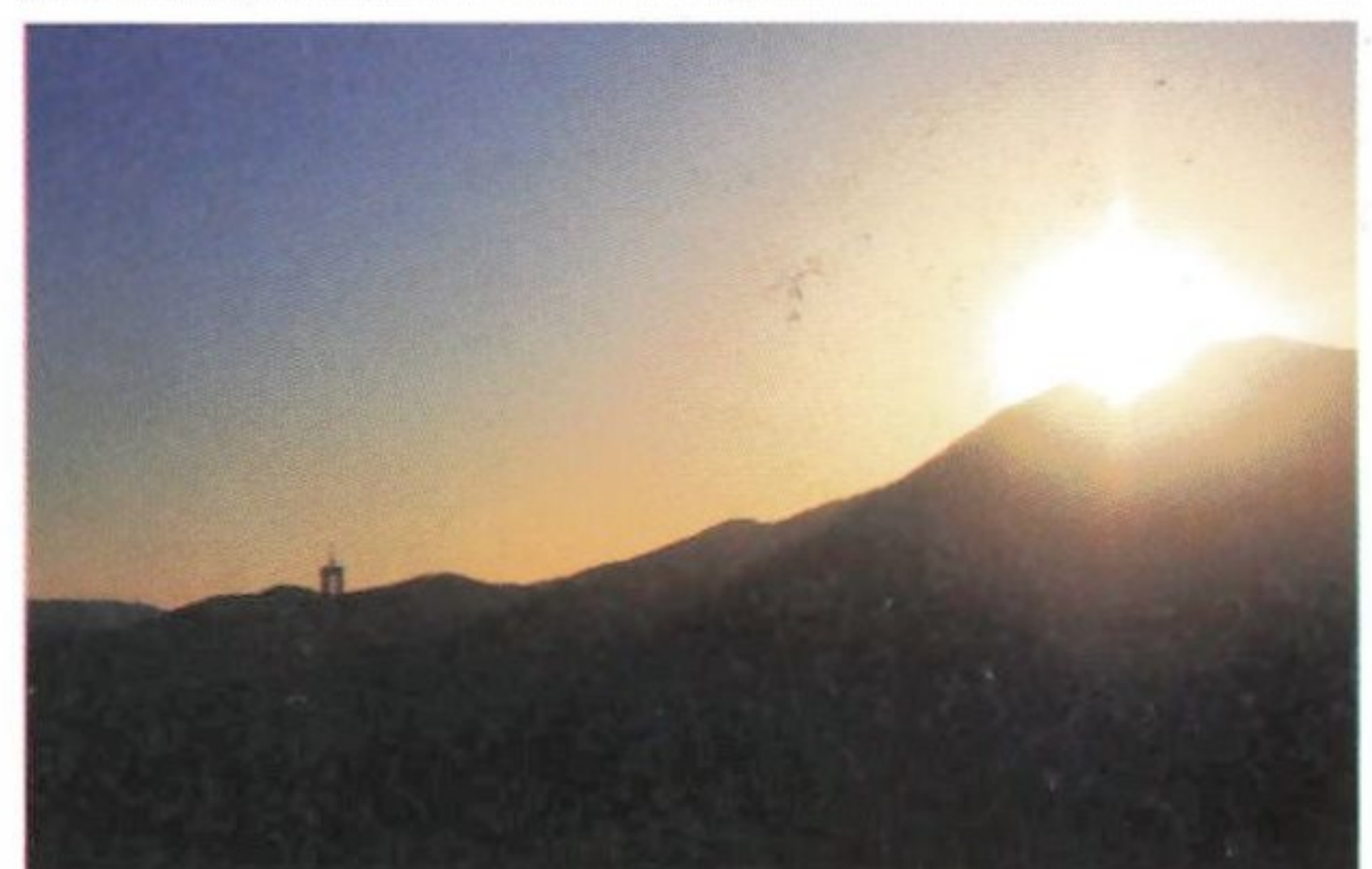


- 문 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김신규 사진전

2월 7일(월)-2월 28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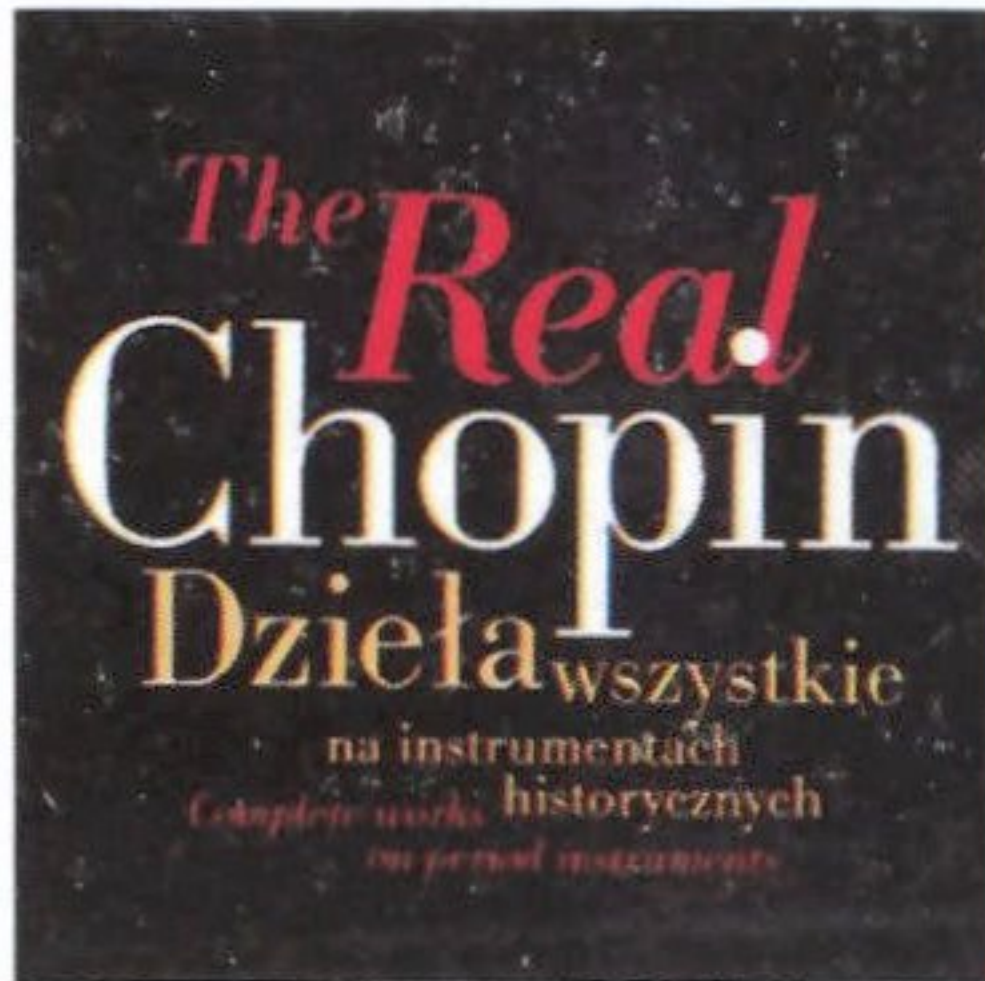
부산프랑스문화원 전시실



- 문 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 부산박물관과 부산시립미술관 관람시간이 2시간 연장되어 오후 8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 부산박물관(610-7142)
- 부산시립미술관(740-2602)



The Real Chopin

연주: 당타이손, 후츨, 넬슨 괴르너, 카링 콜린 리, 보이치에흐 시비타와, 타티아나 세바노바 외

▶ 시대악기(플레엘, 에라르)로 연주하는 쇼팽 작품 전집

폴란드의 프리데릭 쇼팽 협회에서 2009년 쇼팽 탄생 200주년을 맞아 쇼팽 콩쿠르 입상자를 중심으로 우리 시대 최고의 쇼팽 연주자들을 모아서 완벽하게 보존된 쇼팽 시대의 오리지널 악기인 1848년제 플레엘 및 1849년제 에라르 피아노로 연주한 'The Real Chopin' 시리즈가 박스물로 묶여 나왔다. 피아노 독주곡은 물론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 피아노 트리오, 가곡 및 첼로 소나타 등 전곡이 망라되었으며, 특별 보너스로 1948년 라울 코찰스키가 쇼팽의 플레엘 피아노로 연주한 역사적 기록이 들어있다. 쇼팽 전문가인 보흐단 포치에이가 쓴 각 장르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악기 및 연주자에 대한 설명이 있는 200페이지 책자도 매력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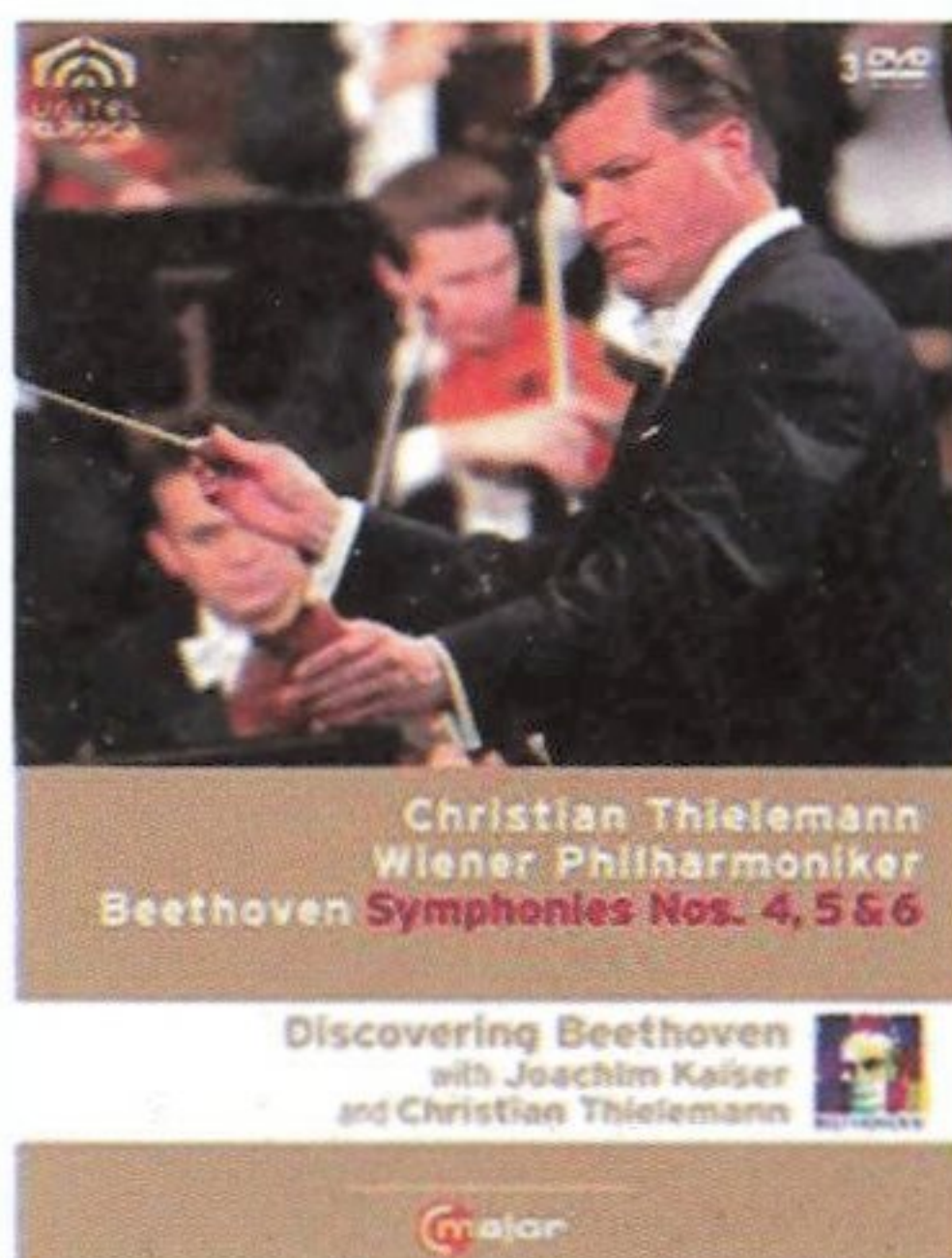


카렌 제게건 바순 협주곡

연주: 카렌 제게건(바순), 자난드레아 노세다(지휘), BBC 필하모닉

▶ 수록곡: 모차르트-바순 협주곡 KV191 / 로시니-바순 협주곡 / 크로이처-바순 환상 / 크루셀-B플랫 바순협주곡

2008년에 산도스(chandos) 레이블을 통해 소개된 바순 연주자 '카렌 제게건'은 그라마폰을 비롯한 모든 평단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으며 가장 유망한 바순 연주자로 기대를 모았다. 데뷔 앨범이 발표되고 난 후, 모든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만큼 신인 답지 않은 최고의 테크니션을 보여주었다. 그 후, 프랑스 바순 작품집과 '자난드레아 노세다'와 함께한 볼프 페라리의 작품으로 그녀는 바순계를 이끌고 있는 어엿한 아티스트로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번 앨범은 이러한 그녀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지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앨범으로서 모차르트, 로시니, 크로이처, 크루셀의 작품을 선택하였다. 더욱 많은 대중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레퍼토리를 선택하고자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DVD 틸레만과 빈 필하모닉의 베토벤 교향곡 전집 Vol.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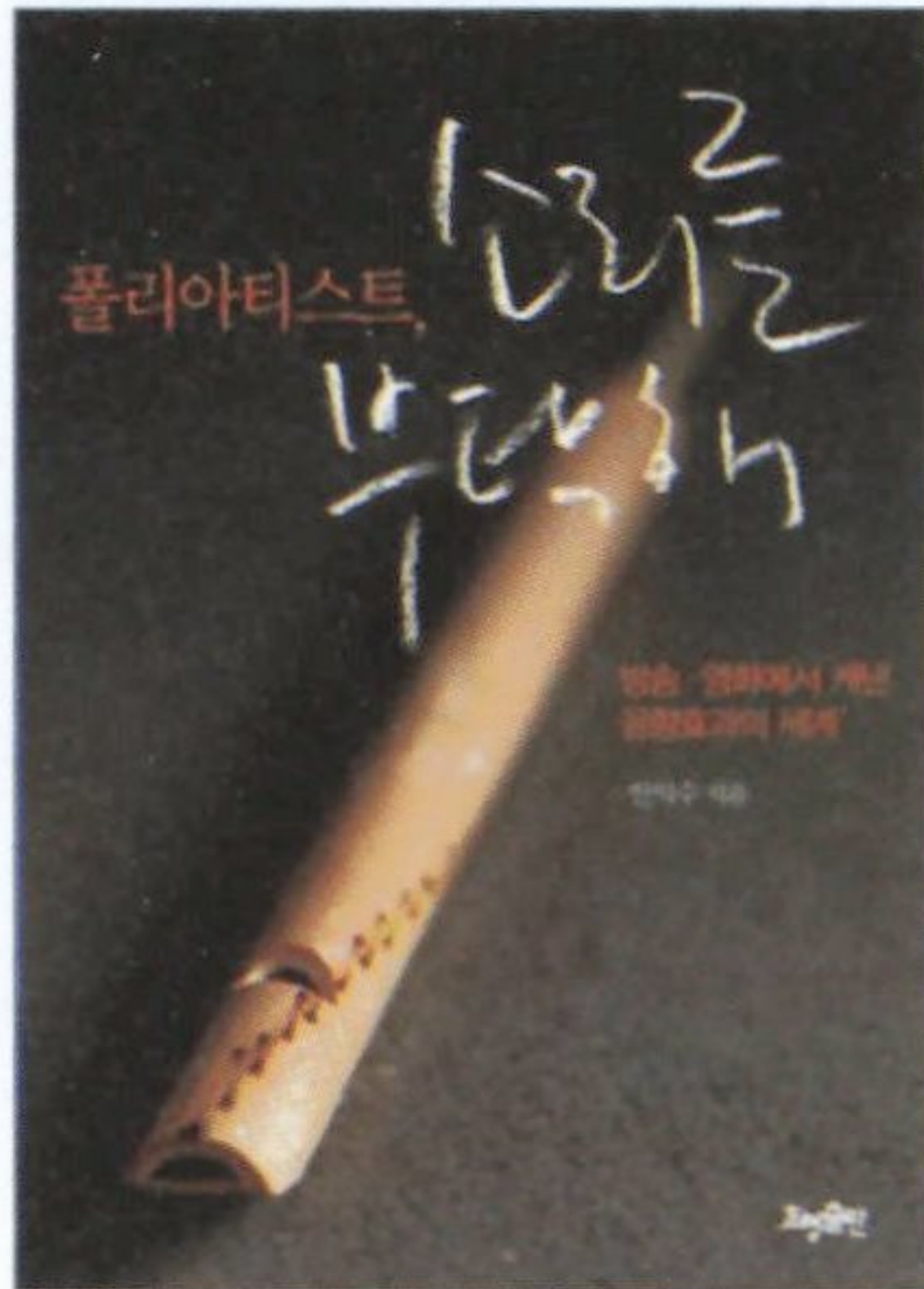
▶ 수록곡: 베토벤 교향곡 4, 5, 6번

수차례에 걸친 리허설과 세계각지에 걸친 연주여행, 그리고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이어진 영상물 녹화 세션에 이르기까지, 크리스티안 틸레만과 빈 필하모닉은 모든 면에서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베토벤 교향곡 사이클을 의심의 여지없이 완벽하게 해결하였다. 영상은 HD급의 고해상도로 촬영되었고, 음악 역시 5.0 채널의 서라운드 사운드로 녹음되었다. 그 결과는 HD급의 영상으로 선보이는 빈 필 최초의 베토벤 교향곡 전집일 뿐만 아니라, Blu-Ray 포맷으로 선보이는 최초의 베토벤 교향곡 전집이 만들어졌다.

크리스티안 틸레만의 베토벤 교향곡 사이클은 단순히 또 다른 지휘자의 예술적 관점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작은 편성의 오케스트라와 극단적인 빠른 템포 위주의 이른바 탈-로맨틱 성향의 베토벤 교향곡 연주들이 범할 수 없는 강력한 대세를 이뤄왔지만, 크리스티안 틸레만은 과거 푸르트벵글러와 같은 추억의 거장들이 고전과 낭만시대 관현악 레퍼토리들에서 보여줬었던 풍부한 표정을 담은 풍요로운 음악을 복원하고자 노력하는 마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왔다. "작곡가들이 스코어에 적어놓지 않더라도 선율적인 프레이즈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들은 생겨나기 마련이다." 빈에서 있었던 틸레만의 베토벤 교향곡 사이클 중의 한 콘서트에 대한 Die Presse지의 한 연주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러한 반응들을 탐구해나가는 것은 지난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NEW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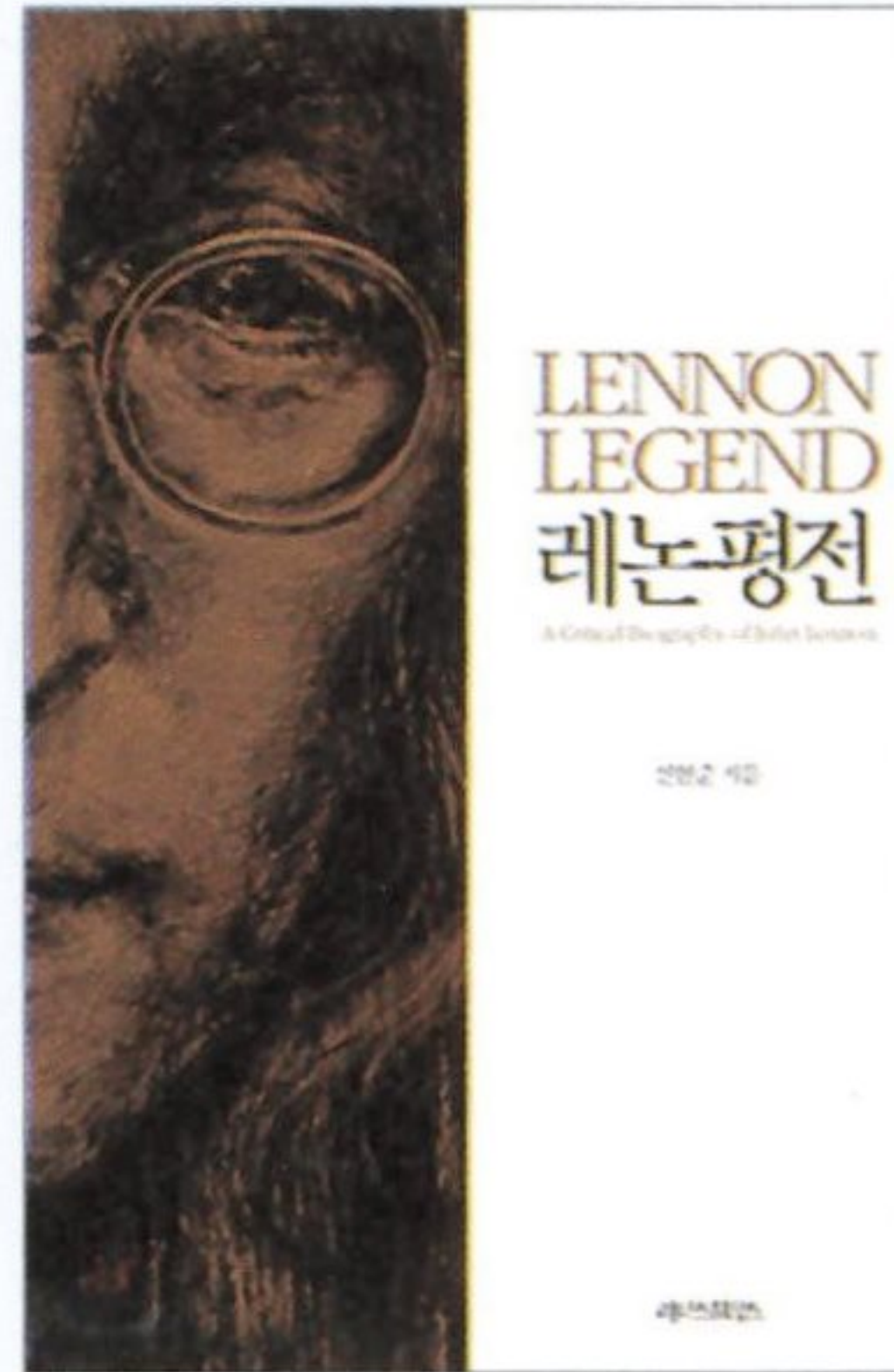
박현주 _ 북칼럼니스트



폴리아티스트, 소리를 부탁해

안익수 지음
효형출판 / 256p / 1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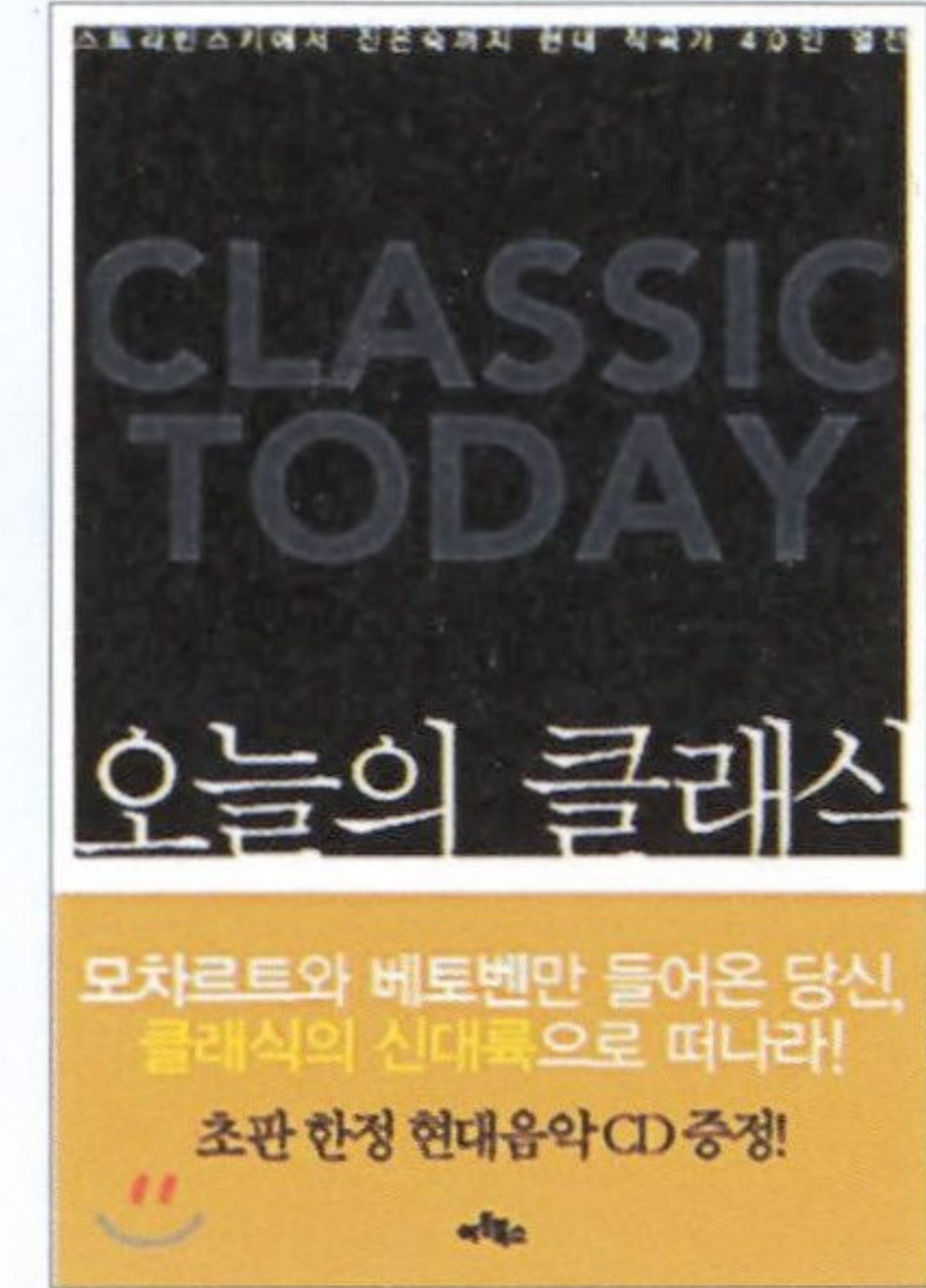
번개 치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천둥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어떨까. 반대로 라디오에서 천둥소리를 들으면 번개가 치는 장면을 보지는 못해도 번개가 쳤다는 걸 알 수 있다. 방송에서 음향효과가 없다면 아마 제대로 내용을 전달하기 힘들 것이다. 1992년 KBS 방송국에 음향효과맨으로 입사한 이후 18년간 TV와 라디오 제작현장을 누볐던 안익수 음향감독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펴냈다.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들을 수 있는 각종 소리들, 발자국 소리를 비롯해 문 여닫는 소리, 눈 밟는 소리, 찌개 끓는 소리 등의 효과음은 대부분 폴리아티스트들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다. 그들은 고구마 전분을 주물러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를 내고, 아크릴판 사이에 소금을 뿌려 얼음 깨지는 소리를 만들어낸다. 소리를 만들기도 하고, 마이크와 녹음기를 들고 방송에 사용할 소리를 곤충을 채집하듯 채집하러 다니는 폴리아티스트의 세계를 만나보자. 폴리아티스트란 영화나 방송에서 사람 목소리와 음악을 제외한 모든 소리를 실제와 같이 재연하는 전문가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영화에 필요한 소리를 만들어냈던 잭 폴리(JACK FOLEY)라는 전설적인 인물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레논평전

신현준 지음
리더스하우스 / 380p / 18,000원

20세기 대중음악계 최고의 뮤지션이자 아티스트였던 존 레논. 이 책은 전설이 된 팝 스타의 신화를 반복하기보다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 레논의 진실에 가깝게 접근한다. 존 레논의 음악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지나서도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가 모든 사람에게 원만하게 사랑받는 음악을 만들고 연주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대부분의 팝 스타처럼 적당히 자기를 감추고 관리하면서 스타덤에 안전하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들여다보기를 원했고 그런 생각을 담은 음악세계를 보여주었다. 젊은이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정치·사회 문제나 내적 성찰 등을 노래하려 애썼고, 그러다보니 그의 음악에는 달콤한 사랑 얘기보다는 급진적인 발언이나 명상적인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 그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권위주의 기독교를 비판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전쟁을 일삼는 패권정치 반대에 앞장서는 등 당시 기득권층을 불편하게 하는 대표적인 인사 가운데 한 명이었다. 밖으로는 세상의 부조리와 끊임없이 불화하면서 안으로는 자기 자신의 위선과도 치열하게 싸웠던 존 레논의 인생을 저널리즘적 시각으로 재조명한다.



오늘의 클래식

김성현 지음
아트북스 / 498p / 30,000원

1912~1913년에 작곡된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은 러시아 이교도들의 대지와 태양신에 대한 찬미를 제재로 한 회화적인 곡으로, 강렬한 리듬과 원시주의적 색채가 강한 선율로 당시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20세기 음악의 혁신적 작품이다. <봄의 제전>을 초연했을 때 관객들은 주먹이든 지팡이든, 손에 잡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쥐고 옆 사람의 머리 위로 흔들었을 정도로 낮설어하고 당혹해 했다고 알려져 있다. 익숙한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새로운 음악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음악전문기자인 저자 역시 2007년, 뮌헨 오페라 축제에서 세상에 발표된 적이 없던 신작 오페라를 현장에서 지켜보고 기사를 써야 하는, 신선하고도 당혹스런 경험을 했다. 새로운 음악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했던 그 일을 계기로 저자는 현대음악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에 대한 좌표를 스스로 세운 후, 거기에 이르는 길을 독자에게 친절히 안내하는 이 책을 펴냈다. 그동안 정통 클래식에만 갇혀 있던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20세기에 걸쳐 방대한 작품을 남긴 40명 작곡가들의 현대 클래식 음악을 소개한다.

부산문화회관 대, 중전시실 시설개선



2010년 대극장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부산문화회관에서 오는 2월부터 노후화된 대, 중전시실의 시설개선 공사에 들어간다. 1988년 8월, 부산문화회관 개관과 함께 문을 연 1,296㎡ 규모의 대전시실은 완공 후 전시실 내부 보완 작업을 하지 않아 시설노후화로 인한 대관 민원이 빈번히 발생해 지역 미술인들로부터 시설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번 시설개선은 대전시실과 함께 1993년 5월, 756㎡ 규모로 개관된 중전시실 시설개선도 함께 진행된다.

부산문화회관에서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단장한 대극장과 어울리는 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립미술관, 예술의전당 미술관, 삼성미술관 등 국내 전시관의 내부 마감 사례를 조사,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2월부터 4월까지 천정과 벽, 바닥 마감재 교체, 전기설비 및 공조 배관 정비, 화장실 정비공사를 진행한다.

부산시립무용단 부산 자매도시 카오슝시 2011 등(燈)축제 참가



부산시립무용단이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부산의 자매도시 대만의 카오슝에서 열리는 '2011 등(燈)축제'에 참가, 개막 축하공연을 펼친다.

지난해에 이어 카오슝 등축제에 참가하는 부산시립무용단은 12일 대만 카오슝시 아이허(愛河)강변에서 열리는 2011 등(燈)축제 개막축하공연 외에 13일 자매도시 공연, 14일 장청노인복지센터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춤사위를 선보인다.

오색찬란한 등불이 밤하늘을 수놓는 카오슝 등축제는 음력 정월 대보름날 신령스러운 달이 보이지 않자 달 대신 등불을 밝혀둔 데서 비롯된 대만의 대표적인 축제이다. 이번 무대에서 부산시립무용단은 기하학적이며 서도 아름다운 구도를 그리며 추는 아름다운 부채춤, 역동적인 설장고 가락이 맵시 있게 어우러지는 설장고춤, 배김새의 다양한 몸짓과 상모놀음 등을 통해 신명을 펼치는 천지현황으로 부산과 대만의 우호를 다지는 역동적인 춤사위를 펼친다.

부산시립무용단 2011 복지관 순회공연

평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적은 이웃들을 직접 방문,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해온 부산시립무용단의 복지관 순회공연이 2월 16일 영진종합사회복지관 공연을 시작으로 2011년에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올해는 영진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등 10개 복지관에서 산조춤, 천생연분, 동래학춤, 태평무, 꼭두각시춤, 부채춤, 토끼와 거북이, 성주허튼춤, 살풀이춤, 화중신선, 한량무, 흥타령, 멋든춤으로 흥겨운 무대를 열어준다.

■ 일정

2월 16일	수요일	10:30	영진종합사회복지관
2월 17일	목요일	11:00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
2월 18일	금요일	15:00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2월 24일	목요일	14:00	백양종합사회복지관
3월 2일	수요일	14:00	전포종합사회복지관
3월 3일	목요일	10:40	학장종합사회복지관
3월 3일	목요일	15:00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3월 4일	금요일	10:30	동원종합사회복지관
3월 7일	월요일	10:00	금곡종합사회복지관
6월 27일	월요일	14:00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립교향악단 2011 신년음악회

무대 위 너무 왜소한 리 신차오와 장사익, 그러나 무대를 넘어 공연장을 휘감는 그들의 예술혼은 가히 자이언트급!!

- 우수민(해운대구 재송동)

폴리포니 기타듀오 연주회

차가운 겨울바람을 잊게 하는 클래식기타의 감미로운 선율, 기타리스트 서승완과 김경태의 멋진 앙상블이 독주에서는 느낄 수 없는 깊은 감동을 전해준다. 영상과 어우러지는 클래식 기타로 듣는 영화 OST 메들리는 색다른 감동!!

- 이신혜(수영구 남천동)

마스크 플레이 가족뮤지컬 '피터팬'

완전 살아 움직이는 입체 4차원 영화 같은 마스크플레이 가족뮤지컬 '피터팬'.

아이들의 눈에는 하늘을 훨훨 날아 다니고 무대 위를 뱅글뱅글 덩블링도 하고, 악당을 물리치는 피터팬의 모습이 멋졌나요. 덩동댕 유치원의 번개맨이 멋지다던 6살 난 저희 아들은 피터팬이 훨씬 더 멋지다고 하더라구요.

- 도혜정(수영구 광안2동)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

사.이.다. 남주인공 덕분에 자꾸 난 짐승이 되고~! 사.이.다.가 정말 눈부셔 내 가슴을 적신다. 착하고 순수하지만 극도로 소심한 남주인공 최진성, 그는 직장동료 장미를 매우 좋아하지만 역시 그는 극도의 소심남. 마음 속에서만 고이고이 넘치도록 좋아한다. 누군가를 좋아하지만 용기가 없어, 아니면 자신이 없어 바라보기만 할 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러브 뮤지컬이라 눈도 즐겁고 귀도 즐거웠던 공연, 나도 사랑에 빠지는 그런 마법같은 공연이었습니다.

- 조진애(중구 부평동)

한낮의 유콘서트 오페라 '아이다'

저녁시간이 자유롭지 않아 낮시간 열리는 유콘서트 만은 보기로 마음먹고 몇 달째 음악으로 호사(?)를 누렸다. 이제 막 음악회를 찾는 나에게 유콘서트는 부담 없는 레퍼토리, 다양한 볼거리로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1월에는 유콘서트 덕분에 드디어 오페라에 도전. 첫 오페라라 걱정이 앞섰지만 이루지 못한 사랑과 웅장한 음악이 나에게도 전해졌다. 역시 음악은 만국 공통어임을 실감했던 하루!

- 이미옥(사하구 하단동)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공장 전문점

나랏소리?
그 옛날 나랏님께서 드시던 우리
나랏소 한우를 드립니다.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예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 모집(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한려수도의 중심 거제도로 떠난 겨울여행

신묘년 새해의 부푼 소망을 안고 시작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11년 첫 테마여행은 새해를 맞는 정기회원 가족들의 설레임과 희망이 가득한 하루였다. 2001년 첫 테마여행지는 거가대교 완공으로 부산과 더욱 가까워진 한려수도의 중심 거제도. 제주도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인 거제도는 빼어난 절경으로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10년만에 찾아온 매서운 한파가 연일 기승을 부리던 지난 1월 14일, 테마여행을 떠나는 정기회원 가족들이 아침부터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에 모였다. 회원들 대부분이 거가대교를 이용한 거제도 여행이 처음이라 다들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까지 동참하면서 버스 안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다. 테마여행을 함께 떠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조은경, 하지희, 박은희 씨의 인사가 이어지면서 이번 여행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부산문화회관을 출발한 지 한시간여쯤, 부산신항만을 지나 가덕도 해안도로에 들어서자 저멀리 거가대교가 눈에 들어온다. 지난해 12월 14일 개통한 거가대교는 강서구 천가동에서 가덕도를 거쳐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총길이만 8.2Km에 달하는 다리로 부산에서 거제까지 2시간 넘게 걸리던 통행시간을 50분으로 단축시켰다. 거가대교 입구에 들어서자 바다를 향해 서있는 가덕휴게소가 눈에 들어온다. 사방이 아름다운 바다인 가덕휴게소부터가 바로 이번 테마여행의 시작.

휴게소를 나오자 바로 그 유명한 '가덕해저터널' 입구가 기다리고 있다. 최고 깊이 48m의 바닷속을 통과하는 '가덕해저터널'은 가덕도와 중죽도를 잇는 3.7km의 왕복 4차로로, 세계 최대 길이, 세계 최저 깊이의 침매터널이다. 상상속의 해저터널과는 사뭇 다른 일반 콘크리트 터널 모습에 실망도 잠시, 해저터널을 벗어나자 거대한 주탑이 가덕도 앞바다를 가로지르



는 사장교의 풍광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 길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거제도이다.

거제도에서 제일 처음 찾아간 곳은 옥포대첩기념공원. 임진왜란 초기 전라좌수사였던 이순신 장군이 옥포만에서 왜군을 물리쳤던 임진왜란 첫 승전지인 옥포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이다. 이순신 장군의 우국충절을 다시한번 되새기며 다음 여행지인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로 발길을 옮겼다.

130만평 부지에 조성된 옥포조선소는 세계 최대 수준의 100만 톤급 독(dock)과 900톤 골리앗 크레인, 자동화된 공장설비를 갖춘 다목적 조선소이다. 옥포조선소 입구에 도착하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가이드가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옥포조선소의 역사에서부터 조선소 규모, 선박건조과정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은 회원들은 눈앞에 우뚝 서있는 골리앗 크레인의 엄청난 규모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기술력에서도 세계 최고'라는 가이드의 설명에 한국인으로서 뿌듯한 자부심도 느껴본다.

싱싱한 해물로 가득한 뜨끈한 해물탕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정기회원들은 조선해양문화관에서 오후 일정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어업변천사와 거제도의 어제와 오늘을 다양한 패널과 디오라마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어촌민속전시관과 선박의 역사에서부터 조선기술, 해양미래, 어린이를 위한 해양학습실 등 다양한 주제로 꾸며진 조선해양전시관을 둘러보며 세계 제일의 조선 산업 중심지인 거제도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직접 해저세계를 탐험하는 듯한 짜릿함을 안겨준 국내 유일의 4D 시뮬레이터인 영상탐험관에서의 영상체험은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큰 인기였다.

조선해양문화관을 떠나기 앞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의 작은 음악회가 펼쳐졌다. 단원 조은경, 하지희, 박은희 씨가 빛어내는 애절하면서도 아름다운 양상블 선율에 회원들의 박수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음악회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도착한 곳은 1월 테마여행의 마지막 장소인 거제도 포로수용소. 한국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 포로를 수용했던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남아있던 일부 건물을 복원해 전쟁의 역사와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1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테마여행, 희망찬 새해 일출처럼 벽찬 설레임과 감동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글, 사진/정복엽)



2011년 3월에는 **경주**로 역사기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시고,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마감 2월 15일)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2월 테마여행 당첨자

엽서당첨자

김말선(사상구 덕포2동)
김진희(부산진구 전포2동)
손차순(남구 대연3동)
서진태(해운대구 우1동)
이경혜(남구 용호동)
박춘태(연제구 연산9동)
전성심(금정구 장전2동)
함수정(동래구 안락동)
정재영(양산시 북정동)
이지영(양산시 물금읍)

신규가입자

곽귀례(영도구 대평동 1가)
문성희(사하구 당리동)
박미정(남구 문현4동)
박용철(해운대구 반여1동)
윤예섭(해운대구 재송동)
이정혜(남구 용호3동)
이정희(북구 금곡동)
지용국(해운대구 우동)
최재남(서구 암남동)
한희정(연제구 거제1동)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2011 웰빙콘서트 시리즈

클래식이 보인다

영화속의 클래식 & 그림속의 클래식



지휘
이 동 신



해설·진행
진 회 숙 (I, IV)
서울시립교향악단 월간지 SPO 편집장



해설·진행
정 준 호 (II, III)
KBS FM 실황음악 진행자

- I 2.24 목
- II 4.28 목
- III 9. 8 목 매회 오전 11시
- IV 10.20 목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문의 051)607-3111~4 (부산시향) / 051)607-3100 (홍보마케팅부)

입장권 균일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할인)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감미로운 포크홀릭



추억의곡

하늘아래
그곳에서 *Part II*

Yesterday

2011. **3.4** (금) pm 8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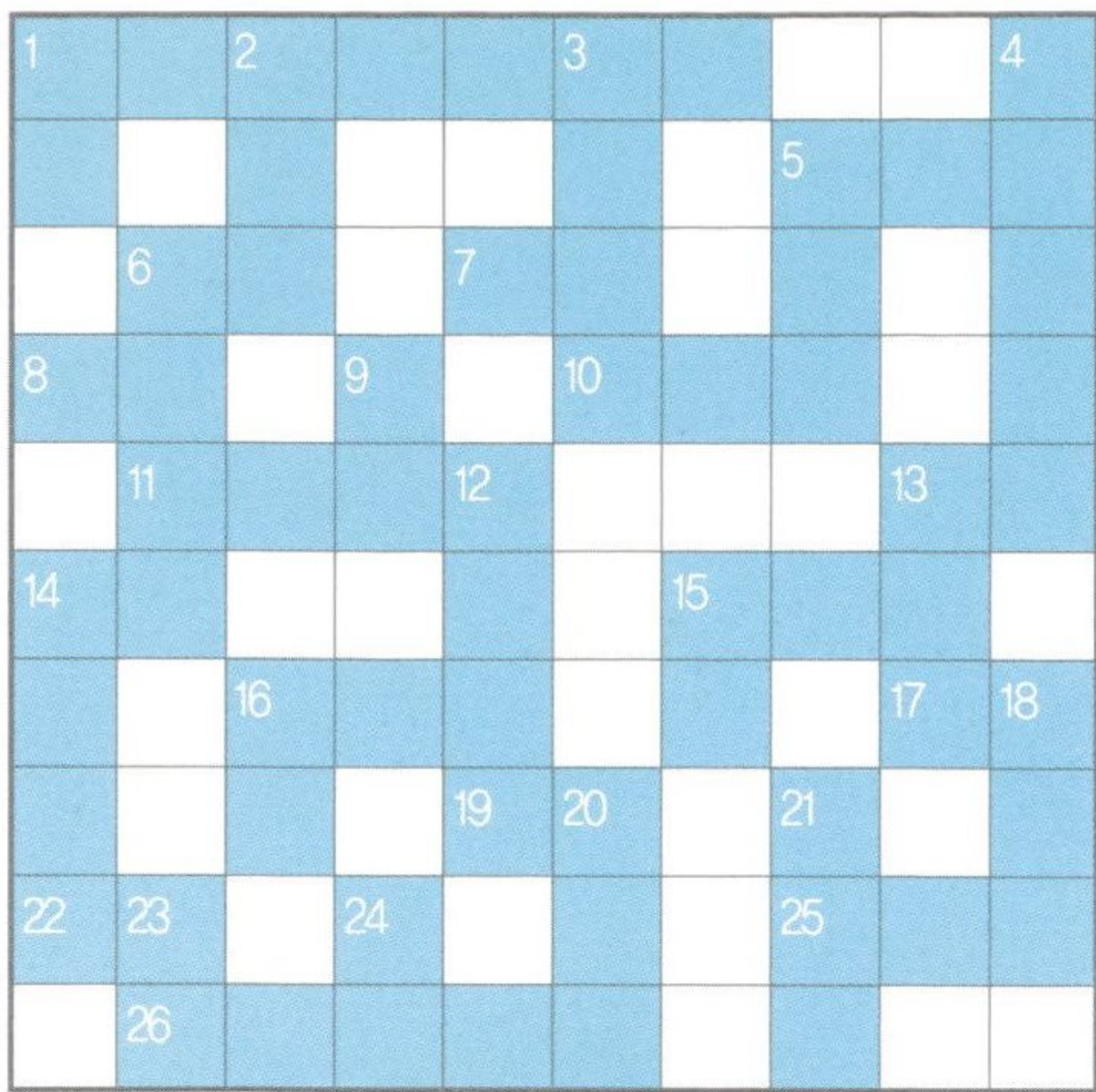
티켓 | 전석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607-6057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열쇠

- 1_부산시립교향악단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악기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여주기 위해 마련하는 어린이 눈높이 음악회.
- 5_지난해 12월 5일 타계한 사회비평가이자 사회운동가, 언론인. 1970~1980년대 진보적 지식인 사이에 '사상의 은사'로 존경받았다.
- 6_활을 두 줄 사이에 넣고 문질러서 소리를 내며, 줄을 잡는 손의 위치와 줄을 당기는 강약에 따라 음높이가 정해지는 국악기.
- 7_호흡을 가다듬는 훈련과 명상을 통해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심신단련법.
- 8_빙하기 때 얼음 속에 갇혀 있다 서울로 오게된 아기 공룡의 이야기를 그린 김수정의 만화 주인공.
- 10_사람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착하나 나쁜 환경이나 물

욕(物慾)으로 악하게 된다는 중국의 사상가 맹자가 주창한 학설.

- 11_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 강, 샘을 지배하는 신.
- 13_나무, 수지, 금속, 돌 등의 판에 그림을 새기고 색을 칠한 뒤 종이나 천을 대고 찍어서 만든 그림.
- 14_새내기 배우터의 준말로,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의 우리말 표현.
- 15_조선 시대 한양 도성의 남쪽 정문의 이름. 국보 제1호. 2008년 2월 방화로 소실되어 현재 2012년 말 완공을 목표로 복구중이다.
- 16_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에 걸쳐 있는 인공호수.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죽음의 호수'로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 17_손가락으로 더듬어 읽도록 만든 시각장애이용 문자.
- 19_남성의 가장 높은 음역. 또는 그 음역의 가수.
- 22_비행기, 로켓, 고속 기류 따위의 속도를 잴 때 쓰며, 음속에 대한 운동물체의 속도의 비로 나타낸다.
- 25_판소리 '춘향가'의 주인공인 성춘향과 이몽룡이 만난 전라북도 남원시에 있는 누각.
- 26_페렴으로 죽음을 앞둔 소녀의 절망적 상황을 안타까이 여긴 어느 무명 화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그린 오 헨리의 단편소설.

세로열쇠

- 1_소나타, 교향곡 등 여러 개의 독립된 소곡(小曲)들이 모여서 큰 악곡이 되는 경우 그 하나하나의 소곡.
- 2_오동나무로 된 긴 공명통 위에 열두 줄을 매고 손가락으로 뜯어 소리를 내는 우리나라 고유의 현악기.
- 3_장국영, 오천련 주연의 홍콩판 '오페라의 유령'.

- 4_제 67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오리종티 폐막작으로 선정된 홍상수 감독, 이선균, 정유미 주연의 최신작.
- 5_연극, 음악, 방송 등에서 공연을 앞두고 실제처럼 하는 연습.
- 6_영화로 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영국의 작가 조앤 K. 롤링이 지은 판타지 소설의 주인공.
- 9_조선 중기의 문신, 학자. 호는 율곡(栗谷). 서경덕의 학설을 이어받아 주기론을 발전시켜 이황의 주리적(主理的) 이기 이원론과 대립했다.
- 12_에스파냐의 작가 세르반테스가 지은 풍자소설. 과대망상에 빠진 주인공이 자기 스스로 중세의 기사가 되어 길을 떠나면서 겪는 다양한 모험이야기이다.
- 13_경기도 장단군 진서면 군사분계선에 걸쳐 있는 마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된 곳이다.
- 14_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고사성어.
- 15_밥을 지은 솥에서 밥을 푼 뒤 물을 붓고 데운 물.
- 16_고려 말기부터 발달해 온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로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6구 4보격(步格).
- 18_조선 세종 때 장영실이 왕명을 받아 만든 물시계.
- 20_주로 판소리에서 소리하는 사람이 소리의 가락이나 사설의 극적 내용에 따라 몸짓으로 하는 동작.
- 21_1988년 영화 '칠수와 만수'로 데뷔한 후 '그들도 우리처럼' '베를린 리포터'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등을 감독한 영화감독.
- 23_코끼리와 코뿔소 다음으로 체격이 큰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동물.
- 24_영화나 텔레비전 등에서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비추는 글자.

지난호 정답



부산은행 조은극장

- 강태균(해운대구 반송3동)
- 김기영(해운대구 좌동)
- 김정미(연제구 거제3동)
- 윤지영(사하구 하단동)
- 이수임(남구 대연3동)

공간 소극장

- 강은주(남구 대연4동)
- 윤인숙(기장군 기장읍)
- 전숙희(해운대구 우동)
- 최정윤(해운대구 재송1동)
- 형정민(동래구 온천3동)

나랏소

- 박동근(동래구 명륜동)
- 박승숙(수영구 남천동)
- 신유빈(남구 용당동)
- 조은경(금정구 장전동)
- 최정희(수영구 민락동)

큰집

- 김말선(사상구 덕포동)
- 김성미(부산진구 연지동)
- 김은미(연제구 연산5동)
- 손명자(동래구 낙민동)
- 신기화(연제구 연산5동)

그리움이 있는 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남포동과 광복동의 새로운 문화공간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TEL.1588-2757

세계적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 소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사계 **공간소극장**

(051)611-8518

문화공간사계 cafe.daum.net/say012

최고급 부산의 고명인사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곱담 전문점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1년 2월 15일까지 보내주세요)

2011년 부산시립예술단 신규단원 모집공고

■ 모집부문 · 인원 · 실기전형 일정

구분	모집부문 및 인원	실기전형 및 서류심사			
		일시	장소	합격자발표	
교향악단	상임단원(1명)	기획담당 1	3.23(수) 13:30	문화회관 회의실(서류심사)	3.23(수) 16:00
	비상임단원(10명)	바이올린 2, 비올라 1, 첼로 1, 호른 1, 트럼펫 2, 트롬본 1, 튜바 1, 타악기 1	3.22(화) 13:30	교향악단연습실	3.23(수) 16:00
국악관현악단	상임단원(1명)	홍보담당 1	2.15(화) 10:00	문화회관 회의실(서류심사)	2.16(수) 16:00
	비상임단원(5명)	소금 1, 피리 1, 해금 1, 아쟁 1, 타악 1	2.15(화) 14:00	국악관현악단 연습실	2.16(수) 16:00
무용단	비상임단원(4명)	한국무용 4	2.21(월) 10:30	무용단 연습실	2.22(화) 14:00
합창단	비상임단원(5명)	소프라노 2, 알토 2, 베이스 1	2.16(수) 10:00	소년소녀합창단연습실	2.17(목) 14:00
극단	상임단원(1명)	배우 1	2.14(월) 13:00	극단 연습실	2.16(수) 10:00
	비상임단원(10명)	배우 10	2.14(월) 13:00	극단 연습실	2.16(수) 10:00

- ※ 전형과목 및 기타사항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참조(<http://culture.busan.go.kr>)
- ※ 해당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실기(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전형 실시

■ 응시자격

▶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 필한 자 또는 면제 자(남자의 경우)
- 정규대학(4년제 포함)의 전공분야 졸업자(2011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 원서접수일 현재 1년 이상 부산시립예술단 비상임단원 재직 경험이 있는 자 응시불가

▶ 교향악단 기획담당 : 예술단 업무특성에 맞는 재능과 인성을 갖춘 자

- 영어번역 및 회화가능자 우대
- 자격증 소지자(컴퓨터 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

■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11. 1.20(목) ~ 2.9(수) 17:00까지

- 토·일요일은 제외, 지정곡 악보는 원서접수 후 배부
- 우편접수는 2.9(수) 13:00 도착분에 한함
- 교향, 합창의 경우 우편접수자는 지정곡 악보 반송용 봉투(우편첨부) ※ 동봉시 지정곡 악보 우송 가능
- 국악 우편접수자는 창작곡 연주악보 6부 동봉 제출

▶ 접수처 : 608-024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공연과(공연담당) 051-607-6041~6

■ 제출서류

- 공통 : 응시원서(소정양식),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외국어로 된 경우 번역본 포함),
경력증명서·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각 1부 및 창작곡 연주악보 6부(국악에 한함) 제출
- 교향 기획담당 : 자기소개서 1부
- 국악 홍보담당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4매 이내)

■ 문의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http://culture.busan.go.kr>)의 고시/공고란 참조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실(교향 607-3111, 국악 607-3121, 무용 607-3132, 합창 607-3142, 극단 607-3152)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051-607-6041~6)

엠피온스는 인간과 자연,
미래를 위한 가치창조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2003년 설립된 젊은 기업 엠피온스는 인조대리석 및 특수 플라스틱 경화제인 Alkenox P-100과 인조대리석 경화제인 Alkenox TBM, 다양한 유기과산화물을 개발, 생산 국내 및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5: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월 12일 토요일 오후 5:30

국악실내악단 '산바다해' 연주회

전통음악의 보급과 현대화 작업을 통해 대중들에게 새로운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 2003년 12월 창단된 국악실내악단 '산·바다·해'는 항상 신선한 젊은 마음으로 도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음악을 확산,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프로그램

수제천

산조합주

대풍류

드라마 '추노' OST '비익련리'

드라마 '황진이' OST '꽃날'

Moon River, My way, Under the sea

· 해설/김민경

영국민요/등대지기

정태춘/춧불

· 출연/소프라노 남순천, 전귀만, 홍승현, 이정희, 엄남이, 권순유

앨토 손미숙, 김성미, 안소영, 신소운, 배소영, 박진희

테너 김진영, 김추리, 권정은, 김웅태, 최춘식, 이재원

베이스 최영수, 최기호, 최성규, 이정철, 구명금, 장용균

· 지휘/박광하(트레이너)

2월 26일 토요일 오후 5:30

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 연주회



2007년 국악을 전공하는 부산지역 고교생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창단된 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은 전통음악을 비롯해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음악을 추구하며 다음 세대 부산의 국악계를 이끌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있다.

프로그램

정악합주 '도드리'(거문고/정주은, 윤희민 · 가야금/김미나, 박가연 · 해금/한지연 · 아쟁/권다정 · 양금/김현경 · 소금/박성주 · 대금/김범석, 김면수 · 피리/신선영, 지영재 · 좌고/김근혜 · 장구/박우정)

해금독주 '지영희류 해금산조' (해금/양영근 · 장구/임채형)

현악합주 '천년만세' (가야금/김지우, 박현정 · 거문고/최경철, 정주은 · 양금/김현경 · 장구/박우정)

판소리 '수궁가' 중 '고고천변' (소리/김예진 · 고수/김선민)

생소병주 '수룡음' (생황/최경철 · 단소/박성주)

여창가곡 '평릉' (노래/이유나 · 거문고/최경철 · 대금/김면수 · 장구/임채형)

사물놀이(연주/박우정, 김선민, 임영화, 김근혜)

· 해설/홍희철(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2월 19일 토요일 오후 5:30

부산시립합창단-겨울의 끝자락

프로그램

한국가곡(최석태 편곡)

장일남/기다리는 마음 (곡중 독창 Bar.이정철)

김동환/그리운 마음(곡중 독창 Bar.최성규)

임금수/사랑하는 마음(곡중 독창 Ten.김웅태)

바리톤 독창(바리톤 최기호)

이흥렬/바위고개

즐거운 합창

강문칠(편곡)/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

이탈리아 민요/Ma Bella Bimba

스페인 민요/고향생각

베르디/저 높이 나는 비행기

메조소프라노 독창(메조소프라노 신소운)

김순애/그대 있음에

추억의 노래(최석태 편곡)

이장희/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3월 11일 (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5주년 기념 경주 수학여행 다시 가기



양동마을

2006년 3월 '경주 수학여행 다시 가기'를 시작으로 매달 둘째 주 금요일 펼쳐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5주년을 맞아 테마여행 첫 출발지 경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최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양동마을과 회재 이연적 선생이 공부하던 독락당, 옥산서원 등 문화유적이 산재한 경주 안강 세심마을로 역사 기행을 떠난다.

- ▷ 07:10 부전역 집결(7:35분 출발) ▷ 09:34 경주도착, 버스로 환승 양동마을 이동
- ▷ 10:20 경주 양동마을 도착, 역사탐방
- ▷ 12:00 세심마을 이동, 중식
- ▷ 13:00 독락당, 옥산서원 탐방
- ▷ 14: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고택음악회)
- ▷ 14:30 전통놀이로 하는 무과 과거체험, 떡매치기
- ▷ 16:00 경주역으로 이동
- ▷ 17:09 부산행 열차 탑승 ▷ 19:10 부전역 도착 후 해산

▶ 4월 8일 (금) 사천 봄빛 기행



다솔사

사천의 봄은 바다 빛부터 다르다. 신라 지증왕 때 범승 연기조사가 창건한 고찰 다솔사를 시작으로 삼천포대교와 인근의 섬들을 돌아보는 유람선에 올라 사천의 또 다른 매력을 찾아 봄나들이를 떠난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비봉내 마을, 대숲산책, 다솔사
- ▷ 13:00 중식
- ▷ 14:00 한려수도 크루즈유람선 탑승
(삼천포대교-코섬-신수도-상족암-삼천포화력발전소-코끼리바위-삼천포항)
-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6:30 부산으로 출발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우편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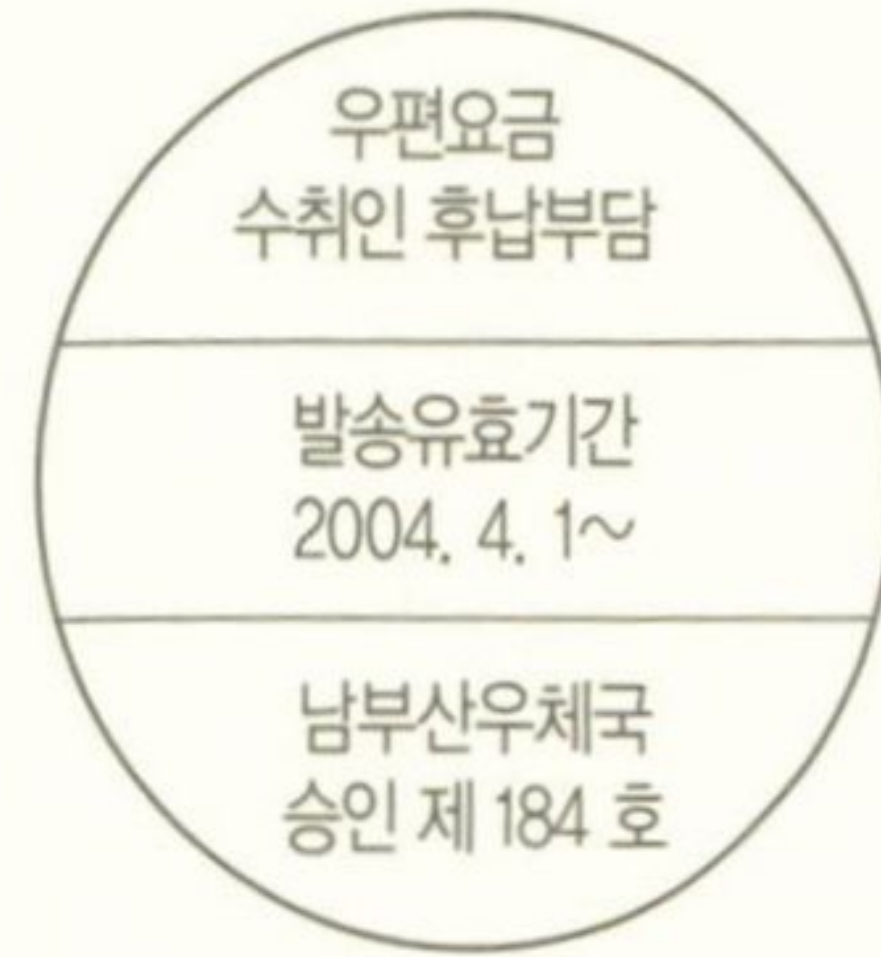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 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 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WineBeer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연극 **혼남들의 수다** 20% 할인

2011. 2. 11(목) ~ 3. 20(일)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 2월 14일 제외한 월요일 공연없음.
▶ 입장권 : 균일 30,000원
▶ 장 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 문의 및 예매 : 1588-2757

※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전망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 대인 5,500원, 소인 4,500원)

▶ 날짜 : 2010. 1. 1(금)~12. 31(금)
▶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시 통합입장권에 의해 1매 2인 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예매 및 문의
051) 744-48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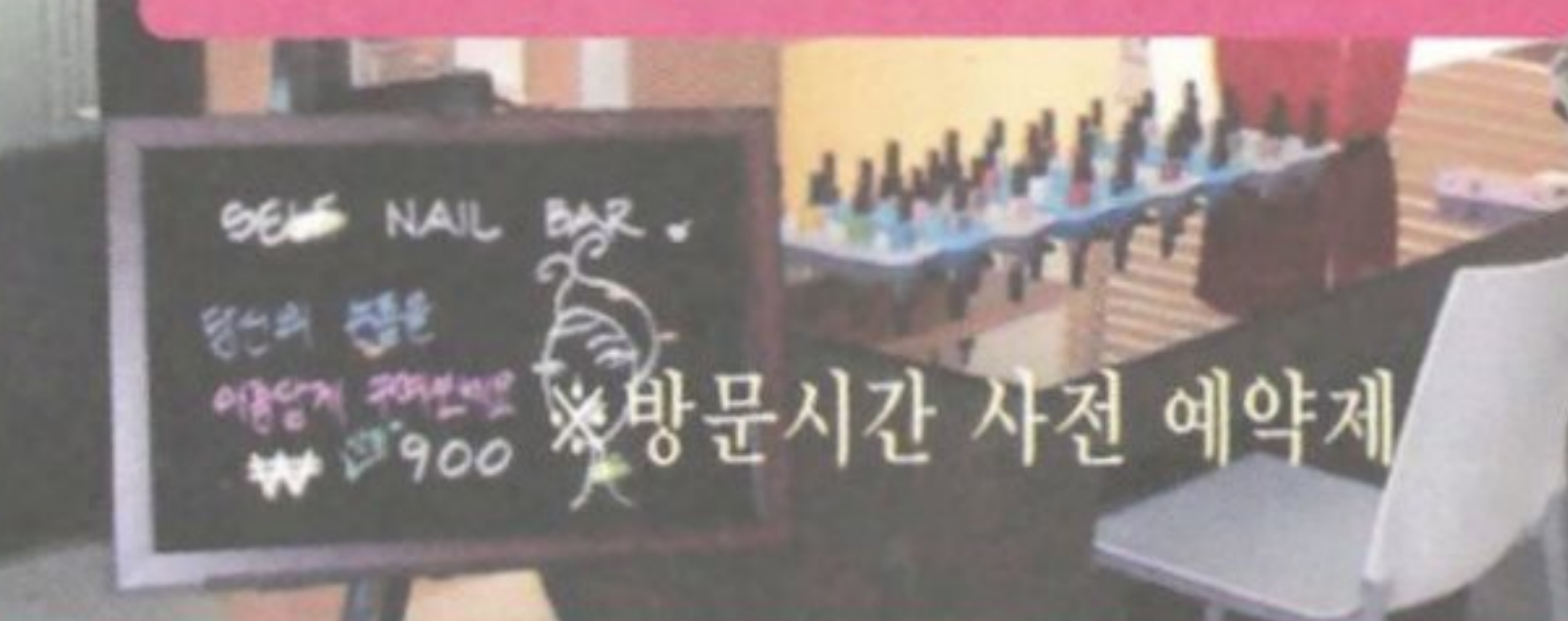
점프 20% 할인

평일 20:00 / 토·공휴일 17:00, 20:00 / 일요일 18:00
IBK, 롯데, 해운대 그랜드호텔 비 50,000원(R석) / 40,000원(S석)

* 우편제시시 1매 4인까지 할인 가능 * 전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 가능 * 타 우편, 할인카드 중복사용 불가

참존 직영점
참존 스킨타운 부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마사지무료 체험권



※ 방문시간 사전 예약제

부산시 남구 대연4동 733번지 유안빌딩 051-626-676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18 **질문**

2011. 2. 11(금)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0,000원 문의 | 부산문화회관(051-607-6058)

예매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싸이클럽 하늘아래 그 콘서트 club.cyworld.com//0911 concert

금경 (한식퓨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박물관 옆 ☎ 051-611-196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BUSAN CULTURAL CENTER **Membership**
<http://culture.busan.go.kr>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을
편리하게 예약, 관람할 수 있으며,
부산문화회관은 물론 부산시내 전 공연정보를 담은
'예술에의 초대'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를 통해
조기예매와 다양한 공연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회원종류 및 가입회비 •

구 분	가입회비	할인매수
특별회원	50,000원	공연시 4매 할인
일반회원	30,000원	공연시 2매 할인
청소년회원	20,000원	공연시 1매 할인
단체가입	30명이상 가입 10% 할인	

- 회원기간 _ 가입일로부터 1년
- 할 인 율 _ 기획공연 5~30%, 시립예술단공연 5~30%
- 좌석선택 _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좌석선택
- 할인횟수 _ 제한없음
- 가입신청 _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 ※ 가입비 납부방법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 탈 퇴 _ 5일 이후 탈퇴시는 일정액(수수료) 제외 후 환불
- 예약취소 _ 공연 당일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 혜 택
 - 월간공연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우송, 조기예매 기회제공, 문화강좌 할인, 테마여행
 - 부산시내주요 공연장 및 관람시설, 할인쿠폰제공 등

■ 정기회원 가입이벤트 ■

매달 2명 추천 ▶ 점프전용극장 공연 초대권을 드립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67회 정기연주회



지휘 및 피아노
장-베르나르 포미에

부산시립교향악단

거장 장-베르나르 포미에

Jean-Bernard Pommier

초청연주회

베를리오즈 '로마의 사육제' 서곡
생상 피아노 협주곡 제2번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5번

2011. **3.17**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입장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문의 051)607-3111~4 (부산시향) / 051)607-3100 (홍보마케팅부)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BS 부산은행 전지점